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학 년 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研究

- 허벽을 중심으로 -

美 術 史 學 科

李 京 孝

2 0 1 0

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研究  
- 허백을 중심으로 -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月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李 京 孝

# 李 京 孝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張 南 原      \_\_\_\_\_

審查委員      金 紅 男      \_\_\_\_\_

                         洪 善 杓      \_\_\_\_\_

                         張 南 原      \_\_\_\_\_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 목 차

삽표목록 .....	v
표목록 .....	v
삽도목록 .....	vi
도판목록 .....	vi
논문개요 .....	ix
I. 머리말 .....	1
II. 허벅의 정의와 기원 .....	7
1. 허벅의 정의 .....	7
2. 허벅의 기원 .....	10
III. 제주도 가마와 허벅 생산 .....	19
1. 제주도 가마의 유래와 입지 .....	19
1) 가마의 유래 .....	19
2) 가마의 입지 .....	26
2. 가마의 축조재료와 구조 .....	36
1) 가마의 축조재료 .....	36
2) 가마의 구조 .....	38
(1) 고온 산화번조 가마[노랑굴] .....	43
(2)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	46
3) 가마의 운영 - 허벅생산 .....	48
3. 허벅의 수요와 유통 .....	50
1) 허벅의 수요지역 .....	50



2) 허벅지의 유통 수단과 방법 .....	54
<b>IV. 허벅지의 조형과 양식 .....</b>	<b>59</b>
1. 허벅지의 제작기술 .....	59
1) 재료와 성형준비 .....	59
2) 허벅지성형과정 .....	60
3) 건조 .....	68
4) 재임 .....	69
5) 번조 .....	69
2. 허벅지의 기능과 양식 .....	71
1) 허벅지의 기능과 조형미 .....	71
2) 허벅지의 기본양식 .....	72
(1) 고온 산화번조 허벅 .....	74
(2) 환원번조 허벅 .....	77
3. 허벅지의 양식변화 .....	80
1) 고온 산화번조 허벅 .....	80
2) 환원번조 허벅 .....	90
<b>V. 맺음말 .....</b>	<b>93</b>
참고문헌 .....	97
표 .....	105
도판 .....	113
<b>ABSTRACT .....</b>	<b>129</b>

## 삽 표 목 록

<삽표 1> 『三郡戶口家間存案冊』(1904년)에 수록된 제주도 와가 칸수 .....	22
<삽표 2> 『제주대정정의읍지』에 수록된 토지결수 .....	33
<삽표 3> 제주점토 분석결과 .....	34
<삽표 4> 조선후기 제주도의 지역별 호구상황과 호구비율 .....	51
<삽표 5> 한줄 치의 값(대정읍 구억리의 경우) .....	57
<삽표 6> 『조선지지자료』(1910년경)에 나타난 제주시장 .....	58
<삽표 7> 허벅에 시문된 문양 .....	73
<삽표 8> 구연 유형별 허벅의 분류 기준 .....	81
<삽표 9> 크기별 허벅 분류 .....	82
<삽표 10> 구연 유형별 허벅의 분류기준과 크기별 분류 현황 .....	83
<삽표 11> b식 기준의 구연별 유형 .....	88
<삽표 12> 크기별 허벅 분류 .....	91

## 표 목 록

<표 1> 제주도 가마터 현황 .....	105
<표 2> 『제주읍지』(1780년경)에 나타난 제주인구 .....	108

## 삽 도 목 록

<삽도 1> 제주도 가마 분포도 .....	26
<삽도 2> 18~20세기초 제주도 삼읍의 호수비율증감도 .....	52
<삽도 3> 『제주읍지』(1780년경)에 나타난 제주인구분포도 .....	53
<삽도 4> 취락요소에서 본 제주도의 지역구분 .....	54
<삽도 5> 허벅 성형과정 .....	64

## 도 판 목 록

<도판 1-①> 구덕 .....	113
<도판 1-②> 허벅과 구덕 .....	113
<도판 2-①> 물허벅 진 사람들 .....	113
<도판 2-②> 물허벅 진 사람들 .....	113
<도판 3> 춤받음향 .....	113
<도판 4> 목통(木桶) .....	113
<도판 5-①>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	114
<도판 5-②>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	114
<도판 6>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 .....	115
<도판 7-①>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	115
<도판 7-②>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제주지도(濟州地圖) .....	116
<도판 7-③>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	116
<도판 7-④>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 .....	117
<도판 8> 탐라도총(耽羅都摠) .....	117

<도판 9> 한라장축(漢拏壯矚) .....	118
<도판 10>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 - 『호남읍지』 수록 .....	118
<도판 11>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아궁이 입구 .....	119
<도판 12> 여초리(余草里) 기와가마의 아궁이 .....	119
<도판 13> 문경 관음리 망탕이가마의 아궁이 .....	119
<도판 14> 살창기둥과 격벽[불벽] .....	119
<도판 15> 방목리 가마 .....	119
<도판 16> 신양리 가마 .....	119
<도판 17> 정생동 가마 .....	120
<도판 18>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굴뚝 .....	120
<도판 19> 미륵리 1호가마 .....	120
<도판 20> 문경 관음리 가마 .....	120
<도판 21> 대전 구암리 도요 .....	120
<도판 22>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실측도면 .....	121
<도판 23>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전경 .....	122
<도판 24>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아궁이 .....	122
<도판 25>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연소실 .....	122
<도판 26>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불벽과 불구멍 .....	122
<도판 27>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변조실 .....	122
<도판 28>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갯불구멍 .....	122
<도판 29> 환원변조 가마[검은굴] 실측도면 .....	123
<도판 30> 환원변조 가마[검은굴] 전경 .....	123
<도판 31> 환원변조 가마[검은굴] 아궁이 .....	123
<도판 32> 환원변조 가마[검은굴] 내부 .....	124
<도판 33> 환원변조 가마[검은굴] 배연구 .....	124
<도판 34> 환원변조 가마[검은굴] 내부벽 .....	124

<도판 35>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천정 .....	124
<도판 36> 탐락약도 .....	124
<도판 37> 덕판배 .....	124
<도판 38> 마차 .....	125
<도판 39> 질 때리기 .....	125
<도판 40> 타렴질 .....	125
<도판 41> 소라껍데기 흔적 .....	125
<도판 42-①> 조개껍질 흔적 .....	125
<도판 42-②> 조개껍질 흔적 .....	125
<도판 43> 횡선문(橫線文) .....	126
<도판 44> 파상문(波狀文) .....	126
<도판 45> 빗살문[縱線文] .....	126
<도판 46> 파상문만 시문된 경우 .....	126
<도판 47> 무유(無釉) 고온 산화번조 .....	126
<도판 48-50> 자연유상상태의 발색 .....	126-127
<도판 51> 그릇을 씌워 고온 산화번조한 허벅 .....	127
<도판 52> 환원번조 허벅[지새 허벅] .....	127
<도판 53> 도기호 .....	127
<도판 54> II-b형식 허벅 .....	127
<도판 55> III-b형식 허벅 .....	128
<도판 56> IV-b형식 허벅 .....	128
<도판 57-①> 변형된 환원번조 허벅 .....	128
<도판 57-②> 변형된 환원번조 허벅 .....	128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조선후기 제주도 용기(甕器) 중 ‘허벅’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물 운반용구였던 허벅은 내륙에 없는 독특한 용기로서 주로 민속학·사회학적 관점과 성형방법을 중심으로 현대 도자공예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미술사 분야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 또한 미진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허벅의 기원과 유래를 밝히고, 가마의 입지조건과 종류, 생산과 유통, 허벅의 기능과 양식변화 등 조형분석을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하여 제주도 용기가 도자사의 한 갈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허벅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제주도 용기 중 허벅이 근대기 상수도시설이 구비되기 이전까지 물을 길는데 가장 긴요했던 용기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허벅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회토 지형인 제주도에서 비가 오면 물이 땅으로 빠져 해안가에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해안가에 형성된 용천수(湧泉水)나 봉천수(奉天水)가 있는 곳에 물을 길러 다니기 위해 구경은 좁고 어깨외경이 팽만한 대병(大甁) 형태로 제작된 운반용기였다. 물 길는 용구는 18세기 초까지의 문헌기록을 통해 나무로 제작된 목통(木桶)을 사용하였고, 도기(陶器)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18세기 후반(178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제주읍지(濟州邑誌)』 대정현지(大靜縣誌) 도로조(道路條)에 기록되어 있는 대정현 서쪽 5리 정도에 있는 가미수(茄味藪) 용점(甕店)을 통해 18세기 중후반에 나무로 된 목통에서 도기로 대체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가마가 형성된 시기는 17세기 중반의 정황을 보여주는 1649년 「홍화각중수기(弘化閣重修記)」에서 제주에는 기와를 제작할 수 있는 장인이 없어 바다 건너 가까운 읍에서 불러와야 한다고 한 것, 1660년 「제주장수당기(濟州臧修堂記)」에서 기와는 도토(陶土)를 잘 구워서 이것을 쓰겠다고 했던 대목, 이익태(李益泰, 1633~1704)의 『지영록(知瀛錄)』에 수록된 1694년의 연무정 보수에 필요한 기와를 명월면의 옛 가마터에서 굽는데 그 근처의 하인(下人)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다는 내용 등을 통해 17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기술의 유입과 습득으로 기와를 자체에서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702~1703)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서 도자기는 생산되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18세기 초반까지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가마가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용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가 만들어지고 장인들이 기술이 전수되어,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가마가 존재하고 도기가 제작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가마의 입지와 관련하여 『제주읍지(濟州邑誌)』에 기록된 대정현 서쪽 5리 정도에 있는 가미수(茄味藪) 웅점(甕店)이 위치했던 지역은 현존 가마터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며 가마의 입지조건은 수요지 중심이 아닌 원료의 산지가 중심이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즉 수요지 중심이었다면 조선후기 제주의 인구밀도가 집중되어 있었던 제주목에 위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대정현에 있었던 것은 도토의 수급이 용이하고 번조시에 연료로 사용되는 많은 양의 시목(柴木)을 획득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가미수(茄味藪)의 ‘수(藪)’는 수풀의 뜻을 가진 ‘곶’의 차자 표기로 제주도에서 일명 ‘곶자왈’이라 하는데, 이 지경에 가마가 위치해 있었기에 땀감을 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했던 것이라 생각되었다. 『해동지도-제주삼현도』(1750년경), 『제주삼읍전도-대정군지도』(1872년), 『제주군읍지도-대정군지도』(1899년) 등 고지도를 통해 옛 지명에 나타나는 수(藪)의 위치와 가마터가 분포하는 지경이 현재 월림-신평곶자왈 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벅을 생산했던 가마는 고온 산화번조[‘노랑굴’] 가마와 환원번조[‘검은굴’] 가마 두 종류가 있다. 현존 가마터의 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해 축요(築窯) 방식, 가마의 구조, 재임과 번조방식을 살펴보았으며 조선후기 제주 인구밀도와 도로망을 통해 생산된 제품과 허벅의 수요와 유통을 고찰하였다.

허벅의 제작기술, 기능과 양식변화 등 그 특징과 조형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가마의 번조 방법 즉 고온 산화번조 혹은 환원번조에 따라 기물표면의 색과 강도가 다르고 제작방법과 기능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달랐다. 특히 제작수법에 있어서 전라도 지역에서만 나타난다는 첻바퀴 타림이 제주에서도 나타나며, 제작 도구에 있어서도 동일 명칭의 용어가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간의 도자 제작기술의 유입 및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요도구에 있어 조개껍질흔이 내륙에서는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 경이면 나타나지 않고 굽은 모래흔이 보이지만, 여전히 기물에서 내화재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대편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섬이라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내륙으로부터 들어오는 요소와 항해,

표류 등 외부유입이 있었지만 수용하는 측면에선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었다. 내륙에서 잿물을 바른 갈색의 옹기[施釉陶器, 甕器]가 제작될 때, 제주도에서는 시유하지 않은 고온 산화번조의 옹기와 삼국시대 이래 제작된 회색 경질도기, 고려도기에서 보편화되는 환원번조의 옹기가 있었다. 그리고 고온 산화번조 무유옹기(高溫酸化燐造無釉甕器)의 생산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현재 이 제작기술은 한반도 본토에서는 유사한 것이 없으나 오늘날에도 생산되고 있는 일본의 육고요(六古窯)와 오끼나와(琉球)의 아라야치[荒窯] 등과 유사성을 띠고 있어 해로로 연결되는 일본과 오끼나와 등지의 도기기술의 교류 부분은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핵심어 : 허벅, 옹기, 목통, 옹점, 기와가마, 고온 산화번조 가마[노랑굴],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 I. 머리말

허벅은 외반하는 구연에 목은 좁고 어깨가 팽만한 대병(大瓶) 형태의 물 운반용구이다. 제주토로 만들어진 제주옹기(甕器)<sup>1)</sup>이며 ‘구덕’이라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넣고 등에 지고 다녔다.<도판 1> 허벅은 제주옹기 중에서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매우 많은 수량이 생산·소비되었다.

제주도는 근대기까지 최대 강우량 지역이면서도 물이 부족하고 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 화산분출에 의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회토 지형이어서 비가 오면 물이 땅으로 빠져 해안가에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물을 길러 해안가 용천수(湧泉水)나 봉천수(奉天水)가 있는 곳까지 가야만 했다.

허벅은 물을 가득 담은 채 넘치지 않고 운반하기 위해서 견부와 동체는 부르고 구경이 좁게 만들었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머리에 이지 않고 등짐운반을 했던 허벅은 상수도시설이 없던 시절, 제주 사람들에게 필수용기였다. 이러한 허벅이 상수도시설이 들어오고 고무·플라스틱·스테인레스 등 대체용품이 대량생산되면서 실수요자가 줄기 시작하여 급속히 사라졌으며, 허벅생산도 1960년대 후반 경 이후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벅은 현재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제주인의 마음속에는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 있다. 허벅은 생명수를 의미했고 그것을 운반하는 일은 삶을 지속시켜 나가게 해주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벅은 역사 이래로 제주인의 삶과 함께 해 온 소중한 생활용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정도와 의미에 비해 허벅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실생활에서 너무나 실용적으로 쓰여서인지 예술품으로서 주목도 받지 못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허벅에 대한 연구를 보면 생활민구로서 민속자료조사나, 인류학·사회학적 관점과 성형방법으로써 현대 도자공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옹기를 생산했던 마을과 가마터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옹기의 쓰

1) 옹기의 용어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의미로 옹기를 갈색의 잿물 시유된 그릇을 지칭한다고 하면 산화번조·환원번조 된 허벅 등 제주도에서 생산된 기물은 무유기물이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적용은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넓은 의미로 옹기를 질그릇과 오지그릇·반오지그릇을 일컫는다면 환원번조 기물은 질그릇에, 산화번조 기물은 반오지그릇에 해당한다. 따라서 옹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무리가 없으나, 옹기의 개념 정의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임과 종류, 전통공예로서의 장인기술, 생산과정과 판매방법 및 유통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sup>2)</sup>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지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변천 모습을 연계시키기에는 다소 미비하였다. 이것은 과거의 문헌에 나타난 단편적인 사료 인용과 사료분석이 미진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보면 특히 미술사 관련 연구자들에게 허벅, 즉 제주도 옹기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구 또한 미진하다. 이것은 내륙의 옹기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도자는 도기(陶器)와 자기(瓷器)로 이루어졌으므로 도자사(陶瓷史)는 도기사와 자기사를 함께 다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도자사가 일제 강점기시대 학계<sup>3)</sup>의 영향을 받아 근대미술의 서열화된 장르 개념, 즉 위계적 구분에 의해 청자·분청자·백자 중심의 자기사만을 다루고 있고, 고려·조선시대의 회청색 경질도기나 옹기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설서에서조차 언급이 없는 실정이어서 도기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고려·조선시대에서는 청자·백자 등의 자기사와 함께 회청색 경질도기나 옹기 등이 반드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sup>4)</sup>

2) 지금까지 허벅에 대한 연구로 다음의 논문, 단행본, 보고서들이 참고 된다.

- 金美榮, 「濟州道 허벅에 關한 研究 -觀光土産品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김은석,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고찰」, 『제주교육대학 논문집』, 1990.  
 梁才心, 「濟州道 甕器에 對한 研究 -造形性을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오염심, 「제주도 전통사회의 옹기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경효, 「제주도 전래 가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이경효, 「제주도의 가마 -노랑굴·검은굴·기왓굴-」, 『생활문화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이경효, 「허벅에 대한 일고찰」,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IV, 국립민속박물관, 2008.  
 강창언·이경효, 『제주전통도예』, 가시아히, 2000.  
 국립민속박물관, 『허벅과 제주질그릇』, 2007.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篇-』, 1977.  
 제주도,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1973.  
 濟州道, 『濟州道 民俗資料』, 1987.  
 제주도, 『제주도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제주도 허벅장-』, 2003.  
 濟州道, 『濟州道の 文化遺産』, 1982.  
 濟州道, 『濟州의 民俗』 II -生業技術·工藝技術-, 1994.  
 濟州道, 『濟州의 民俗』 IV -衣生活·食生活·住生活-, 1996.

3) 일제강점기 일본 관학과 미술사가들의 인식의 배후에는 서구 근대의 계몽주의와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이 기반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공예를 서구 근대미술의 서열화된 장르 개념, 즉 위계적 구분에 의해 일반미술에서 배제된 인접 분야로 인식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 사조에서 중시했던 정교함과 정확함, 인위성과 경험성, 독창성과 사실성 등을 미술 평가의 척도로 삼았다. 홍선표, 「한국 미술사 인식들의 비판과 새로운 모색」, 『미술사논단』, 200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지도를 비롯한 문헌상에 나타난 각종 사료를 중심으로 기원과 유래, 입지조건과 유통에 관하여 살펴보고, 발굴조사보고서와 현존하는 가마터 조사 및 전세품을 바탕으로 가마의 종류와 생산, 허벅의 기능과 양식분석을 통해 허벅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많은 양이 생산·소비되어, 제주도 옹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허벅을 중심으로 제주도 옹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옹기의 개념과 용어 사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후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갈색이 시유된 옹기 등의 도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도기들이 생활에 널리 사용되었다.<sup>5)</sup> 조선후기 도자사에 있어서 시유된 도기인 옹기는 1만년의 한국도기사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그릇이다.<sup>6)</sup>

도자사가 도자를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복원하고자 한다면,<sup>7)</sup> 조선후기에 급격하게 수요가 확산된 옹기를 통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 경제사적 측면과 소비지역에서 음식물과 생산물 등 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른 생활사적 측면, 제작자의 기술과 감각 등의 예술적 측면,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치 문화 교류의 측면 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옹기 관련 여러 선행 연구<sup>8)</sup>가 있어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옹기의 어원을 살펴보면, ‘옹’의 한자표기로는 ‘甕’, ‘瓮’, ‘甕’ 등이 쓰이고 있는

4) 윤용이, 「도자사와 교재」, 『미술사와 교재』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16회 전국학술대회-, 2005.

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2002.

6) 윤용이, 『우리의 옛 질그릇』, 대원사, 1999.

7) 강경숙, 『도자 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 시공사, 2000, p.39.

8) 1987년도 ‘세계과학자대회’에서 미국학자인 Robert H. Sayers가 ‘한국 옹기의 과학성을 발표하여 주목받았고 인류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주로 현지 조사를 통하여 1970년도의 국내 옹기점의 현황, 옹기의 제작 및 사용법 등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R. H. Sayer, 『The Korean Onggi Potter』, 1987. 문화재관리국, 『甕器-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987.

문화재관리국, 『甕器匠』, 1990.

鄭明鎬, 「옹기의 명칭과 과학성」, 『죽당이현회 교수 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죽당이현회교수화갑기념논찬행위원회, 동방도서, 1997.

曹正鉉, 「甕器小論」, 『陶藝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1987.

정병락, 『옹기와의 대화』, 옹기민속박물관, 1998.

데 이들은 발음과 뜻이 동일한 한자로서<sup>9)</sup> 우리말에 ‘독’ 혹은 ‘항아리’에 해당된다. 許愼의 『說文解字』에 의하면 ‘瓮’자가 소개되어 있으나 ‘甕’자는 없는 것으로 보아, ‘瓮’자는 漢代를 전후하여 ‘甕’자 보다 먼저 사용되었던 글자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甕’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옹’의 형태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에 “운두가 높고 중배가 조금 부르며 전이 달린 큰 오지그릇이나 질그릇”<sup>11)</sup>이라 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옹기’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옹’ 즉 독이나 항아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정현은 “옹기란 독을 지칭하는데서 오는 명칭이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자기류를 제외한 모든 陶器를 속칭하는 것이다 ….”<sup>12)</sup> 고 하였다.

정병락 역시 “옹기란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총칭하는 단어로 한자로는 ‘瓮’ 또는 ‘甕’이라고 쓰고 외국에서는 그대로 ‘Onggi’라고 표기하고 있다.”<sup>13)</sup> 라고 하여 陶器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정양모·이훈석·정명호는 “옹기는 오지그릇[施釉]으로 가마 안에 바람과 불길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여 산화변조로 구워낸 숨쉬는 그릇이다. ……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으나 약토와 재를 섞어 잿물을 만들어 입혀 구우며, 숨은 쉬면서 물이 통하는 것을 막아준다”<sup>14)</sup>고 하였다. 또한 나선화는 “다갈색유가 시유된 옹기에 대한 개념은 근세에 정착된 개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생활이 안정됨에

윤용이, 『우리 옛 질그릇』, 대원사, 1999.

정양모·이훈석·정명호, 『옹기』, 대원사, 1999.

나선화, 「옹기원연 소고」,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0.

\_\_\_\_\_, 『도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도자기의 흐름 : 우리 물길을 따라서』,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2005.

\_\_\_\_\_, 『한국의 전통공예 도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9) 長三植,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1979.

‘甕[罍也, 汲水器]’ ‘瓮[罍也, 甕同]’ ‘甕[甕罍也, 甕同, 瓦窓]’

10) 鄭明鎬, 앞의 논문, 1997, p.6.

11) 이기문 감수, 『새국어사전-개정증보판』, 동아출판사, 1989, p.542.

12) 曹正鉉, 앞의 논문, 1987, pp.33~35.

옹기를 굽다가 폐쇄한 마을(경북봉화군)에 현지답사를 갔을 때 질그릇(無釉)과 옷그릇(施釉)을 합쳐 옹기라고 부르고 있어 도기보다 옹기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13) 정병락, 앞의 책, 1998, p.116.

이러한 옹기는 가마 안에 공기와 불길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해 산화변조로 구워낸 숨을 쉬는 그릇이며, 불심이 셀 때 술가지를 한꺼번에 지피고 굴뚝과 아궁이를 막아 검댕이를 입혀 불완전 환원변조로 구워낸 그릇이다.

14) 정양모·이훈석·정명호, 앞의 책, 1999, pp.8~16, 20.

따라 저장식품이 증가되고, 저장용기인 장독이 대형화 되면서 옹기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며 후에는 다갈색유가 시유된 큰 항아리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용어로 정착되었다<sup>15)</sup>고 하여 시유한 도기에 한하여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용이는 “甕은 독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로 그릇의 형태를 일컫는 말이나, 현재 쓰이는 옹기는 그릇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藥土라는 황갈색 유약이 사용된 그릇을 모두 총칭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잘 못된 두루뭇술한 표현으로, 고쳐져야 되며 그릇의 형태로서 독(옹)은 황갈색 유약이 시유되었던 시유되지 않았던 데, 중, 소의 독들을 옹기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sup>16)</sup>라고 하여 적갈색의 질흙으로 만든 모든 그릇을 도기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도기 중에서 옹의 형태가 있는 것을 옹기라고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오늘날 옹기의 개념은 ‘陶器’의 총칭으로 혹은 ‘도기 중에서 황갈색 유약을 시유한 것’ 또는 ‘도기 중에서 독(옹)의 형태가 있는 것’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도기의 맥락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시유도기의 견지에서 파악되어지는 것은 근대 이후 시유하지 않은 도기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옹기는 주로 오깃물을 입혀 구운 오지그릇을<sup>17)</sup> 지칭하는 말로 바뀌게 된 것으로<sup>18)</sup> 생각해 볼 수 있다.

옹기의 용어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논문의 옹기를 시유도기의 개념으로 황갈색의 겻물 시유된 그릇을 지칭한다고 하면 고온 산화번조·환원번조 된 허벅 등 제주도에서 생산된 옹기는 무유기물이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옹기를 질그릇·오지그릇·반오지그릇 등의 도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적용한다면 환원번조 허벅은 질그릇으로, 고온 산화번조 허벅은 반오지그릇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제주도 옹기의 용어는 도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고온 산화번조무유옹기, 고온번조 무유도기 등 제주도 옹기의 개념 정의에

15) 나선화, 앞의 논문, 2000, p.11.

16) 윤용이, 「독(甕)의 개념과 성립 고찰」,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국제학술집』,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영남대학교 박물관, 2009, p.32.

17) 오지그릇이란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別に 말린 뒤 오깃물을 입혀구운 것으로 오지는 ‘烏瓷器’의 준말이다. 이렇게 표면에 유약처리를 하여 구운 것은 질그릇보다 방수성이 우수하다.

‘烏瓷器’라는 명칭은 이미 조선후기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이규경의 문집인 『五洲衍文長箋散稿』에 ‘烏瓷土’ 혹은 ‘烏瓷陶土’라는 말의 사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유종열 外·심우성 譯, 『조선공예개관』, 동문선, 1997, p.382.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 1995, p.318.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할 부분이며, 논문 전개에서 도기와 옹기 등 용어 혼용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서술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주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소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용어와 제주 현지에서 언급했던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문에서는 본래의 고유명칭이 거론 되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용되는 학술용어로 대체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물질문화의 측면에선 해당 명칭과 설명 등을 고유어·현지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용어의 통일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내용상 현지어·작업어로 보충해서 풀어줘야 하는 것은 각주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본론의 첫 장인 다음 장에서는 허벅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서 먼저 고찰하고자 하며, 허벅의 명칭과 기능 등을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허벅의 정의와 기원

### 1. 허벅의 정의

제주도에서는 상수도에 의한 식수 공급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물을 길어 나르는 용구로 허벅을 사용하였다. 허벅이라는 용어는 제주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용어이나, 지역에 따라 ‘허벤키’, ‘헛데기’로 부르기도 하였다.<sup>19)</sup> 다만 허벅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산에 종사했던 장인들과 사용하였던 현지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구술하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사용되어졌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허벅’이라는 명칭과 그 기능에 대해 석주명(石宙明)의 『濟州道方言集』에 기술된 허벅에 대한 설명이 참조된다.

“허벅. 濟州道 女子가 恒常 등에 지고 飲料水를 길는 容器인데 물동이 비슷하지만 우뚝하고 입이 작은 關係로 或時 밤에 餘興이나 있는 때는 이 허벅을 樂器로 使用한다. 左手로는 허벅의 입을 開閉하여 低大音을 내구 右手에는 막대 같은 것을 잡고 허벅 外面을 쳐서 高短音을 내게 해서 所謂 有名한 『허벅 장단』으로 소리들을 한다. 이 허벅장단은 決코 長鼓만 못 하지 않다.”<sup>20)</sup>

허벅의 기능에 대해 여성들이 항상 등에 지고 음료수를 길는 용구이며, 형태적 특징으로 우뚝하고 입이 작은 관계로 악기<sup>21)</sup>로도 사용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19) 제주도, 『제주어사전』, 1995, pp.588~589.

20) 석주명(石宙明), 『濟州道方言集』,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p.188.

책의 서문에 의하면, 석주명은 경성제국대학교부속생약연구소(京城帝國大學附屬生藥研究所) 제주 도시험장(濟州道試驗場)에서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개년 여를 제주도에서 근무하면서 틈틈이 수집한 제주도자료를 정리하여 『濟州道方言集』을 출간하였다. 제주어에 대한 석주명의 업적과 공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 된다. 姜榮峯, 「濟州語와 石宙明」, 『탐라문화』 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2.

21) 옹기는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옹기에는 산화철과 망간산화물 함량이 다른 세라믹에 비해 더 높아 원적외선 방출에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 원적외선은 적외선 중 파장이 긴 것을 말한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의 적색 영역보다 파장이 길어 열작용이 큰 전자파의 일종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에 잘 흡수되며 유기화합물 분자에 대한 공진(共振) 및 공명(共鳴) 작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조우석, 「옹기의 과학적 분석 및 미세기공 관찰」,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국제학술집』, 울산세계옹기



담수계(淡水契)에서 1954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풍속조(風俗條)에는, “汲水用허벅 卽水桶이니 土瓶과 如한者를(五六升入) 竹籠(대바구니)에 너코 질방을 거러메고 女子가 背負한다.”라고 되어 있다.<sup>22)</sup> 즉 허벅의 용도는 물을 길는데 사용하는 물통[水桶]이며, 형태는 5~6되의 물이 들어가는 토기병[土瓶]이고, 허벅의 운반 방법은 여성들이 허벅을 물구덕[竹籠]<sup>23)</sup>에 넣고 질빵으로 걸러 메고 등에 물을 길러 다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물을 길는 용구로서 허벅이 사용되어진 연원이 오래되었음은 과거의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의성 소녀들 띄약벌에

아래로 치마도 아니고 위로 적삼도 아닌 옷을 입고

십자로 근방 성 바깥문에서

물병 지고 물 길러 가며 재잘거리네.

물 길는 여자들은 큰 병[大瓶]을 대바구니[竹籠]에 넣어 지고 다닌다.<sup>24)</sup>

위의 자료는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이 정조 시해기도에 연루되어 1777년 9월부터 1803년 2월까지 무려 26년간을 제주도 제주목과 정의현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보고 느낀 제주의 풍속을 시로서 표현한 탐라잡영(耽羅雜詠)의 한 구절이다. 당시 정의현에 살고 있는 소녀들이 성밖으로 물을 길러 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거주 지역인 성내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내지는 우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을 길는 용구로서 대병(大瓶)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병(大瓶)은 담수계의 『증보탐라지』에 나오는 토병(土瓶)에 크기를 강조한 표현으로 읽혀지며, 현재 남아 있는 허벅과 동일한 형태로 보인다. 즉 담수계에서 언급한 허벅의 설명과 거의 유사하며, “물 길는 여자들은 큰 병[大瓶]을 대바구니[竹籠]에 넣어 지고 다닌다.”라는 표현에서 보이는 물 길는 풍속은 최근까지 허벅을 사용하던 모습과 같다고 하겠다.<도판 2> 그리고 운반 방법으로는 대바구니[竹籠]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영남대학교 박물관, 2009, p.143.

22) 淡水契 편, 『增補耽羅誌』, 風俗條, 1954, p.296.

23) 석주명은 『濟州道方言集』에서 “구덕을 한자로 구덕기라고 쓴 이도 있지만 분명히 그 음에 맞추어 만든 한자어다. 그러나 그 뜻으로나 그 음으로나 잘된 한자어다.”라 하여 한자어로 보고 있다.

24) 趙貞喆, 『靖獻瀛海處坎錄』, 卷4 耽羅雜詠

“旌城少女值朱炎 下不爲裳上不衫 十字街頭闌闌地 負瓶汲水語喃喃 <汲水女 以大瓶納竹籠 負而行>”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가 참고 된다.

지고이지는 않는다. 길이 험하여 엎어지고 쉬운 까닭에 여자들이 또한 이지 않는다. 무릇 물을 길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있으면 모두 등에 진다.<sup>25)</sup>

이원조(李源祚, 1792~1871)가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재임하는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긴 『탐라지초본(耽羅志草本)』에 기록된 제주도 풍속에 대한 일부분이다. 물병을 대바구니에 넣어 등에 지고 다녔던 이유를 길이 험하여 엎어지고 쉬운 까닭이라고 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변가로 갈수록 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다니는 길바닥에 돌이 많을 뿐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머리에 이기 보다는 등에 지고 운반하는 게 보다 안전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허벅을 비롯하여 각종 물건을 운반할 때 ‘지고이지는 않는다[負而不戴]’라는 제주도 풍속은 이와 같은 자연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sup>26)</sup>을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육지와는 다른 특이한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헌자료를 토대로 허벅은 물 길는 용구로 토병(土瓶)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며, 최근까지 사용된 옹기로 된 형태의 허벅이 18세기 후반에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기록에는 물 길는 용구를 대병(大瓶)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그 당시 제주도 주민들이 대병을 허벅이라고 불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물 길는 용구를 과거 이래로 허벅이라고 불렀는지 현재까지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허벅의 기원에서 후술하겠지만 물 길는 용구는 재질적으로 나무로 만든 것에서 옹기로 만든 것으로 변천해 가기 때문에, 현재 옹기로 제작된 형태를 허벅이라고 부르는 관점에 맞추어, 본 논문에서는 옹기로 만들어진 형태를 허벅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벅이 만들어진 기원과 변천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25) 李源祚, 『耽羅志草本』, 土俗條

“負而不戴 <路險易跌 故女亦不戴 凡有汲水運物之事 皆背負之>”

2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濟州牧 風俗條

“背負木桶而無頭戴”

## 2. 허벽의 기원

제주도는 한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내륙지방과는 바람·돌·물·흙 등 풍토가 다르다. 여러 차례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는 지질이 대부분 구멍이 많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양의 약 70%는 전형적인 화산회토(火山灰土)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토양의 특성 때문에 강수량은 많은 지역이지만 물이 지하로 빠져들어 해변에 가서 용출(湧出)하고 하천은 거의 건천(乾川)이다. 따라서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표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논농사는 거의 없으며 밭농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과거의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의 자료는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1702년 6월에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부임하여 경험한 것과 제주 관련 기록을 토대로 남긴 『남한박물』에 전하는 내용이다.

하천은 모두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소나기[急雨]가 와서 물이 넘칠 때가 아니면 모두 말라버린다.<sup>27)</sup>

제주의 하천은 토양의 특성상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니면 모두 말라 버린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제주도 고지도에 나타나는 하천의 수량은 「제주삼현도」에 24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35개, 「제주삼읍전도」에 16개 표기되어 있다. 세 지도에 표기된 현재 하천은 모두 25개인데, 제주시가 삼수천·삼릉천·조천·방천·병문천·독사천·한천·도근천·광령천·홀천·교래천·금성천·한림천·소왕천·자구내 등 15개며, 서귀포시는 효돈천·동홍천·여외천·도순천·약근천·회수천·중문천·천미천·송천·가시천·산내·서중천·종남천·신례천·창고천 등 15개이다.<sup>28)</sup> 이들 주요하천은 주로 남·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집중 호우가 아니면 건천이었기 때문에 물 공급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기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27) 李衡祥, 『南宦博物』, 誌地條

“川皆滲漏 如非急雨漲溢之時 舉皆嘆乾”

28) 金吾順,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29~33.

대저 한라산에는 계곡물이 매우 많으나 모두가 건천이어서 길가는 사람은 물 마시기가 어렵다.<sup>29)</sup>

위의 기사는 李益泰의 『知瀛錄』에 수록된 耽羅十景圖 중에서 天池淵을 설명하는 내용의 일부인데, 한라산에는 계곡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으나 모두가 건천이어서 길가는 행인이 물을 마시기가 곤란하였다는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건천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로 흘러 해안가에 이르러서야 깊은 못을 형성하였다. 제주목의 서쪽에 흐르던 도근천의 경우를 살펴 보면,

도근천(都近川)은 주 서쪽 20리에 있다. …… 땅속으로 숨어들어 7, 8리를 따라가면 돌 틈에서湧출하는데 드디어 깊은 못이 된다.<sup>30)</sup>

땅속으로 물이 숨어들어 7, 8리를 흘러서 천의 하류 지역 돌 틈에서 물이 솟아 올라 못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하천들이 이와 같이 땅속으로 흘러서 해안가에 이르러 샘물을 형성하였기<sup>31)</sup> 때문에, 마을 주변에는 물맛이 좋은 즉 염분이 없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이 거의 없었다.

도내에는 감천이 없다. 백성들은 10리 내에서 떠다 마신다. 이는 가까운 샘이고 멀면 혹은 4~50리에 이른다. 그리고 물맛은 짜서 참을 수 없는데 지방민은 익숙하였으므로 괴로움을 알지 못하나 외지인은 이를 마시면 곧 번번이 구토하고 재채기를 하며 병이 난다. 오직 주의 가락천은 성안 석혈에 있어서 혹은湧출하기도 하고 혹은 마르기도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는 김정이가 귀양살이 할 때 판 것이라 한다. 명월소에는 한 감천이 있는데 역시 심히 달지는 않다. 그리고 주의 동성 안에 산저천이 있는데 석조의 길이가 3칸이고 넓이가 1칸인데 천맥이 사면으로湧출하여 물맛이 극히 좋고 차갑다. 겨울에는

29) 李益泰, 『知瀛錄』 耽羅十景圖 - 天池淵

“大抵 漢拏山 溪澗甚多 皆乾川 行人以得飲爲難”

30) 李衡祥, 『南宦博物』, 勝條

“都近在州西二十里 …… 伏流七八里從石隙湧出遂爲深淵”

31) 任徵夏, 『西齋集』 1727년 8월 9일

“나무와 돌처럼 무심하여도,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 않네. 샘물은 모두 바닷가에 접해 있고, 바람이 불면 또 구름 같 정조라네.[無心是木石 不厭與吾群 有井俱連海 將風且驗雲]”

따뜻하여 탕과 같고 여름에는 냉하여 얼음 같다. 성안 3천여호가 모두 여기에서 떠다 마신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부족 할 때가 없으니 실로 이는 서울 외에서는 드문 명천이다. 토질(土疾)이 있어도 이 물을 마시면 번번히 자연 차도가 있다.<sup>32)</sup>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안에는 거의 감천이 없으며, 도내의 백성들은 10리 내에서 떠다 마시는데 이것을 가까운 샘이라 하였다. 먼 경우에는 4~50리의 거리를 가서 식수를 길어 날라야 하였으며, 샘물이 해변가에 있으므로 염분이 섞여 물맛이 짜서 외지인의 경우에는 병이 나기도 하였다. 특히 정의현 지역은 샘물이 있기는 하였으나 장기가 있어 사람이 마시기 어려워 예로부터 죄지은 신하들의 유배지가 되기도 하였다.<sup>33)</sup>

하천의 하류가 성 주변을 흐르는 경우에는 물줄기를 막거나 그곳에 수조를 설치하여 물의 공급을 받기도 하였다. 제주목의 경우에는 동성 안으로 흐르는 산지천에 석조를 만들어 성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요 물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물맛이 깨끗하고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산지천(山地泉)은 북수구 안의 동편에 있는데 물맛이 깨끗하고 달아 평평 넘쳐 도도히 흘러간다. 성 안에는 원래 우물물이 없어 공사가 길어다 쓰기를 모두 이 샘에서 얻는다.<sup>34)</sup>

제주목의 성안에는 김정이 판 것으로 전하는 판서정(判書井)이라는<sup>35)</sup> 샘물이 있

32) 李衡祥, 『南宦博物』, 誌地條

“<島內俱無甘泉 人民汲於十里之內 則爲近泉 遠或至四五十里 而味鹹不忍飲 土着習不知苦 外人飲之 則輒嘔噦生病 惟州之嘉樂泉 在城內石穴 或湧或渴 傳是金冲庵謫居時所鑿 明月所有一甘泉 亦不甚美 而州之東城內有曰山底泉者 石槽長三間廣一間 泉脉從四面湧出 味極甘冽 冬暖如湯 夏冷如水 城內三千餘戶 皆汲於此 而自古及今少無匱竭之時 實是京外所罕之名泉 有土疾者 飲輒自差>”

33) 趙貞喆, 『靖獻瀛海處坎錄』 卷4 耽羅雜詠

“은 섬이 겨우 4백리, 정의성은 가장 바다의 동쪽 끝. 샘물은 장기가 있어 사람이 마시기 어려워, 예부터 죄지은 신하 모두 이 고을에 보냈네.[一島纔爲四百里 旌城最在海東頭 水泉瘴癘人難服 從古罪臣皆是州]”

34) 李益泰, 『知瀛錄』 1695년 8월 10일

“山地泉 在北水口內東邊 水味清甘 盈滿滔滔城中 本無井水 公私汲用 皆取於此泉”

35) 李衡祥, 『南宦博物』, 誌古條

“판서정은 가락천 동북쪽에 있는데 돌 사이로 맥출하니 맑고 냉하여 물맛이 좋다. 김충암이 귀양살이 할 때 판 것이다.[判書井 在嘉樂泉東北 脉出石間 清冷味甘 冲菴謫居所鑿]”

기는 하나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내의 사람들이 모두 산지천의 샘물을 길어다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정현에는 자연으로 된 샘물이 감산에만 유일하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개 들건대, 대정(大靜)이라면 오직 감산(柑山)만이 자연으로 된 샘이 있어 예부터 유배객들이 반드시 여기에 산다고 한다. 당시 서종하(徐宗廈)·김요경(金堯鏡)이 역시 이곳에 살고 있었다.<sup>36)</sup>

임징하(任徵夏, 1687~1730)는 탕평책을 반대하면서 소론 제거를 주장하다가 평안도 순안으로 유배되었다가, 1727년 소론이 집권하면서 7월에 제주도 대정현 감산촌으로 위리안치되어 1728년까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는데, 대정에는 감산에만 샘이 있는 관계로 유배객들이 반드시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명월소에도 북성 안에 샘물이 있어 식수를 넉넉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동문 밖의 큰 시내가 샘물과 합쳐져서 더 풍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북성 안에 솟는 샘이 있어, 물이 돌구멍에서 솟아나는데 맑고 차며 도도히 흘러 돌로 쌓은 제방주위는 못처럼 흙범하게 차 있다. 비록 천만의 군이라도 길어다 쓸 수 있게 무궁하다. 동문 밖에도 또한 큰 시내가 있어 성을 안고 서쪽으로 흘러가다가 안의 샘물과 합쳐져, 북수구 바깥에서 많은 논·밭에 물을 대면서 북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대개 주성 동쪽으로 정의현에 이르기까지 물이 솟는 우물이 있는 하천은 없는데 그러나 이 성 안팎에는 길게 흐르는 물이 유독 있는 것이다.<sup>37)</sup>

이와 같이 건천의 하류 지역에서는 물이 솟아 샘물을 이루어 주민들에게 물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었으나, 마을 주변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샘이 없는 지역에

36) 任徵夏, 『西齋集』 1727년 8월 20일

“蓋聞大靜惟柑山 有自然泉 從古謫客 必居于此 時徐宗廈金堯鏡 亦居是”

37) 李益泰, 『知瀛錄』 耽羅十景圖 - 明月所

“北城內 有源泉 水湧巖穴 清冽滔滔 周築石堤盈滿如池 雖千萬軍汲用無窮 東門外 又有大川 抱城西流 會合內泉於北水口外 多灌稻田 北入于海 蓋州城以東至旌義縣 無生水井川 而此城內外獨有長流之水 西望十里長沙鋪 靈園橘園金 其間有三窟 而排胎窟深長幾三十里 所產石鍾乳取良飛揚島中 長養箭竹 每年刈取數千束 所謂自枯竹此也 門館倉穀軍器諸具與別防相甲乙焉”

서는 빗물을 받아 사용하거나<도판 3>, 빗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이증(李增, 1628~1686)의 『남사일록(南槎日錄)』에 전하는 기록이다.

다만 조천포(朝天浦) 안팎에는 우물과 샘이 없어 위아래 갯마을은 거의 2백호에 이르나 항상 봉천수(奉天水)를 저장했다가 마시니 이것이 흠이다.<sup>38)</sup>

위의 기록은 조천포가 항구로서는 좋으나,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는 것을 전하는 기사이다. 즉 포구의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샘과 우물이 없어서 비가 올 때 받아 놓은 봉천수(奉天水)를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봉천수는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청결하지 못했다. 그러한 사실이 조정철(趙貞喆)의 기록에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는 정의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봉천수를 사용하는 안타까움을 담아 “세차게 솟는 샘 솟아나와 창생을 구제해 주기를[飛泉湧出濟蒼生]”라고 기원하며, 그 싯구를 쓴 이유를 “정의에는 샘이 없어 웅덩이 못의 봉천수(奉天水)를 취하여 마시는데 물 곤충이 섞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39)</sup>

성산은 그 가운데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으나 우물이 없어 성밖 1리쯤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다.

또 평지의 여러 곳에 땅을 파서 흙을 쌓아 석회로 깔고 나무판자로 둘러 위에서 내리는 비를 받았다. 그러나 며칠이 못가 말라 버린다. 만약 저장한지 오래면 맛이 나빠 마실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주 사람들이 더욱 이 성에 들어가 지키는 것을 즐겨 하지 않았다.<sup>40)</sup>

성산 지역에 물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자 1589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경록

38) 李增, 『南槎日錄』

“但朝天浦內外 無井泉 上下浦村 將至二百戶 而每儲奉天水而飲 是可欠也”

39) 趙貞喆, 『靖獻瀛海處坎錄』 卷4 耽羅雜詠

“蹄涔行潦雜蟲并 從古旌城水不清 安得借來疎勒劍 飛泉湧出濟蒼生 <旌義無泉 惟以潢池奉天水資飲 而水蟲相雜故紀實>”

40) 金尙憲, 『南槎錄』 1601년 10월 13일

“又於平地數處 鑿地築土 鋪以石灰 周以板木 上承天雨 然不過數日枯渴 若貯之既久 味惡不可飲 以此州人尤不樂入守此城”

(李慶祿)은 봉천수를 사용하기 위해 크게 땅을 파서 비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으나, 받은 빗물이 얼마 가지 않아 말라 버릴 뿐만 아니라, 저장이 오래된다고 해도 물맛이 없어 마실 수가 없어서, 주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내용은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 주민들은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물통을 지고 물이 나는 해안가 샘물이나 봉천수를 오고갔다. 물을 길어 나르는데 사용되었던 용구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물을 길는 용구의 재질과 제작방법 그리고 사용하였던 당시의 풍속 등이 각종 문헌기록을 통해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최부(崔溥)가 1487년에 쓴 탐라시(耽羅詩)에 물 길는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가죽감티, 초신, 갈증이 옷  
 자갈밭과 초가지붕 엉성한 사립문  
 물병진 촌 아낙네 물 길러 샘으로 가고  
 피리 불며 뚝에 있던 아이 말 먹이고 돌아오네.<sup>41)</sup>

위의 기록은 ‘물병진 촌 아낙네 물 길러 샘으로 가고’에서 보이듯이 물을 담은 용구를 병(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옹기로 된 허벅의 사용이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인용되어 왔다. 병(瓶)이라는 표기로 보아서는 재질이 옹기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최부가 당시 제주에서 사용하였던 물 길는 용구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육지의 물병으로 간주하여 병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 인용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해서 이해조(李海朝, 1660~1711)가 1706년에 제주(濟州) 어사(御史)로 부임하여 현장에서 체험한 제주풍속을 시로 남긴 기록까지 물 길는 용구에 대해서 목통(木桶)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부 시에 표현된 병(瓶)을 옹기로 된 허벅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A1 등에 목통(木桶)을 짊어지고 다니고 머리에 이는 자가 없다.<sup>42)</sup>

41) 최부, 「耽羅詩」(李增, 『南槎日錄』에 재수록)

“革帶芒鞋葛織衣 石田茅屋矮柴扉 負瓶村婦汲泉去 橫簋堤兒牧馬歸”

4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濟州牧 風俗條

A2 통나무를 쥘어 통을 만들고 등에 지어 물을 길어온다. 마을 거리에서 땀 나무와 물을 등에 지는 사람은 모두 부인이다.<sup>43)</sup>

A3 한라산과 제주 고을 지역에서는 샘과 우물이 매우 적어서, 마을 주민들이 혹 5리나 되는 지역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이를 가까이 있는 물이라고 한다. 혹은 하루에도 한두 번 정도 길어오는데, 짠 샘이 많다. 물을 길어오는데 반드시 목통(木桶)으로 등에 지고 가는 것은 많이 길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무릇 지는 물건은 대부분 여자들이 등에 지고 간다.<sup>44)</sup>

A4 과원의 과실은 금빛 나는 굴을 최고로 여기고,  
소반 위의 반찬은 대부분 옥돔을 쓰네.  
목통(木桶)을 등에 진 여아는 샘물을 길어오는데,  
마을 담과 문은 집집마다 돌을 쌓아 만들었네.<sup>45)</sup>

A5 섬 안에 물을 길어오는 여인들은 머리 위에 이지 않고 등에 진다. 벌통[蜂桶] 모양과 같은 긴 통[長桶]을 만들어 물을 길어 등에 지고 간다. 그것을 보면 매우 괴상하다. 무릇 물을 길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등에 지고 가는데, 마치 남자들이 땀나무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sup>46)</sup>

A6 등에 목통(木桶)을 걸머지고 다니며 머리에 이는 자가 없다.<sup>47)</sup>

“背負木桶 而無頭戴者”

43) 林悌, 『南溟小乘』

“鑿全木爲桶 負而汲水 閭巷之間 負薪水者 皆婦人也”

44) 金淨, 『冲庵先生集』 卷4 「濟州風土錄」

“漢挈及州邑地 泉井絕少 村民或汲水於五里 則謂之近水 或有終日一汲二汲 而多鹹泉 汲必以木桶負行 凡卜物多女負行 取多汲也

45) 金尙憲, 『南槎錄』

“園果最珍金色橘 盤饌多用玉頭魚 木桶汲泉女兒負 家家築石作門閭”

46) 李健, 『葵窓遺稿』 卷11 「濟州風土記」

“島中女人之汲水者 不戴於頭而負於背 作一長桶 如蜂桶之狀 汲水負行 見之甚怪 不惟汲水 凡可以戴行之物 皆負而行 如男子負柴”

47) 李元鎮, 『耽羅志』, 風俗條

“背負木桶 而無頭戴者”



A7 지방 풍속에 어깨에 지고 다니지 머리에 이지는 않는다. 물을 떠오는 것도 역시 목통(木桶)을 지고 다니지 머리에 이고 다니는 자는 없다.<sup>48)</sup>

A8 통을 지는 것은 백성의 풍속이나,  
발을 밟는 것은 흙 성질 때문에 그렇다네.  
촌가에서는 토굴을 쌓으나 온돌은 없고, 띠를 덮으나 엮지 않는다. 남녀가 모두 목통(木桶)을 등에 지고 다니나, 머리에 이지 않는다.<sup>49)</sup>

A1~A8은 물을 길어 올릴 때 사용하였던 용구에 대한 기록을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모든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물을 길는 용구로 목통(木桶)을 언급하고 있다. 목통(木桶)<도판 4>의 제작 방법과 관련하여 A2에서는 ‘통나무를 뚫어 통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A6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형태를 표현하여 ‘벌통[蜂桶] 모양과 같은 긴 통[長桶]을 만들어’라고 하고 있다. 당시 목통은 벌통 모양과 같이 긴 통나무의 바닥면은 남기고 안쪽만 파내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통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머리에 이지 않고 등에 지어 운반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앞서 인용한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초본(耽羅志草本)』에 ‘길이 험하여 엮어지기 쉬운 까닭에 여자들이 또한 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제주도는 돌이 많고 비탈길을 오르락내리락 하여야 하고 10리 혹은 4~50리라는 먼 길을 운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생겨난 풍속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물을 길는 노동의 주체로 여아와 부녀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주로 여성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A8의 기록을 통해 18세기 초반까지도 물 길는 용구로 목통(木桶)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다음의 기록을 통해 물 길는 용구가 18세기에 중후반에 이르러 질그릇으로 대체됨을 볼 수 있다.

48) 李衡祥, 『南宦博物』, 誌俗條

“土俗 負兩不戴 汲水者 亦背木桶 而無頭戴者

49) 李海朝, 『鳴巖集』 卷3, 「記島中山川風俗」

“黃柑常抵鵲 朱橘不論錢 負桶民風是 踏田土性然 <村家築土堀 無房埃 覆茅而不編結 男女皆負木桶而不戴>”

서북쪽에 소로가 있는데 서쪽으로 5리 정도에 있는 가미수(茄味藪) 웅점(甕店)으로부터 제주계의 청수리까지 20리이다.<sup>50)</sup>

178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제주읍지(濟州邑誌)』 대정현(大靜縣) 도로조(道路條)의 기록으로, 대정현 서북쪽 있는 소로로 서쪽 5리 정도 가면 가미수(茄味藪) 웅점(甕店)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 웅점은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웅기를 판매하던 상점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대정현 지역에서 웅기를 판매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웅점의 위치와 관련하여 제주삼현도에는 대정현성에서 서쪽으로 5리경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곳은 지금의 신평리 일대이다. 또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기록되어 있는 신평리(新坪里) 지역의 가미야(加味野)<sup>51)</sup>라는 명칭은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꽃자왈인 가미수(茄味藪)와 연관되어 생긴 명칭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가미수 웅점은 신평리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미수 웅점에서 판매하던 웅기들은 제주가 아닌 타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 곳은 거주민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항구인 하모리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질그릇을 수입하여 판매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역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지역은 현존하는 제주도의 가마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한 질그릇을 판매하던 웅점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앞서 인용하였던 18세기 후반 기록인 조정철의 “물 길는 여자들은 큰 병[大瓶]을 대바구니[竹筐]에 넣어 지고 다닌다.”라는 기록에 나타나는 웅기로 된 허벅이 1780년을 전후한 시기에 신평리 일대에서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주도에서는 18세기 후반 이전에 이미 질그릇을 만들 수 있는 가마의 존재여부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제주도 가마의 유래와 입지, 허벅이 생산되었던 제주도 가마의 구조와 허벅의 생산을 고찰하고자 한다.

50) 『濟州邑誌』, 大靜縣誌 道路條

“西北 小路 由西五里程茄味藪甕店 至濟州界清水里二十里”

51)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전라남도편 대정군 우면 야평명(野坪名)조.

### Ⅲ. 제주도 가마와 허벅 생산

이 장에서는 제주도 가마와 허벅의 생산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주도에서는 1960년대까지 가마에서 도기들을 제작하였으며, 현재에도 가마터가 남아 있다. 이러한 가마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허벅을 생산하게 되었는지, 제주도 가마의 유래와 입지조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주도 가마의 종류와 허벅생산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생산된 허벅의 수요와 유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지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주도 가마의 유래와 입지

##### 1) 가마의 유래

제주도에서 언제부터 자체적으로 가마를 짓고 도기를 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각종 토기와 도기들이 현지에서 발굴되고 있는 실정이다.<sup>52)</sup> 이를 통해 볼 때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 내는 토기 내지는 도기의 전통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출토유물이 제주도 현지에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향후 가마터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출토물이 발굴되는 지역이 웅기가마터가 분포하는 지역과 일치하며 점토가 분포하는 지역과도 거의 일치함으로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웅기의 생산은 그 지역 내에서의 수요가 있을 때, 외지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마와 기술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비용적으로 저렴할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후기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지역에서의 도자기 수요는 전라도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음을 다음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52) 이들 출토물을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유적을 대표하는 고산리출토 토기에서부터 청동기시대인 상모리 토기, 철기시대인 삼양동 토기와 괘지리식 토기,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종달리 토기, 용담동 제사유적 토기, 고내리식 토기까지 시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 『濟州의 歷史와 文化』, 2001.

탐라(耽羅)는 지역이 좁고 백성들은 가난하였다. 옛적에는 전라도 장사꾼으로 자기(瓷器)와 멍쌀[稻米]을 팔러 오는 자가 때때로 왔으나 극히 드물었다.<sup>53)</sup>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익재집(益齋集)』에 수록된 “청자(靑瓷)와 백미(白米)를 가득 싣고서, 북풍에 오는 배만 기다리고 있네[滿載靑瓷兼白米 北風船子望來時]”라는 시구의 주석으로, 전라도의 장사꾼에 의해 청자(靑瓷)가 제주도의 일부 수요에 의해 가끔씩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16세기 초반에도 제주도에서는 사기와 도기가 생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沙器)·도기(陶器)·유철(鎭鐵)은 모두 생산되지 않는다.<sup>54)</sup>

위의 기사는 김정(金淨, 1486~1521)이 1520년 8월 제주도에 유배되어 1521년 10월 17일 사사되기 전까지 제주도에 직접 경험한 풍속을 기록한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수록된 내용이다. 이 글에 의하면 1520년 이전까지 제주 지역에서는 사기와 도기가 생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면포(綿布)·도와(陶瓦)·도기(陶器)·동철(銅鐵) 및 소금은 없다.<sup>55)</sup>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1702년 6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재직기간 중에 제주 지역의 자연, 역사, 산물, 풍물 등을 기록하여 남긴 『남한박물(南宦博物)』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제주에서는 도와(陶瓦)와 도기(陶器)가 생산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18세기 초까지 제주도에서는 도와(陶瓦)와 도기(陶器)를 생산하던 가마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운영하던 가마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 기와를 생산하던 가마에 대한 기록은 조선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

53) 李齊賢, 『益齋集』 卷4

“耽羅地狹民貧 往時全羅之賈販瓷器稻米者 時至而稀矣”

54) 金淨, 『冲庵先生集』 卷4, 「濟州風土錄」

“沙器·陶器·鎭鐵 皆不產”

55) 李衡祥, 『南宦博物』, 誌産條

“無綿布·陶瓦·陶器·銅鐵及塩”

勝覽』에 의하면 15세기 중반에 관덕정(觀德亭)을 건립할 때 제주도 지역에서 기와를 굽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석조(辛碩祖)의 기문에, …… 지금 안무사 신후(辛侯)가 정사를 시작한 다음 해인 무진년(1448) 가을에, 일이 닦아지고 풍년이 들어 노는 유수(遊手)들을 불러서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굽고, 돌을 쌓아 대(臺)를 만들고 새 정자를 그 위에 일으키고, 이름을 관덕(觀德)이라 하였다. <하락><sup>56)</sup>

위의 기사는 관덕정의 건립과정을 담고 있는 신석조(辛碩祖)가 쓴 기문의 일부로, 당시의 안무사 신숙청(辛淑晴)이 무진년(1448) 가을에 유수(遊手)들을 불러서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굽고 돌을 쌓아 대를 만들어 관덕정을 건립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에서 기와를 생산하는 가마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상시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관덕정 공사에 필요한 기와 공급을 위해 제주 관아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 가마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기와 수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15세기 초반에 제주도에 기와집이 거의 없었던 상황을 전하는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사람의 주거(住居)는 모두 띠로 엮어 매지 않고, 지붕에 나란히 펴서 쌓고, 긴 나무로 가로 맺어서 눌러 놓는다. 기와집은 매우 드물고, 양현(兩縣) 관사도 역시 띠로 덮고 있다.<sup>57)</sup>

김정이 제주도 가옥의 지붕 형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당시 제주도 지역에는 일반 가옥으로 기와집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사조차도 기와지붕이 아닌 띠로 덮은 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반까지도 제주도에 전체 가옥에서 기와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1904년에 작성

5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濟州牧 樓亭 觀德亭條

“辛碩祖記 …… 今按撫使辛侯 莅政之明年戊辰秋 事修歲和 酒募遊手 鳩材陶瓦 築石爲臺 以起新亭于其上 名之曰觀德”

57) 金淨, 『冲庵先生集』 卷4 「濟州風土錄」

“人居 皆茅茨不編 鋪積屋上 而以長木橫結壓之 瓦屋絶少 如兩縣官舍 亦茅蓋也”

된 『삼군호구가간존안책(三郡戶口家間存案冊)』에는 제주목·대정군·정의군의 마을별로 호수·남녀별 인구·가택의 종류와 칸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주도의 기와집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삽표 1>와 같다.

<삽표 1> 『三郡戶口家間存案冊』(1904년)에 수록된 제주도 와가 칸수

단위 : 칸수(間數)

군명(郡名)	면명(面名)	마을명	와가	비고
제주목(濟州牧)	신좌면(新左面)	북촌(北村)	13	
		함덕(咸德)	15	
		조천(朝天)	61	
		신촌(新村)	10	
	계		99	
	중면(中面)	공북(拱北)	6	
		일도(一徙)	41	
		이도(二徙)	8	
		오등(梧登)	3	
		삼도(三徙)	57	
		외도(外都)	2	
	계		117	
	구우면(舊右面)	수원(洙源)	3	
		금악(今岳)	9	
		청수(淸水)	6	
	계		18	
정의군(旌義郡)	좌면(左面)	온평(溫平)	3	
	소계		3	
	총계		<b>237</b>	

『삼군호구가간존안책(三郡戶口家間存案冊)』에 기록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04년 제주도 가옥은 초가 51,118칸, 기와 237칸으로 총 51,355칸 규모의 가옥이 있었다.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제주도 가옥에서 기와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0.46%로 일반적인 가옥 형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와집의 분포는 대정현의 경우는 하나도 없고, 정의군에는 3칸, 나머지는 제주목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는 기와를 필요로 하는 가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와 가마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임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생산된 기와를 들여다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암사(庵舍)는 아홉 칸인데 모두 널판으로 기와와 흙을 대신 하였다. 중들에게 물었더니 “산 속의 흙맥에는 점액질이 없고 더구나 모래와 돌이 많아 벽을 바르는 데에는 마땅하지 않고 기와는 반드시 육지에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힘을 써도 이루기 어렵다고 하였다. 중간에 여러 번 지었다가 쓰러지곤 하여 계사년간에 어떤 강진에 살고 있는 중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방수하러 들어왔다가 방수가 끝나자 바로 재물을 사들여 중수하였다.”고 하였다.<sup>58)</sup>

김상헌(金尙憲)이 존자암을 방문했을 때 암사(庵舍)에 대해 그곳에 거주하는 중[僧]과 대화한 기록이다. 존자암에 있는 암사가 모두 널판으로 되어 있는 연유는 산 속에 점액질 흙이 없어 벽을 바를 수 없고, 기와는 반드시 육지에서 사와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계사년(1593)간에 강진에 살고 있는 중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방수하러 왔다가 재물을 사들여 널판으로 중수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관덕정에서 사용된 기와가 제주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굳이 기와를 육지에서 사와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제주 목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기와집에서 필요로 하는 기와의 수요가 외지에서 수입해 오는 것보다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나을 경우에는 자체적인 생산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와집으로 된 관아의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거나 중수하는 경우에 관(官)에서 와공을 외지에서 불러와 직접 기와 굽는 일을 한 다음의 기록이 참조된다.

이 땅에는 본래 와장과 목공으로 솜씨 좋은 사람이 없어서, 모두 바다 건너 가까운 읍에서 불러왔다. 미리 먼저 점토가 있는 곳인 광양(廣壤)에서 기와를 구우며 그 불러온 고용인과 함께 바로 일을 하였다.<sup>59)</sup>

이 기록은 1649년에 홍화각을 중창할 때 그 사적을 쓴 김진용(金晉鎔)의 「홍화각중수기(弘化閣重修記)」로, 홍화각 중수에 필요한 기와 생산과 관련하여 현지에

58) 金尙憲, 『南槎錄』 1601년 9월 25일

“庵舍九間 蓋與壁 皆以板代瓦土 問之僧輩 山中土脈 無粘液 且多沙石 不宜塗墍 瓦則必貿於陸地 故力所難致也 中間屢經興廢 癸巳年間 有康津居僧代父防 罷仍化財重修云”

59) 李益泰, 『知瀛錄』, 「弘化閣重修記」

“此地本無瓦匠與木工之妙手 皆招於越海近邑而致之 預先陶瓦於廣壤土霑之地 而與其賃力之直焉”

서 기와를 제작할 수 있는 솜씨 좋은 장인이 없어 바다 건너 가까운 읍에서 불러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제주지역에 기와 가마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현지에도 솜씨 좋은 와공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기와를 굽는 재료로서 점토가 언급되고 있으며, 기와를 굽는 장소는 점토가 있는 광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재료 수급이 용이한 지역을 택하여 가마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기와의 재료는 현지에서 수급되었으나 기와를 굽는 와공들은 육지에서 불러왔음을 알 수 있었는데, 17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다음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와공도 현지에서 수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사를 짓기 시작하여 김진용에게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재목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고 물으면 산에서 벌목을 해서 바다에 띄워서 이것을 밀천으로 하겠다고 했고, 기와는 어디서 얻을 것이냐고 물으면 질그릇 흙[陶土]을 잘 구워서 이것을 쓰겠다고 했고, 역부(役夫)는 어떻게 쓸 것이냐고 물으면 유수(游手)를 고용할 것이라고 했고, 미장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고 물으면 흙손을 잡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sup>60)</sup>

조경(趙綱, 1586~1669)이 1660년(현종 1) 5월에 제주 장수당 건립에 대한 경위를 기록한 「제주장수당기(濟州臧修堂記)」이다. 장수당 건립을 주관하였던 김진용과의 문답에 ‘기와는 어디서 얻을 것이냐고 물으면 도토(陶土)를 잘 구워서 이것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지, 기와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보유한 와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수당을 건립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앞서 다녀간 와공들로부터 기술력을 습득한 현지 와공들이 기와 생산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를 구울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함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더욱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1694년> 27일 무학이 연무정에서 갑시재를 하기로 정했다. 연무정은 남문 밖 5리 광양에 있다. 몇 년 전부터 너무 헐었지만, 촌에 있는 기와가 고쳐 지

60) 趙綱, 『龍洲先生遺稿』, 「濟州臧修堂記」

“於是經始學舍 使晉銘主其事 問材焉取則伐山浮海是資 問瓦焉取則陶土不窳是庸 問役夫焉用則游手是雇 問塗塈焉取則手鋤者”



을 만큼은 못 되어서 지금까지 삭아서 상한대로 있었다. 마침내 여러 장사들과 모의를 하여, 도근천의 폐사된 절의 재료를 실어다가 윤번군을 보충하여 목수가 하는 일을 돕게 하고, 명월면의 옛 가마터에서 기와를 굽는데 그 근처의 각 반 하인(下人)들에게 번을 면제하여 일을 시켰다.<sup>61)</sup>

위의 기사는 이익태(李益泰, 1633~1704)가 1694년 5월에서 1696년 2월까지 제주 목사로 재직한 기간의 행적과 사적에 대한 내용을 일지 식으로 남긴 지영록(知瀛錄)에 수록되어 있는 기사이다. 연무정의 기와가 너무 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남아 있는 기와가 고쳐 지을 만큼 수량이 되질 않아 중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도근천의 폐사된 절의 재료를 실어다가 목재를 보충하고, 기와는 명월면의 옛 가마터에서 굽는데 그 근처의 하인(下人)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지역에서 기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완비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앞의 여러 기록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와를 구울 수 있는 재료는 제주지역에 있었지만 이를 구울 수 있는 와공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불러와서 제작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기와를 굽는 과정 속에서 외부에서 온 와공들로부터 기와를 구울 수 있는 기술을 전수받아 17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자체적으로 기와를 생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형상의 기록에서 도기는 생산되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18세기 초반까지는 도기를 만들 수 있는 가마가 일반적으로 분포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질그릇을 구울 수 있는 가마가 만들어지고 장인들의 기술이 전수되어,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질그릇을 구울 수 있는 가마와 그릇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 이에 대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기와가마에서 질그릇이 함께 구워진 사례가 발굴되어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기와 번조방법과 질그릇 번조방법이 같고 가마의 구조도 동일하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질그릇을 ‘지새그릇’이라 하는데 기와의 고어가 ‘지새’였고 제작방법도 그것과 유사하여 기와가마에서 지새그릇 등 질그릇을 번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해준다.

61) 李益泰, 『知瀛錄』 1694년 9월 27일

“二十七日 武學 定甲試才于演武亭 亭在南門外五里廣壤 數年前 毀積 村瓦未及改建 將至腐傷 遂謀諸壯士 輸入都近川廢寺材 添補輪番軍 助役木手 燔瓦於明月面舊窯所 以其近處各班下人 除番立役”

## 2) 가마의 입지

제주도 지역에 현재 남아 있는 가마터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노랑굴 43개처, 검은굴 5개처, 기왓굴터 10개가 알려져 있다.<표 1> 현재 행정구역별 지역 분포를 보면 제주시에 13개처, 서귀포시에 30개처가 있다. 제주도 가마 분포도<삽도 1><sup>62)</sup>에서 보이듯이 서귀포시 대정읍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으며, 제주시의 한경면에 5개처가 있는데 대정읍에 인접한 지역에 있다. 향후에 제주 지역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하면 더 많은 가마터가 발굴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지만, 제주도 가마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정읍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삽도 1> 제주도 가마 분포도

가마가 입지하는 조건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가마 번조시에 필요한 땀감의 공급이 용이하고, 웅기를 만들 재료인 점토의 공급이 용이

62) 가마 분포도는 다음의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강창언·이경효, 『제주전통도예』, 가시아히, 2000.

국립제주박물관, 『濟州의 歷史와 文化』, 2001.

국립민속박물관, 『허벅과 제주질그릇』, 2007.

하며, 원료 공급이나 만든 옹기를 판매하기 수월한 육상 및 해상교통의 요지인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소가 가장 적합한 곳이었지만, 자기·옹기는 물론 모든 가마의 입지 조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땔감과 점토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원료가 다 고갈되면 또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주하는 생활을 반복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후기 분원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관청수공업의 하나인 분원의 운영은 연료공급지인 시장(柴場)을 따라서 이동되었다. 경기 일원에서 위치한 분원은 시장 내에서 수목을 따라서 매 10년마다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대개 광주 6면과 양근 1면에 분원의 시장이 있었다.<sup>63)</sup> 이와 같이 분원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땔감을 필요로 하였고, 연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목이 우거진 지역으로 분원을 옮겨 설치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기록된 다음의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조익이 사옹원의 말로써 아뢰기를, “분원의 설치는 앞서서 수목이 무성한 곳을 택한 곳으로부터 옮겨 오고 가는데, 지금 설치된 곳은 여러 해 나무를 사용하여 땔감이 이미 다하여 부득이 수목이 무성한 다른 곳으로 장소를 택하여 옮겨 설치해야 능히 번조할 수 있습니다.”<sup>64)</sup>

위의 기사는 사옹원의 계사로 분원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원이 여러 해 동안 땔감을 사용하여 수목이 무성한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분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전하고 있다.

또한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 도강록을 보면, 우리나라 가마는 와요이며 그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가마온도를 높이기 위한 화력이 좋은 소나무의 공급과 여기서 비롯된 폐해 및 땔감을 찾아서 이주하였던 도공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63) 『日省錄』 정조 20년(1796) 12월 25일

“司饗院 啓言 分院之每十年輪回 移建於廣州六面楊根一面 自是舊例 今此楊根燔所之因循不移已近五十年柴路漸遠釜基日陷燔役有掣礙之端匠卒無支保之勢民訴續至群情可見趁今

64) 『承政院日記』 인조 3년(1625) 8월 3일(기묘)

“趙翼 以司饗院言啓曰 分院之設 自前擇其樹木茂盛之地 移來移去 而今則所設處 累年入樹取用 燔柴已盡 不得已他樹木茂盛處 擇地移設 乃能燔造矣”

우리나라 가마는 일직선으로 뉘어 놓은 아궁이여서 가마라고 할 수 없다. 애초에 가마를 만드는 벽돌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받쳐서 흙으로 축조하고 큰 소나무를 연료로 삼아 가마를 굳히는데, 그 비용이 이미 많다. 가마가 길기만 하고 높지 않으므로, 불이 위로 오르지 못한다. 불이 위로 오르지 못하므로 불기운이 힘이 없으며, 불기운이 힘이 없으므로 반드시 소나무를 때어 불꽃을 세게 한다. 소나무를 때어 불꽃을 세게 하므로 불길이 고르지 못하고, 불길이 고르지 못하므로 불에 가까이 놓인 기와는 이지러지기가 일쑤이며, 먼데 놓인 것은 잘 구워지지 않는다. 자기를 굽거나 용기를 굽거나를 무론하고 모든 요업(窯業)의 제도가 다 이 모양이며, 그 소나무를 때는 법 역시 한가지니, 송진의 불광이 다른 나무보다 훨씬 세다. 그러나 소나무는 한번 베면 새움이 돌아나지 않는 나무이므로, 한번 용기장이를 잘못 만나면 사방의 산이 모두 벌거숭이가 된다. 백년을 두고 기른 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 버리고, 다시 새처럼 사방으로 소나무를 찾아서 흠어져 가버린다. 이것은 오로지 기와 굽는 방법 한 가지가 잘못되어서, 나라의 좋은 재목이 날로 줄어들고 질 그릇점 역시 날로 곤궁해지는 것이다. …… 지금 우리나라의 용기장이는 먼저 그 제도를 연구하지 않고, 다만 큰 술발이 없으면 가마를 놓을 수 없다고만 한다. 이제 요업(窯業)은 금할 수 없는 일이고, 소나무 역시 한이 있는 물건인즉, 먼저 가마의 제도를 고치는 것만 같지 못하니, 그렇게 되면 양편이 다 이로울 것이다.<sup>65)</sup>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의 가마는 일직선의 구조를 갖는 와요로, 가마가 길기만 하고 높지 않으므로, 불이 위로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꽃을 세게 하기 위하여 화력이 좋은 소나무를 주로 사용하였다. 소나무는 한번 베어 사용하면 다시 수목하여 키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가마가 한번 들어서면 사방의 산이 벌거숭이가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가마는 구조상 많은 양의 땀감을 필요로

65) 朴趾源, 『熱河日記』, 「渡江錄」 1780(정조 4) 7월 2일(무인)조

“我窯 直一臥竈 非窯也 初無造窯之輒故 支木而泥築 薪以大松 燒堅其窯 其燒堅之費 先已多矣 窯長而不能高故 火不炎上 火不能炎上故 火氣無力 火氣無力故 必燕松取猛 燕松取猛故 火候不齊 火候不齊故 瓦之斤火者 常患苦窳 遠火者 又恨不熟 無論燔瓷燒瓮 凡爲陶之家 窯皆如此 其燕松之法 又同松膏烈勝他薪也 松一剪則非再藥之樹 而一遇陶戶 四山童濯 百年養之 一朝盡之 乃復鳥散 逐松而去 此緣一窯失法 而國中之良材 日盡 陶戶亦日困矣 …… 今我東陶戶 不先究窯制 而自非大松林不得設窯陶非可禁之事 而松是有限之物則 莫如先改窯制 以兩利之”

하였기 때문에 가마를 설치할 입지조건에 있어 가장 우선시하여 고려되었다.

제주 지역에서도 가마의 입지조건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었던 것은 양질의 흙과 풍부한 연료였다. 그럼 먼저 가마의 입지조건의 주요 요인인 땔감이 형성된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도 옹기 가마는 번조시 피움불·식은불·중불·큰불·갯불질 단계에서 땔감이 필요 하였는데, 가장 많이 소요되는 큰불은 6~7시간 정도를 소성했는데 연료량은 120~150뭇이 사용되었다. 이 때 사용하였던 땔감은 주로 소나무·잣나무·가시나무·선비(잡목) 등이었으며, 한번 번조시 하루 12뭇 정도해서 10일에서 12일을 해야만 한굴치를 할 수 있었다. 번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많은 양의 땔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여름에는 땔감을 마련하는 장소에서 노숙을 하면서 작업을 하였다.

제주도에서 땔감의 주요 공급지는 꽃자왈 지대였는데, 제주 중산간 일대 자연림과 가시덩굴이 혼합하여 식생하는 큰 수풀지대이다. 꽃자왈은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분출되어 요철지형을 이루며 쌓여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량은 물론 보온·보습 효과를 일으켜 열대 식물이 북쪽 한계지점에 자라는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식물이 남쪽 한계지점에 자라는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다.<sup>66)</sup>

꽃자왈 지대의 지역 분포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해서 『탐라지(耽羅志)』와 『남환박물(南宦博物)』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의 지조에 꽃자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큰 숲[藪]은 방언으로 큰 숲을 꽃[花]이라고 한다. 산허리 이하에 곳곳에 미치어 벌판과 골짜기가 숲이 되어 덮이었으니 큰 것은 5, 60리이고 작은 것도 적어도 10여리 이상이다. 교목이 하늘 높이 솟아서 햇빛을 가리우고 바람을 막는다. 넝쿨과 등이 감기고 칙이 얹히어 펼쳐니 온 섬 형승이 대저 이와 같다.<sup>67)</sup>

이 기록에 의하면 꽃자왈은 당시 제주말로는 꽃[花]이라고 불렀고 중산간지대에

66) 사단법인 꽃자왈 사람들, 『창립기념행사 자료집』, 2005, pp.24~25.

67) 李衡祥, 『南宦博物』, 誌地條

“藪 則方言稱藪曰花 山腰以下及處處 坪谷自成林樾 大者五六十里 少不下十餘里 喬木 參天翳日障風 蔓藤纏葛縈紆鋪羅 一島形勝 大抵如此”

형성되어 있으며, 규모가 크게는 50~60리 작게는 10여리 이상이며, 교목과 잡목으로 우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 풍속조(風俗條)에는 제주말은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 사례로 ‘숲을 고지라고 한다[以藪爲高之]’라는 용례를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제주에서는 꽃자왈을 ‘꽃’, ‘고지’라고 불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환박물』에는 꽃자왈 중 큰 곳을 다음과 같이 10곳을 전하고 있다.

큰 숲을 말하면 묘평(猫坪: 주 동남쪽 23리에 있다) 김녕(金寧: 주 동남쪽 50리에 있고 둘레가 50리나 된다) 점목(黏木: 주 서남쪽 60리에 있다) 개사(盖沙: 주 서쪽 70리에 있는데 둘레가 50리나 된다.) 암수(暗藪: 주 동쪽 95리에 있는데 둘레가 30여리나 된다) 목교(木橋: 정의 동쪽 17리에 있다) 대수(大藪: 정의 남쪽 4리에 있다) 소근(所近: 대정 서쪽 26리에 있다) 판교(板橋: 대정 서쪽 5리에 있다) 나수(螺藪: 대정 동쪽 10리에 있다)<sup>68)</sup>

위 기록의 꽃자왈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가 쪽으로 중산간지대에 형성된 큰 줄기들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보면 제주시 지역에 5개, 서귀포시 지역에 5개가 있다. 이들 꽃자왈 지역은 제주도 고지도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도판 5-①②>,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도판 6>,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도판 7-①②③④> 등에 13개가 수록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 9개, 서귀포시에 4개가 있다.

제주시는 화천동 일대 저목수(楮木藪)가 표기되어 있고 동부지역에 8개로 구좌읍과 조천읍에 집중되어 있다. 구좌읍 김녕리 일대 김녕수(金寧藪), 구좌읍 상도리 일대 마마수(馬藪), 구좌읍 한동리 일대 묘수(猫藪), 조천읍 선흘리 일대 우장수(芋長藪), 조천읍 함덕리 일대 우수(芋藪)가 표시되어 있다. 애월읍 어음리 일대에는 퇴수(磊藪), 한림읍 월령리 일대 현로수(玄路藪), 한경면 일대 부수(腐藪)가 보인다. 서귀포시 지역에는 대정읍 동일리 일대 세퇴수(細磊藪)와 서림수(西林藪), 안덕면 동·서광리 일대 광수(廣藪), 안덕면 화순리 일대 나수(螺藪)가 표시되어 있다.<sup>69)</sup>

68) 李衡祥, 『南宦博物』, 誌地條

“藪曰 猫坪也在州東南二十三里 金寧也在州東五十里周五十里 黏木也在州西南六十里 盖沙也在州西七十里周五十里 暗藪也在州東九十五里周三十餘里 木橋也在旌義東十七里 大藪也在旌義南四里 所近也在大靜西二十六里 板橋也在大靜西五里 螺藪也在大靜東十里”

이들 꽃자왈 지대 중 『남환박물』에서 말하는 소근수(所近藪)는 현재의 한경면 일대이고, 판교수(板橋藪)는 대정읍 일대로 현재 가마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탐라도총(耽羅都摠)」<도판 8>과 「한라장축(漢拏壯圖)」<도판 9>에서도 대정 읍성을 중심으로 좌우로 크게 두 줄기의 꽃자왈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호남읍지(湖南邑誌)』(규 12181)에 수록된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를 보면 군성(郡城)의 서문 쪽으로 판교수가 형성되어 있다.<도판 10> 지도에서 보이는 대정읍 동일리 일대의 세뢰수(細磊藪)와 서림수(西林藪)는 판교수(板橋藪)의 작은 줄기로 형성된 꽃자왈로 보여지며, 앞서 언급한 웅점이 있던 가미수(茄味藪)도 바로 판교수의 줄기로 형성된 작은 단위의 꽃자왈로 보여진다. 이렇게 큰 줄기의 꽃자왈을 중심으로 좌우로 작은 꽃자왈들이 형성되어 있었음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대정현 북쪽 15리에 있는 지명이 초악에 올라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판관이 먼저 대정에 도착하여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오른쪽에 산수(酸藪) 왼쪽에는 세수(細藪)가 있는데, 두 수풀이 해변으로 끼어 들어와 가운데에 큰 들판으로 되어 있다.<sup>70)</sup>

이증(李增)이 사냥하는 모습을 관람하기 위해 대정 읍성에서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있는 초악(草岳)에 올라가서 앞 쪽을 내려다보니, 산수(酸藪)와 세수(細藪)라는 꽃자왈이 해변가 쪽으로 뻗어 있고 두 줄기 사이에 큰 들판이 펼쳐져 있음을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꽃자왈에는 다양한 종류의 땃감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가마 번조시 가장 좋은 연료는 화력이 센 소나무이고 다음은 잣나무, 그 다음은 가시나무·잡목 순이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는 소나무 밭이 없어서 거의 잡목을 이용했고,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는 소나무와 잡목을 반반씩 섞어서 사용했고,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지역은 거의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이들 지역에 분포해 있던 가마들은 소근수(所近藪)와 판교수를 비롯해서 그 주변으로 형성된 작은 꽃자왈로부터 땃감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땃감의 넉넉한 공급 조건은

69) 金吾順,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40.

70) 李增, 『南槎日錄』

“登大靜縣北十五里 地名草岳 觀獵 判官已先到大靜 出待矣 右酸藪·左細藪 兩藪插入海邊 中有大野”



흙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조건과 더불어 이 지역에 가마들이 밀집되어 형성하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옹기의 재료인 점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옹기를 만들기 좋은 흙은 풍화작용이나 수해 등에 의하여 재형성된 점토로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이차점토(二次粘土)이며 주로 논이나 밭이 있는 평지에서 많이 얻을 수 있어 재료공급이 원활한 지역이다. 특히 강이 바다로 흘러 다다르는 지점의 흙, 즉 퇴적된 점토가 가장 좋다.<sup>71)</sup> 산의 흙은 주로 순수한 도자기용 점토인 일차점토<sup>72)</sup>이며, 간혹 산등성이 내의 평지에서는 이차점토의 흙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곳의 흙은 매장량이 풍부하지 않다.

제주도의 토양은 5차례의 화산분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약 70%는 화산회토의 특성을, 나머지 30%는 비화산회토의 특성을 각각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화산회토는 철분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옹기를 제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다만 기생화생들의 폭발 시기와 고도에 따른 기후, 식생, 지형, 생성연대에 따라 같은 화산회에서 유래된 토양일지라도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일부 지역에 점성이 있는 토양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주로 밭농사와 논농사를 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히 논농사를 할 수 있는 토양은 점성이 높아 옹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로서 적합하였다.

제주도의 논농사 지역이 어느 지역에 분포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1793년 경에 제작된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의 전총(田摠)조<sup>73)</sup>에 수록된 한

71) 일차점토가 카올린화가 일어난 곳에서 바람과 물의 작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연적인 수비(水飛 Elutriation, Washing), 풍비(風飛 Air Separation)의 분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비중·입자의 크기가 다른 입자들이 따로따로 퇴적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분리되어 입자가 작은 점토가 퇴적하여 생긴 점토를 이차점토 또는 퇴적점토라고 부른다. 특성은 일차점토에 비하여 평균입자의 크기가 작고 유기질 물질을 많이 함유하여 가소성이 크며, 철분을 비롯한 불순물이 많아 색이 진하고 소성색상도 진하다. 대부분 이차점토는 점력은 많으나 불순물이 많고 저온에서 소성할 수 있는 점토들이다. 벽돌용점토, 옹기점토, 기와점토 등이 이차점토로서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강 하구나 갯벌 등에 용기하여 생겨난 퇴적점토들이다. 정동훈, 『도자예술훜어사전』, 도서출판(주)월간세라믹스, 1996.

72) 지구가 생성될 시기부터 존재하여온 순수한 도자기용 점토이며 성분이 매우 순수하며 백색계열의 고령토, 백토, 점토 등이다. 일차점토 중에는 도석(陶石)같이 단단해진 암석의 종류도 있으며, 차이나 클레이(China Clay), 콘웰(Cornwall) 장석과 같이 순수한 도자기용 원료를 말한다. 정동훈, 앞의 책, 1996.

73) 『濟州大靜旌義邑誌』(刊 17436)

<제주목> 元帳付四千二百九十七結八十三負九束內 旱田三千九百九十一結 九十二負九束水田三百五結八十二負九十束



전(旱田)과 수전(水田)을 정리하면 <삽표 2>와 같다. 한전은 대정현이 제주목과 정의현 지역보다 1,000결 정도 적은 편이나, 수전은 제주목과 대정현이 정의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수전이 있는 제주목과 대정현 지역이 옹기의 재료를 얻기에는 훨씬 용이했으리라 생각된다.

<삽표 2> 『제주대정정의읍지』에 수록된 토지결수

지역 년도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비고
한전(旱田)	3,991결 92부 9속	2,228결 89부 3속	3,383결 13부 3속	
수전(水田)	305결 82부 90속	199결 5부 2속	16결 57부	

또한 이 토지에 부과된 조세를 살펴보면, 제주가 풍년[上擲年]에는 25석, 평년[中擲年]에는 12석, 흉년[下擲年]에는 1석 3두, 대정은 풍년에 50석, 평년에는 32석, 흉년에는 15석, 정의는 풍년에 31석 평년에 19석, 흉년에 7석으로 되어있다.<sup>74)</sup> 이와 같이 풍흉에 따라 부과된 조세가 세 지역을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 결수와 비옥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정 지역은 풍년일 경우 50석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는 타지역보다 무려 20석이나 많은 양이었다. 대정 지역의 한전과 수전의 총결수는 두 지역에 비해서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조세를 낸 것은 대정 지역의 생산량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정 지역의 토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점성이 높고 비옥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보다 앞선 시기의 자료인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관(南宦博物)』에 “대정에는 단지 약간의 논[水田]이 있고, 정의는 심히 적고, 제주는 더욱 적다.”<sup>75)</sup>라고 기록되

<대정현> 元帳付二千四百二十七結九十四負五束內 水田一百九十九結五負 二束旱田二千二百二十八結八十九負三束

<정의현> 元帳付三千三百九十九結七十負三束內 水畝十六結五十七負旱田 三千三百八十三結十三負三束

74) 『濟州大靜旌義邑誌』(규 17436)

<제주목> 稅米 定爲上中下擲 上擲之年則折米二十五石 中擲之年則折米十二石 下擲之年則折米一石三斗

<대정현> 稅米定爲上中下擲 上擲之年則五十石 中擲之年則三十二石 下擲之年則十五石

<정의현> 稅米定爲上中下擲 上擲之年則三十一石 中擲之年則十九石 下擲之年則七石

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대정 지역이 점성이 높은 토질인 수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철분 함량이 적어 토기(土器)와 도기(陶器) 제작에 적합한 양질의 점토가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와 고산리에 옹기가마터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모두 폐요되어 개간되었지만 한 때 마을 주민 대부분이 옹기 관련 일을 했었던 애월읍 광령리와 제주시 일도지구(광양일대)에도 점토가 분포한다. 그리고 옹기가마터 지역인 제주시 도남동·노형동과 동부지역으로는 극히 일부이나 제주시 구좌읍 감녕리 일대에도 이 같은 점토가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점토를 분석한 다음의 실험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삽표 3> 제주점토 분석결과

지역 성분	신평리	조수리	광령리	일도지구
SiO <sub>2</sub>	63.59	61.67	59.86	61.73
Al <sub>2</sub> O <sub>3</sub>	16.81	14.77	18.52	16.30
Fe <sub>2</sub> O <sub>3</sub>	8.03	7.69	6.34	8.03
TiO <sub>2</sub>	1.24	1.24	1.38	1.35
MnO	0.01	0.09	0.01	0.13
CaO	0.28	0.54	0.31	0.46
MgO	0.76	0.99	0.87	1.37
K <sub>2</sub> O	1.61	1.86	1.47	2.12
Na <sub>2</sub> O	0.75	0.96	0.66	1.60
P <sub>2</sub> O <sub>5</sub>	0.04	0.11	0.09	0.10
L.O.I	7.11	10.16	10.53	6.89
Total	100.03	100.08	100.04	100.08

제주점토 분석결과<삽표 3>76)에 의하면 이 지역의 토양은 약간의 해발 고도의

75) 李衡祥, 『南宮博物』, 田條

“大靜 只有若干水田 旌義甚鮮 濟州尤少”

76) 姜東佑, 「Mössbauer 效果에 의한 濟州 地域 찰흙에 含有된 Fe의 磁氣的 特性 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35.

차이는 있으나 중산간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비화산회토이고 토색별 분류로는 암갈색토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지역 점토의 산화철( $\text{Fe}_2\text{O}_3$ ) 함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고 규석(실리카,  $\text{SiO}_2$ ) 함량은 높았으며, 알루미나( $\text{Al}_2\text{O}_3$ ) 함량이 낮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이들 지역의 점토 시료들은 함철고토광물이 많이 함유된 현무암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조면암과 같은 중성화산암에서 부분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의 이러한 토질 환경과 연료 공급지인 곳자왈의 분포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에 많은 가마를 형성하게 했는데, 이에 따라 비화산회토 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구억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조수리 지역에 가마터가 밀집되어 있고, 그 중 7기의 가마가 현존하고 있다.

## 2. 가마의 축조재료와 구조

### 1) 가마의 축조재료

기와, 도기, 자기, 옹기 등 흙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구워내는 내화시설물이 가마이다. 가마는 번조 목적에 따라 구조와 형태가 다르고, 번조 방법과 내화시설물의 재료에 따라서도 다르다. 같은 종류의 기물을 동일 가마에서 번조한다고 해도 구워진 기물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날씨, 땀감의 종류, 기물의 건조상태 등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마의 축조재료는 대부분 점토와 돌이었다. 고려시대 초기청자 가마에 나타나는 벽돌가마와 조선시대 분청·백자가마인 망댕이<sup>77)</sup>가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대기의 가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점토와 돌을 축조재(築窯材)로 이용하였다.<sup>78)</sup> 벽돌과 망댕이가마도 원료를 제작하고 사용했던 형식이 조금 다를 뿐 흙과 돌이 기본재료였다. 자기가마의 봉통부는 점토와 돌을 혼축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점차 가마의 축조에 점토와 함께 돌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가마의 보강제로서 돌을 섞어 사용하는 양상으로 변화를 보인다. 변천리 5호가마처럼 점토에 작은 크기의 돌을 섞어 쌓거나 일부 벽돌을 사용한 예도 확인되고 있으며 19세기 말기의 가마인 미륵리 가마에서는 벽돌과 돌을 사용하여 가마칸을 축조하기도 하였다.<sup>79)</sup>

옹기가마도 마찬가지로 흙과 돌을 혼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19세기 경에 운영되었던 가마로 생각되는 방리가마는 3차례에 걸

77) 망송이, 망생이라고 한다. 옥수수 모양같이 만든 약간 길쭉하면서 동그란 사토질 벽돌인데, 가마의 천정을 쌓는데 사용된다. 이 벽돌은 많은 번조 횟수에도 가마의 수축 팽창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원추형이어서 가마의 팽창에도 가마가 주저앉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마 안의 울룩볼록한 모양이 불꽃을 가마내부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여 번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가마의 천정을 쌓기가 매우 편리한 반면, 망송이 사이에 밀어 넣은 점토덩어리가 번조시에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단점이 생기기도 한다. 정동훈, 앞의 책, 1996.

78) 분청사가가마와 백자가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토에 돌을 섞어 가마를 쌓는 방법 외에 문경 관음리 일대를 중심으로 괴산, 단양, 곡리 일대, 상주 중별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망댕이(망송이·망생이)가마라는 독특한 형태의 가마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정명호, 「砂器匠 名稱과 제조기술에 관한 연구」, 『實學思想研究』5·6合輯, 母岳實學會, 1995, pp.41~52.

이러한 망댕이가마는 소백산 줄기를 중심으로 분포하였던 독특한 형태의 가마로, 전라도 지방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가마인 피서리가마나 장흥 월송리가마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全南文化財研究院, 『長興 朝鮮白磁 陶窯址』, 2002.

79) 金貞善, 「朝鮮時代 磁器가마 構造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46.

쳐 개축하여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2차 조업시 잔존한 남벽은 60cm 정도 크기의 할석과 점토를 혼용하여 축조하였다.<sup>80)</sup> 19~20세기를 조업시기로 파악되는 정관요지의 옹기가마는 남쪽 구릉 상부에 동-서 방향으로 위치하는데 규모는 길이 950cm, 폭 220cm로 가마벽체를 석축으로 두르고 그 바깥에 다시 석축으로 가마를 장방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였다.<sup>81)</sup>

기본재료는 같지만 번조목적이 같은 가마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지역마다 구조, 형태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며 축요법(築窯法)과 축요재(築窯材)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이는 그 지방의 기후, 풍토, 토질 등 자연·인문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가마 역시 기본재료는 동일하지만 축조법과 축조재료가 타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다. 내륙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조사된 가마의 축조재료도 ‘돌’과 ‘흙’이었다. 그러나 내륙에서 주로 사용한 화강암(花崗巖)인 할석(割席)과는 다르게 제주도에 축조재료로 주로 이용한 돌은 현무암(玄武巖)이었다. 제주도의 돌은 화산 폭발에 의한 용암석(鎔巖石)이며<sup>82)</sup>, 다공질이어서 고온과 저온에서 스스로 이완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은 내화재(耐火材) 역할을 했다. 제주도에 나타나는 기왓굴[기와가마], 검은굴[환원번조(還元燔造) 가마], 노랑굴[고온 산화번조(高溫酸化燔造) 가마] 등은 모두 현무암을 기본재료로 하여 축조되었다. 현존 가마터 7기 중 유일하게 한 개의 가마터 천정이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되었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며 시기적으로 가장 후대에 해당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80)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수자원공사, 『蔚山 下三亭遺蹟·芳里 甕器窯址-蔚山圈 光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内 3次 發掘調査-』, 2007.

81)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2차)개요」, 2004.

82) 제주도의 지질은 대개 신생대 제3기 말기부터 제4기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그 지질은 조면암(粗面岩), 조면질안산암(粗面質安山巖), 현무암(玄武巖) 및 약간의 퇴적암(堆積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암석의 분포 면적은 현무암, 조면암, 조면질안산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퇴적암은 그 분포면적이 가장 좁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5회의 분출윤회로 구분이 되며 모두 79회 이상에 달하는 용암분출이 관찰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무암의 분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신생대 3기에 분출한 조면암이 원래의 기반인 화강암을 덮고 다시 제4기에 현무암이 분출되어 그 위를 덮음으로써 이룩된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투수성(透水性)이 강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우량은 많은 편이지만 지하로 빠져들어 용암층 밑을 복류(복류)하여 해변에 가서 용출(湧出)하고 하천은 거의 건천(乾川)이 되어 있다. 제주도, 『濟州道誌(上)』, 1982, pp. 412~413.

## 2) 가마의 구조

가마는 번조 목적에 따라 구조와 형태가 다르므로 가마의 구성요소도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전통가마의 형태는 환요(煥窯)이며 와요(臥窯)이다. 자기, 옹기 등 모두 와요(臥窯)였음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천공개물에는 병요와 향요가 각각 달라 병요에는 작은 그릇을 굽고 향요에는 큰 그릇을 굽는다. 대개 향요와 병요는 평지가 아니라 필히 경사진 언덕 위에 설치한다. 수십 개의 가마를 이어 붙여 한 가마 높이가 한 층급을 이루는데 화기가 층급을 따라서 뚫고 올라가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도기가마와 자기가마를 막론하고 병과 향아리를 굽는데 모두 똑같은 와요이다. 불꽃이 위로 오르지 않아 반드시 소나무를 사용하여 불을 세차게 하는데 불에 가까운 것은 항상 그릇이 이지러지고 흠이 있을까 염려하여 불에 먼 것은 또한 잘 익지 않음을 염려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굽는 방법이니 천하에 숨겨진 기술이다.<sup>83)</sup>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을 각각 다른 가마에서 굽는 중국 가마형태를 『천공개물(天工開物)』의 내용을 인용하여 말하면서, 우리나라는 도기·자기가마에서 모두 병과 향아리를 굽고 똑같은 와요라 구조상 굽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다.

와요 형태의 자기·옹기가마는 다소 구조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연소실[봉통부]과 기물실[가마칸]로 구성되어 있다. 검은굴[환원번조 가마]처럼 연소실과 기물실이 분리되지 않고 한통으로 이루어진 단실요도 있지만, 고온에서 번조하는 제주도 가마의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와요 형태의 제주도 가마는 굽는 온도와 방법, 구워진 그릇의 빛깔에 따라 노랑굴과 검은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가마를 ‘굴’이라 불렀다. 굴은 제주도에서만 사용했던 가마의 용어라고 일부 알려져 왔으나, 굴이란 용어는 굴가

83) 徐有榘, 『林園經濟志』, 「金華耕讀記」

“案天工開物 瓶窯缸窯各異 瓶窯燒大器 凡缸瓶窯不于平地 必就斜阜崗之上 連接數十窯 一窯高一級 令火氣循級透上 我東則不論陶窯瓷窯 燐瓶燐缸 都是一臥窯 火不炎上 必用松肱烈火 近火者 常患苦 竈 遠火者又苦不熱 此所以東燐之爲天下之賤工也”

마[窟窯] 등으로 계속 쓰여 왔다.<sup>84)</sup> 내륙에서도 옹기가마인 대포가마를 대포굴이라 불렀다.

노랑굴은 구워진 그릇의 빛깔이 “노란 색을 띤다.” 하여 유래된 명칭이고, 검은굴은 완성된 그릇의 빛깔이 “검정색을 띤다.” 하여 유래된 것이다. 물질문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해당 명칭과 설명 등을 고유어·현지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본고에서는 통용되는 학술용어로 대체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에 번조방법으로 나누어서 노랑굴은 고온 산화번조(高溫酸化燐造) 가마, 검은굴은 환원번조(還元燐造) 가마라고 하겠다. 노랑굴은 1,150℃ 이상의 고온에서 번조를 하며 처음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산화염으로 번조함으로 고온 산화번조 가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검은굴은 번조를 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아궁이와 배연구 등으로 연료를 한 아름 집어넣은 후에 밀폐시키면, 가마 속 기물의 산소까지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쓰이고, 타고 있는 연료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기물 표면에 스며들어 완성된 기물은 회흑색(灰黑色), 회청색(灰青色)으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환원번조 가마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번조되는 것은 아니므로 온도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겠다. 또한 검은굴의 대체용어로 선택한 환원번조 가마에서 환원번조는 자기가마 번조시 산화염에서 환원염으로 바뀌는 환원번조를 의미하지 않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제주도 가마의 세부구조는 후술하겠지만, 가마의 기본 구성요소 중에서 내륙의 가마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아궁이, 연소실[봉통부], 불벽[설창기둥], 굴뚝[배연구] 등의 구성요소를 먼저 살펴보겠다.

연소실은 가마의 제일 아래에 위치하며 기물실로 올라가기 전까지 연료가 연소되어 예열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고온 산화번조 가마[노랑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궁이부터 기물실로 넘어가는 불벽과 불턱이 있는 곳까지를 이르며 아궁이인 입구는 좁고 기물실과 연결되어 있는 안쪽은 같은 너비로 축조되었다. 아궁이는 가마의 맨 앞 중앙에 위치하며 넓적한 판상형의 현무암 3개를 이용하여 축조한 ‘ㄱ’자 사각형태의 입구이다.<도판 11> 환원번조 가마[검은굴]도 아궁이의 형태가 동일하며 기와가마[기왓굴]도 아궁이가 유실되거나 폐요되어 실견을 할 수는 없지만 같은 형태로 축조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내륙의 가마 아궁이도 사각형의 ‘ㄱ’자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아궁이의 상부구조가 유실되어 확인되지

84) 강경숙, 『韓國陶磁史』, 일지사, 1989, p.5.



는 않으나 아궁이 양측에 놓인 기둥을 가로지르는 이맷돌이 놓여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가마인 우산리 17호<sup>85)</sup>, 충효동 3호<sup>86)</sup>, 장안동가마<sup>87)</sup> 등에서는 아궁이 주변에서 이맷돌로 쓰였음직한 석재가 확인되었으며 다부동가마의 경우는 이맷돌이 놓여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어 기본적으로 ‘口’자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88)</sup> 비록 도기·옹기가마는 아니지만 잔존하는 예인 15세기 경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여초리(余草里) 기와가마의 아궁이<도판 12>와 19세기 중반 경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는 문경 관음리 망댕이가마의 아궁이<sup>89)</sup><도판 13>의 형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아궁이의 폭은 분청사기 가마인 충효동 3호가 48cm 내외,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기에 해당하는 백자가마인 산본동A~B<sup>90)</sup>가 50~55cm·음양리 가마<sup>91)</sup>가 1~3차 개축한 폭이 60~55cm이며, 17세기에서 18세기의 백자가마인 하구암리는 80cm로<sup>92)</sup>, 분청사기 가마와 백자가마는 평균 50~60cm 정도의 폭으로 나타난다.<sup>93)</sup> 자기가마가 아닌 옹기가마지만 고온 산화번조 가마[노랑굴]도 아궁이의 폭이 60~70cm 정도로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온 산화번조 가마 아궁이가 판석형의 현무암 3개를 이용하여 축조된 것과 같이 내륙 가마의 아궁이 축요재도 판석상의 석재 또는 2~3매의 자연석을 사용하거나 작은 크기의 판석상 석재와 할석을 여러겹으로 쌓고 점토를 발라 축조하였다. 암반, 벽돌, 갑발을 사용한 예도 나타나지만 기와가마·자기가마 등 내륙 가마의 아궁이 축요재는 주로 판석과 할석임을 알 수 있다.

연소실[봉통부]과 기물실[가마칸]이 분리되어 있는 가마의 구조에 있어 봉통부 평면형태는 타원형, 장타원형, 제형 등이 나타나고 있다.<sup>94)</sup> 타원형과 장방형 봉통부는 봉통부의 중심폭이 넓은 형태로 봉통부와 기물실을 구획하는 경계에 높은 불턱이 있는 분청사기·백자 가마의 초기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제형은 역사다리

85) 海剛陶磁美術館, 『廣州 牛山里 白磁 窯址(Ⅱ)-17號 白磁窯址 試掘調査報告書』, 1999.

86)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1993.

87) 忠南發展研究院, 『大田 壯安洞 白磁窯址』, 2002.

88) 金貞善, 「朝鮮時代 磁器가마 構造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53.

8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경지역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2002.

90) 湖巖美術館, 「陶窯址 遺蹟」, 『山本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1990.

91)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慶山 陰陽里遺蹟」, 『大邱-포항間 高速道路 新設區間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2002.

92) 국립문화재연구소, 『전국문화유적발굴조사년표』, 증보판Ⅱ, 2001.

93) 金貞善, 앞의 논문, 표5~표9 참조

94) <표 1> 朝鮮時代 가마 종류 및 개념도 참조. 강경숙, 「경남 일원의 분청사기」,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2004.



모양으로 봉통부 중심폭이 기물실 폭에 비해 좁은 형태이다. 이러한 봉통부 평면 형태는 봉통부와 기물실의 경계에 얇은 턱이 있거나 턱 없이 설창기둥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기물실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봉통부가 제형인 가마는 보통 기물실의 폭도 위로 갈수록 점점 벌어져 가마의 전체 평면형태도 제형인 경우가 많다. 분청사기가마의 봉통부 평면형태는 15세기 초·중반의 용수리가마<sup>95)</sup>에서 16세기의 다부동<sup>96)</sup>, 웅천가마<sup>97)</sup>에 이르기까지 타원형을 보인다. 분청사기 가마는 백자가 같이 생산되었던 충효동 3호의 경우 장방형으로 변화된 형태를 보이지만 분청사기가 소멸되는 시기까지 봉통부 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져 시기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백자가마의 봉통부 형태는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전반 전라도의 대도리가마<sup>98)</sup>에서 제형으로 형태변화를 보이고, 충청도의 정각리가마<sup>99)</sup>나 경상도의 방리유적 I의 가마인 경우는 17세기 이후에도 불턱이 있는 타원형의 형태로 나타났다.<sup>100)</sup> 대도리가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라도지역 가마의 구조변화가 타지역에 비해 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적인 편차는 있지만 백자가마의 봉통부는 16세기까지 타원형 혹은 장방형을 보이며 17세기 전반에서 중반 이후가 되면 제형의 형태를 보인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륙의 웅기가마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가마유구가 유실되어 완형에 가깝게 발굴 조사된 것이 흔치않다. 웅기가마의 봉통부 평면형태는 15세기에서 16세기로 편년되는 청도 순지리가마<sup>101)</sup>의 형태가 장방형이며,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의 하동 고이리가마<sup>102)</sup>는 통굴식 등요로 장타원형으로 나타나며,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의 울산 방리가마<sup>103)</sup>는 지상식 등요이며 세장방형이다. 경상도 지

95)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龍水里 1號・2號 窯址 發掘調査報告」, 『保寧댐 수몰地域 發掘調査 報告③ 陶窯址 發掘調査報告』, 1996.

96) 慶北大學校博物館, 「漆谷 多富洞 窯址」, 『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文化遺蹟發掘調査 報告書』, 1991.

97)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진해 웅천 자기요지(I) -진해시 웅천면 두동리 웅천 자기요지시 굴조사 略報告書-』, 2001.

98) 목포대학교박물관, 『장성 대도리 가마유적』, 1995.

99) 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夫餘 正覺里 갓점골 遺蹟』, 2002.

100) 金貞善, 앞의 논문, 표5~표9 참조. 타지역에 비해 봉통부의 형태 변화가 일찍 나타나나 현재까지는 동일시기의 비교자료가 부족하여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인 추세인지 또는 지역성을 가지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101) 慶南대학교박물관·운문댐수몰지역발굴조사단·청도군, 『淸道 蓴池里 甕器가마터』, 1994.

102) 경상대학교박물관, 『하동 고이리 유적』, 1990.

103)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수자원공사, 『蔚山 下三亭遺蹟・芳里 甕器窯址-蔚山圈 光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內 3次 發掘調査-』, 2007.

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웅기가마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큰 변화 없이 장방형 또는 타원형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고온 산화번조 가마도 현존 가마터의 가마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타원형 혹은 장방형으로 나타나며 불턱이 있다.<sup>104)</sup> 절대편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정황상 현존하는 고온 산화번조 가마의 시기를 19세기 후반<sup>105)</sup>으로 보고 있다면 18세기 중·후반 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웅기의 가마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연소실과 기물실을 구획하는 불벽[설창기둥과 격벽]은 가마칸을 구획해주며 불길의 직접 기물에 닿지 않도록 하며 양쪽 불구멍으로 나뉘어 퍼져 전체적으로 가마칸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구성요소이다.<도판 14> 고온 산화번조 가마의 불벽은 천정과 연결되어 천정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며 출입구가 나있는 측의 불구멍이 크다. 이 구조의 구성요소는 자기가마인 16세기 초반의 방목리 가마<sup>106)</sup><도판 15>, 16세기 중후반의 신양리 가마<sup>107)</sup><도판 16>, 16세기 후반의 정생동 가마<sup>108)</sup><도판 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목리 가마의 번조실에 남아있는 불창시설은 3개의 불창기둥[설창기둥] 위쪽에 격벽으로 완전히 막혀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구조의 가마는 분실요(分室窯)라고 명명되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한 가마로는 가장 이른 분실요의 예이다.<sup>109)</sup> 정생동 가마의 설창기둥은 방목리 가마와 유사 구조양상을 띠지만 정생동 가마는 불기둥이 천정까지 막혀있는 천정지주로, 격벽으로 완전히 막힌 구조인 방목리 가마와는 다소 편차가 있다. 제주도 가마의 불벽구조도 천정까지 막혀있는 정생동 가마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자기가마는 17세기 이후로 설창기둥의 수가 늘어나며 많은 수의 설창기둥과 격벽의 형태는 근래의 가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내륙 웅기가마인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의 하동 고이리 가마에서 이 시설과

104) 이경효,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표3~표8 참조

105) 현지조사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는 한 때 마을 전체가구의 80%가 웅기 일을 했고 삼대에 걸쳐 했었다고 한다. 제보자들의 나이를 환산하고 삼대 90년을 합하면 적어도 1870~188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조사·촬영한 유리건판에 제주도 웅기대장이 성형하는 장면과 허벅을 지고 있는 장면, 장터에서 웅기를 판매하는 있는 장면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불 때 현존 고온 산화번조 가마의 시기를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로 편년 가능하다.

106)釜山大學校博物館, 『山淸 放牧里 白磁窯址』, 2000.

107)慶南大學校博物館, 「安東 新陽里 朝鮮白磁窯址」, 『大邱-春川間 高速道路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92.

108)해강도자미술관, 「지도위원회회의자료-대전정생동」, 1997

109)강경숙, 「경남 일원의 분청사기」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2004.

유사한 봉통부와 가마칸의 경계에 불막이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웅기가마로 전북 부안 주산면에 있는 대포가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110)</sup> 자기가마는 17세기 이후로 설창기둥의 수가 늘어나지만 웅기가마는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이어져왔으며 또한 고온 산화번조 가마도 현존 가마를 기준으로, 앞 시기의 가마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마의 구조상 굴뚝[배연구(排煙口)]은 가마의 맨 뒷부분에 구성되는 요소이다. 지면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유실되어 바닥의 구조만 겨우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존하는 제주도 가마인 노랑굴[고온 산화번조 가마]의 굴뚝은 4개의 직사각형 형태의 구멍이며 크기가 거의 비슷하나 중앙에 위치하는 2개의 크기가 조금 작다.<도판 18> 이 굴뚝부의 구성 요소 또한 자기가마의 것과 유사하다. 자기가마의 굴뚝도 하부구조 외에는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발굴 조사된 가마 중 20세기 전반의 미륵리 1호가마<sup>111)</sup><도판 19>, 1800년대 중반에 축조된 것으로 전하는 문경 관음리 가마<sup>112)</sup><도판 20>, 17세기에서 18세기경의 대전 구암리도요<sup>113)</sup><도판 21>의 굴뚝형태를 통해 유사한 구조임을 비교해 볼 수 있다.

### (1) 고온 산화번조 가마[노랑굴]

고온 산화번조 가마는 허벅·항아리·병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던 그릇들을 구웠던 가마를 이른다. 잿물[釉藥]을 바르지 않고 1,200℃가 넘는 고온에서 구우며, 그릇의 태토(胎土)와 번조시(燔造時) 연료의 회유(灰釉)·자연유(自然釉)의 빛깔에 의해서 구워진 그릇 표면이 붉으면서 노르스름한 색을 많이 나타낸다. 가마는 번조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웅기가마이고, 가마의 형태에 따르면 환요(煥窯)이며 와요(臥窯)이고, 가마의 구조로 분류하면 반연속(半連續) 가마이다. 고온 산화번조 가마는 횡염식(橫炎式)의 터널형 통가마로 내륙에서 웅기가마·용가마·대포가마 등으로 불린다.<sup>114)</sup>

110) 박종일, 「全北地域 甕器工房의 現況과 分析」,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50.

111) 충북대박물관,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1995.

11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경지역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2002.

11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2001.

114) 정동훈, 『가마짓기와 번조기법』, 디자인하우스, 1991, pp.21~30. 산화번조 가마[노랑굴]는 통가마로서 서양에서는 튜브 킬른(Tube kiln), 일본은 아나가마 등으로 불린다.

가마는 대부분 자연 경사를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가마 벽이 나란히 일직선으로 올라가면서 칸이 구분되지 않은 구조로 경상북도 청도 순지리 옹기가마터<sup>115)</sup>, 칠곡 가천동 옹기가마터, 울산 방리 옹기 가마터, 경남 사천 류천리 옹기 가마터의 가마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순지리 옹기가마터<sup>116)</sup>는 16세기 전반에서 중반 경으로, 가천동 옹기가마터는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 경으로, 방리와 유천리<sup>117)</sup> 옹기 가마터는 18세기 중반 경에서 19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경상도 일대에서 발굴 조사된 사례들로서 세부구조가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가마 벽이 나란한 일직선을 이루는 구조가 꾸준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마의 자연 경사각도는 그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서서히 자연스럽게 화염이 올라간다. 경사각도는 15~18도 정도이며 가마의 길이에 따라서 경사각을 달리했다. 경사각이 급하면 화염이 쉽게 빠져서 열 손실이 많고 그와 반대이면 열이 뒷부분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여 고르게 번조할 수 없다. 가마의 길이는 풍향막이 역할을 하는 앞 부대시설을 뺀 아궁이부터 배연구까지 16~20m 정도이다. 산화번조 가마의 특징은 그릇의 파손율을 줄이기 위해 맨 앞줄에 놓이는 기물에 직접 열이 닿지 않도록 불벽[설창기둥과 격벽]을 만들었고, 불길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기물실로 들어가도록 축조되었다. 가마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있거나 목을 숙이고 서 있을 정도의 높이이다.

흙[火山灰土, 玄武巖土] 자체에서 나타나는 발색(發色)이 좋아 자연스런 색깔을 얻기 위해서 번조가 중요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정과 시간도 힘들고 길었다. 번조(燔造)의 첫 단계인 ‘다림굴 때기[군불때기]’에서 마지막 단계인 ‘갯불질[창불질]’하기까지 3~4일이 걸린다. 다음은 현존 가마터를 중심으로 실측·조사한 내용을 통해 세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도판 22·23>

115) 순지리요는 칸을 만들지 않고 양측요벽이 나란한 직선으로 경사져 올라가는 단실등요(單室登窯)로 사라야카미(皿屋上窯)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가마의 규모 역시 현존하는 길이 18.0m, 폭 1.0m, 가량으로 현존 길이 16.4m, 폭 1.0m인 皿屋上窯와 대체로 상통된다. 이 곳에서 생산된 기물은 동이·독·병 등 생활용구로서 기벽이 얇고 내면에 동심원상의 타날문이 남아있는 것 등 출토유물 역시 皿屋上窯와 매우 흡사하다. 皿屋上窯는 窯床構造에 있어 순지리요와 같은 한반도 도기 단실등요의 영향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本田 まび, 「壬辰倭亂 前後의 韓日 陶磁 比較研究 -日本 九州 히젠陶磁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16) 경남대학교박물관·운문댐수몰지역발굴조사단·청도군, 『清道 葦池里 甕器가마터』, 1994.

117)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수자원공사, 『蔚山 下三亭遺蹟·芳里 甕器窯址-蔚山圈 光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内 3次 發掘調査-』, 2007.

경상대학교박물관, 『사천 류천리 제민장지』, 1996.

- (1) 아궁이는 가마의 맨 앞에 위치하며 넓적한 현무암 3개를 이용하여 축조한 ‘口’자 사각형태의 입구이다. 크기는 60~70×45~55cm 정도이다.<도판 24>
- (2) 연소실[봉통부]<sup>118)</sup>은 땀감이 연소되는 곳으로 봉통부의 평면 형태는 아궁이 쪽은 좁고 중앙부는 넓어졌다가 기물실[가마칸]에 가까워지면 좁아지는 타원형 혹은 장방형이다. 중앙부의 바닥면은 낮고 기물실로 가면서 바닥이 높아지며 불구멍에 이르러 매우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연소실의 천정과 불벽은 직교가 아닌 둥근 상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소실의 벽면은 출입구가 나 있는 쪽의 공간이 더 큰데, 이것은 가마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는 195~205×330~340cm이고 높이 155~160cm이다.<도판 25>
- (3) 불벽[설창기둥]과 불구멍[설창구멍]은 연소실과 기물실의 경계를 구획하며 기둥이 바닥에서 천정까지 전부 막혀있어 천정을 받치는 역할도 한다. 불길이 직접 기물에 닿지 않도록 하며 가마 양쪽의 불구멍으로 나뉘어 퍼져 전체적으로 가마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구조이다.<sup>119)</sup> 출입구가 나 있는 측의 불구멍이 더 큰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좌측 25~35×70~85cm 우측 40~50×85~100cm이며 두께는 30~35cm이다.<도판 26>
- (4) 기물실(器物室)은 기물이 채임되어 구워지는 곳이다. 연소실 길이의 5배가량 되며 기물실의 천정은 대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다. 너비와 높이는 160~185×150~180cm 길이는 1,600cm 정도이다.<도판 27>
- (5) 찻불구멍<sup>120)</sup>은 불길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의 기물을 익히려고 번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찻불질’을 할 때 땀감을 집어넣는 구멍이다. 구멍의 수는 가마의 길이에 따라 다르며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은 50~60cm이다. 지름이 8×15, 15×17cm 정도이고 가마의 양쪽에 나란히 위치에 있으며 출입구가 있는 벽면의 구멍 수가 하나 적다. <도판 28>
- (6) 배연구(排煙口)는 가마의 맨 뒤에 위치하는 4개의 직사각형 형태의 구멍을 말한다.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 역할을 하며 크기는 24~29×23~30cm 이

118) 제주도 굴대장등은 연소실을 ‘부장’이라 불렀다.

119) 제주도의 불벽(설창주)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전북 부안 주산면에 있는 대포가마를 들 수 있다. 박종일, 앞의 논문, 1992, p.50.

120) ‘찻불구멍’이라고도 하며, 그 행위는 ‘찻불질’이라 한다.

다. 구멍의 크기는 비슷하나 가장자리에 나 있는 구멍 두개가 조금 크다. 기온과 날씨에 따라 구멍크기와 높이를 조절해서 번조를 했다.

- (7) 출입구는 작업장이나 가마환경에 따라 좌·우측 벽면에 1개가 위치할 수 있다. 대부분 우측면에 위치한다. 크기는 90~110×96~115cm이며 형태는 반원형에 가깝다.
- (8) 가마벽<sup>121)</sup>과 천정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고 내벽에는 진흙을 발랐다. 벽의 두께는 30~50cm이며 수직이 아닌 살짝 안으로 어긋나게 쌓았다. 천정은 벽면에 비해 작은 돌로 만들어졌고 돌과 돌 사이의 틈에 판상형의 잔돌을 끼워 넣어 허물어짐을 예방했으며 천정의 두께는 20~30cm이다. 근래에 만들어진 가마는 벽돌로 천정을 쌓은 예도 보인다.
- (9) 바닥은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지상에 가마를 축조했기 때문에 편평하게 흙판을 잘 다졌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같은 경사도를 이루고 있으나 연소실 바닥에서 기물실로 연결되는 곳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즉, 턱을 만들어서 불길이가 바로 기물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을 ‘불턱’이라고 한다.
- (10) 풍향막이의 돌담<sup>122)</sup>은 비와 바람을 막기 위해 가마의 정면으로 둘러 쌓여 있는 원형의 형태를 말한다. 가마의 크기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410~550×500~600cm이며 높이는 240~300cm이다.
- (11) 보호벽은 가마의 양쪽에 이어서 있는 너비 140~145cm, 높이 120~140cm의 벽을 말한다. 보통 잿불구멍이 시작되는 바로 아래까지의 높이이며 가장자리로 가면서 낮아진다. 잿불질을 할 때 통로 역할을 한다.

## (2)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환원번조 가마의 불 때기는 고온 산화번조 가마와 비교할 때 번조(燔造)의 마지막 과정이 다르고 불 때는 시간도 짧다. 고온에서 아궁이와 배연구 등으로 연료를

121) 제주도에선 가마를 축조할 때 맨 먼저 놓는 돌을 ‘첫’이라 하며 깊게 박았다. 그래서 축요(築窯)하는 일을 ‘굴 박는다’고 한다.

122) ‘부장쟁이’, ‘불집’이라고 하며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선 번조를 하기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었다.



한 아를 집어넣은 후에 밀폐시키면 가마 속 기물의 산소까지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쓰이고, 타고 있는 연료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기물 표면에 스며들어 완성된 기물은 회흑색(灰黑色), 회청색(灰青色)으로 변하여 거의 광택이 없는 그릇이 된다.<sup>123)</sup>

환원번조 가마에서 구워진 그릇은 기와를 굽는 방식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가마의 구조도 기와가마와 동일하다. 또한 번조된 그릇도 ‘지새허벌’, ‘지새단지’ 등 ‘지새그릇’이라 하여 명칭에서도 기와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즉 기와의 고어인 ‘디새 와’와의 연관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고온 산화번조 가마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워져 그릇이 반질거림이 거의 없어 무광택이며 강도가 약해 쉽게 깨져서 고온 산화번조의 그릇에 비해 현존양이 많지 않다.

가마는 대부분 자연 경사를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이때 자연 경사도 그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불길이 서서히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경사 각도가 급하면 불길이 잘 빠져서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낮게 축조했다. 유일하게 현존하는 환원번조 가마를 통해 살펴보면, 경사각은 16도이며 전체길이는 8m이다. 굴의 규모는 고온 산화번조 가마[노랑굴]에 비해서 작고 짧으며, 구조도 단순하다.<도판 29·30> 현존하는 환원번조 가마를 대상으로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궁이는 고온 산화번조 가마의 것처럼 사각형태이며 연료가 들어가는 입구로 크기는 58×61cm이다.<도판 31>
- (2) 가마는 연소실과 기물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통가마이다. 고온 산화번조 가마의 불벽처럼 두 개의 공간을 구획하는 시설물이 없으며 아궁이에 이어서 넓어진 부분이 연소실이며 연이어 기물실이다. 바닥상태가 잡석, 흙 등으로 고르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연소실과 기물실을 구획하는 불벽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판 32>
- (3) 출입구는 곧 배연구이다. 가마의 맨 뒤에 있으며 반원형의 형태로 기물 재임시에 이곳으로 들어가서 앞에서부터 재임하고 뒤로 나오는 것이다. 크기

123) 삼국·통일신라시대에 걸쳐 도기(陶器)는 가마와 물레를 사용하여 고화도(高火度)에서 환원번조(還元燔造)하여 경질의 회흑색(灰黑色), 회청색(灰青色)의 질그릇을 구울 수 있는 기반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존하는 수많은 질그릇은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작되었다. 윤용이,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1993, p.86.

는 330×145cm 이다.<도판 33>

- (4) 가마벽은 환원번조 때에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토를 많이 발랐기 때문에 벽의 두께가 매우 두껍다. 내벽에는 진흙으로 보토바름이 잘 되어 있고 번조시 연기가 스며들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보토 바름을 많이 하여 벽이 두꺼운 것은 환원번조 가마의 특징이며 이것은 기와 가마와 동일한 구조이다. 산화번조 가마에서 보이는 보호벽은 없다.<도판 34>
- (5) 천정은 반원형태를 이루며 윗면에서 보면 장방형이고 두께는 가마 벽과 마찬가지로 두껍다. 번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마 벽과 동일하게 보토 바름이 많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바닥은 상태가 고르지 않아 원형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보면 흙으로 잘 다져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도판 35>
- (6) 풍향막이 돌담은 원형이 손실되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 3) 가마의 운영 - 허벽 생산

제주도 가마의 운영방식은 내륙 지방과는 달리 개인이 운영하지 않았고, 다소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동 운영방식인 ‘계(契)’<sup>124)</sup>로 운영하였다. 가마 작업을 처음 시작했던 대정읍 신평리·구억리, 한경면 고산리 등 이들 지역의 문화권은 계를 결성하여 운영하였고 후발지역인 애월읍 광령리, 제주시 지역은 개인이 운영을 했다.

제주도에서 가마를 공동 운영했던 ‘계원(契員)’은 보통 15명에서 20명 안팎이었다. 계원의 구성은 우두머리인 계수(契首)<sup>125)</sup>가 있고 총무(總務)격인 ‘공언’ 그리고 ‘소임’이라 불렀던 그 아래의 임원이 있어서 직책을 맡은 계원과 일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우두머리이며 계의 총 책임을 맡았던 계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직책을 맡아 대표로서 일을 행했다. 임기는 그 직책을 맡으면 영구적이었다. 계수 다음으로 ‘부계수’겸 재무를 맡아보았던 ‘공언’이 있었다. 공언은

124) ‘계’를 ‘제’라 불렀다. 또한 ‘계원’을 ‘제원’이라 했으며 계원은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으나 가계가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은 사실상 계원이 되기가 힘들었다.

125) ‘황시’ 또는 ‘황쉬’라 불렀다. ‘황시’는 한자어에서 온 ‘행수(行首)’라고도 했다.



계의 실질적인 일을 맡아보았다. 공언의 임기 역시 원하는 기간동안 계속되었다. ‘소임’이라 불렀던 직책은 인력동원, 심부름 등 계의 크고 작은 허드렛일을 했으며 나이가 어린사람이 맡아보았고 임기는 정해진 바가 없었으므로 서로 돌아가며 할 수 있었다.

계원은 가마를 처음 축조를 할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동원이 된 후 따로 계에 내는 돈은 없었고, 가마를 한번씩 번조할 때마다 내는 ‘가마 값’을 받아서 운영과 관리를 했다. 가마는 한번 구울 때 보통 55줄에서 60줄을 굽는데 계원이든 비계원이든 가마 값은 ‘1줄’ 값을 받았다. 이 가마 값을 모아서 가마가 쉬는 장마철에 보수·보완을 하고 가마를 한차례씩 번조를 마칠 때마다 가마 운영을 위해 크고 작은 수리 등 관리를 했다. 추석과 설 등 1년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계원들 사이의 친목도모를 했다.

계의 이름은 달리 불리지 않았으며 가마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sup>126)</sup> 계의 ‘규약’은 없었으나 관혼상제 등 경조사에 계원에게는 쌀 1가마니와 술 1춘(열닷되들이)이나 14되를 마련하여 주었다. 가마의 순번은 가마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기간을 계수에게 알리면 기간을 조정하고 계수는 1년간의 사용 순서를 정했다. 가마를 구운 다음에는, 다음 차례인 사람이 바닥정리와 약간의 보수를 하고 비가 오면 노람지<sup>127)</sup>를 덮어놓고, 물흙도 쳐주는 등 가마를 관리해야 했다.

이렇게 계를 통해 가마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했던 광령리나 제주시 지역의 굴보다 신평리, 구억리, 고산리 등의 지역의 굴이 현재까지 남아 있게 된 까닭이라 생각된다.

126) 첫굴이면 ‘첫굴제’, 동굴이면 ‘동굴제’라 불렀다. ‘첫굴제’의 계원은 총 10명이었고 굴제는 차례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되어야 하지만 유명무실했으며 계원의 명단은 박근호(계수), 강덕수, 신창호, 고인수, 강영화, 고태향, 장창길, 문성순, 김경홍, 고인석 등이다.

127) 새로 차근차근 놓아서 엮은 덮개의 일종.

### 3. 허벅의 수요와 유통

#### 1) 허벅의 수요지역

제주 지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마을들이 샘물로부터 물을 길어다 사용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곧 허벅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제주도의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는 것은 곧 허벅의 수요지를 해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제주 지역의 인구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주 삼읍의 인구현황을 기록하고 있는 조선후기 자료인 『제주읍지(濟州邑誌)』, 『호구총수(戶口總數)』,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등에 나타난 삼읍의 호수(戶數)를 정리하면 <삽표 4> 조선후기 제주도의 지역별 호구상황과 호구비율과 같다.

<삽표 4>의 내용에서 1827년의 호수는 1789년에 비해 433호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795년의 대대적인 기근의 발생과 1822년의 전염병의 만연에 의한 인구의 감소로 보여지며, 1904년 호수가 1854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를 보이는 것은 1896년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이 반포되면서, 부모·형제·자손이라도 분거하면 원칙적으로 분호(分戶)해야 하는 사실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sup>128)</sup> 이들 자료에 반영된 호수는 조사방법에 의한 차이, 신고 과정에서의 누락 등으로 인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실재 호수와는 다소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건 아래에서 파악된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허벅의 수요를 많이 필요로 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호수의 비율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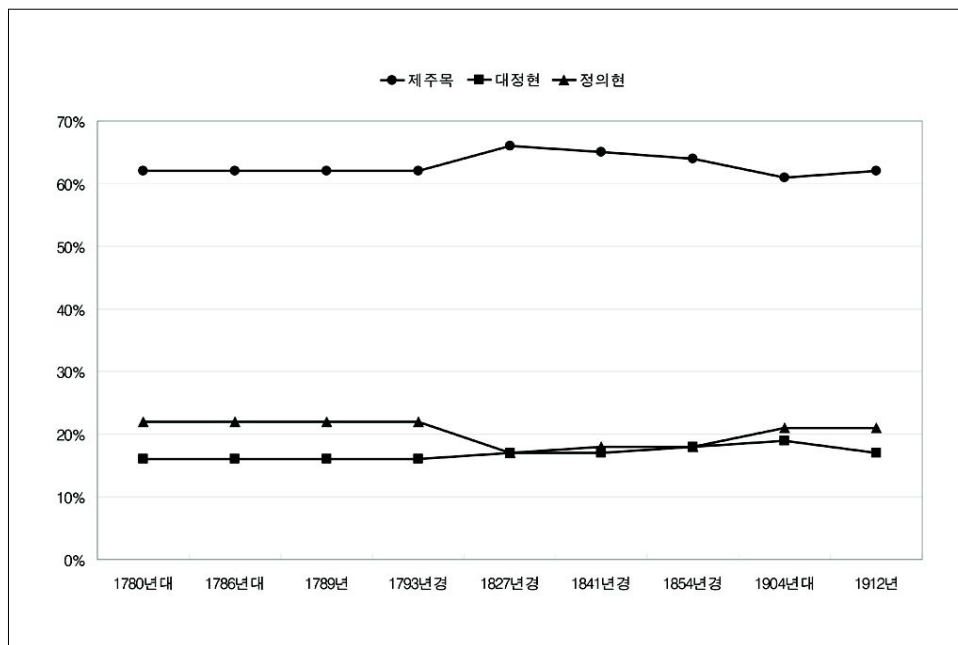
128) 표의 호수(戶數) 내용은 金東棼, 「『戶籍中草』를 통해 본 朝鮮後期 大靜縣의 戶口와 그 變動」, 『동서사학』 6·7합집, 동서사학회, 2000, pp.138~139에 수록된 “<表 1> 조선후기 濟州道の 戶口狀況”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lt;삽표 4&gt; 조선후기 제주도의 지역별 호구상황과 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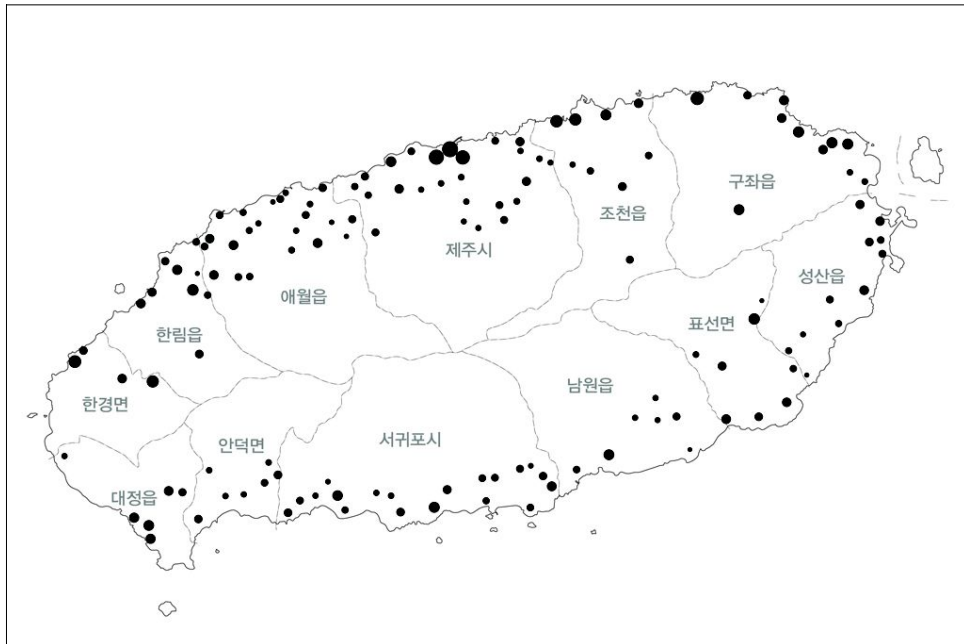
년도(年度) / 자료명	읍명(邑名)	호수(戶數)	호수비율	구수(口數)	구수비율
1780년대 『濟州邑誌』	제주목	6,692	62%	39,374	63%
	대정현	1,704	16%	8,463	14%
	정의현	2,325	22%	14,406	23%
	계	10,721	100%	62,243	100%
1786년 『度支志』	제주목	6,692	62%	39,374	63%
	대정현	1,704	16%	8,516	14%
	정의현	2,325	22%	14,508	23%
	계	10,721	100%	62,416	100%
1789년 『戶口總數』	제주목	6,700	62%	39,762	63%
	대정현	1,733	16%	8,725	14%
	정의현	2,325	22%	14,829	23%
	계	10,758	100%	63,316	100%
1793년경 『濟州大靜旌義邑誌』	제주목	6,707	62%	40,111	62%
	대정현	1,733	16%	9,027	14%
	정의현	2,336	22%	15,372	24%
	계	10,776	100%	64,510	100%
1827년경 『耽羅事例』	제주목	6,851	66%	42,083	67%
	대정현	1,724	17%	11,664	18%
	정의현	1,768	17%	9,337	15%
	계	10,343	100%	63,084	100%
1841년경 『耽羅誌草本』	제주목	7,017	65%	47,499	63%
	대정현	1,859	17%	12,669	17%
	정의현	1,939	18%	15,163	20%
	계	10,815	100%	75,331	100%
1854년경 『耽羅營事例』·『濟州事例』	제주목	7,130	64%	48,954	61%
	대정현	2,037	18%	14,578	18%
	정의현	2,042	18%	17,309	21%
	계	11,209	100%	80,841	100%
1904년 『三郡戶口家間摠冊』	제주목	13,416	61%	45,715	54%
	대정현	4,084	18%	17,274	20%
	정의현	4,572	21%	22,341	26%
	계	22,072	100%	85,330	100%
1912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제주목	23,173	62%	105,402	62%
	대정현	6,440	17%	38,642	23%
	정의현	7,760	21%	27,210	16%
	계	37,373	100%	171,254	100%

<삽표 4>의 통계 자료를 보면 18세기에서 20세기 초기의 제주 인구는 여러 요인으로 감소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주·대정·정의 세 지역에 거주하는 호수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호수 비율은 <삽도 2>에서 보이듯이 제주지역이 61~62%, 대정지역이 16~18%, 정의지역이 21~22%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허벌의 수요가 많았던 지역은 호수가 많았던 제주·정의·대정 순이라 할 수 있겠다.

<삽도 2> 18~20세기초 제주도 삼읍의 호수비율증감도



1780년대 제주도의 마을별 인구 통계자료가 잘 남아 있는 『제주읍지(濟州邑誌)』에 기록된 인구현황을<표 2> 토대로 정리하면 ‘<삽도 3> 『제주읍지』(1780년경)에 나타난 제주인구분포도’와 같다. <삽도 3>에 나타나듯이 제주 삼읍의 마을은 해안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목의 경우 일부 중산간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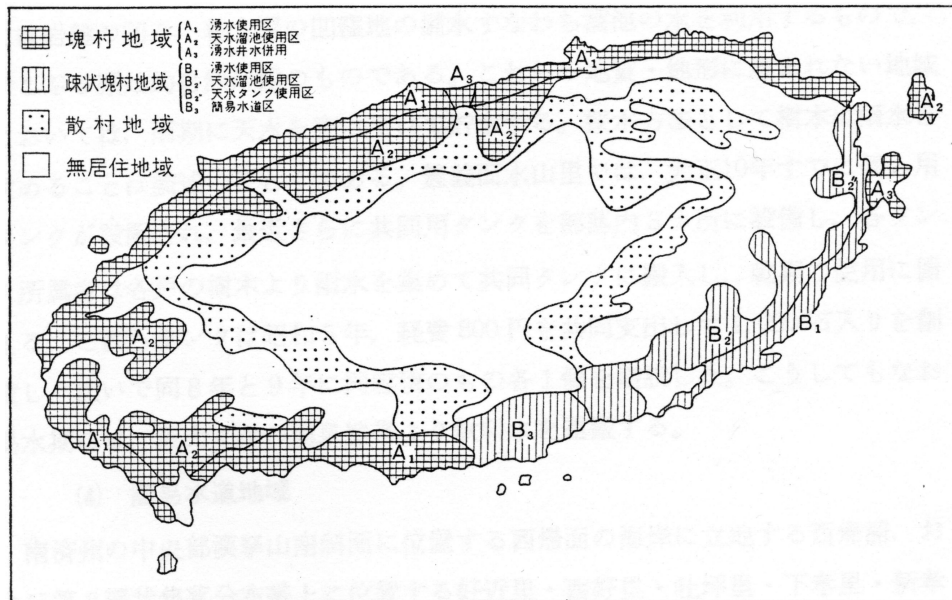


<삽도 3> 『제주읍지』(1780년경)에 나타난 제주인구분포도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현재 가마터가 많이 남아 있는 대정읍과 한경면 일대에는 마을의 형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해 있지 않다. 이는 제주 가마의 분포 지역이 수요지보다는 흙이나 연료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제주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식수를 공급하는 용구로 허벅을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30년대 제주도의 식수공급 방식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마수다이치지[桺田一二]의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그는 1930~38년의 8년간 8번에 걸쳐 200일이 넘는 제주도 답사를 통해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중 마을의 입지조건 중의 중요 요소로 식수 공급에 주목하여, 1930년대의 제주도의 마을과 식수 공급 형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의 취락분포가 해안선 약 250km를 따라 취락집단촌[塊村地域] 및 소상집단촌[疎狀塊村地域]이 분포해 있으며, 이러한 취락 입지조건은 주로 자연적 요인인 식수의 공급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식수 공급방식을 용천(湧天)사용지역·우물물[井戶水]사용지역·천수(天水)사용지역·간이수도지역의 4지역으로 구분하였다.<sup>129)</sup>

129) 桺田一二, 『桺田一二地理學論文集』, 弘詢社, 1976, pp.129~133.



<삽도 4> 취락요소에서 본 제주도의 지역구분

<삽도 4>에서 보이듯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좌우의 해안가와 대정지역 서남해안 임을 알 수 있다. 인구 분포 상황은 1780년대의 제주 인구 상황을 보여주는 <삽도 3>과 거의 유사하나, 대정읍과 한경면 일대가 인구 분포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벅으로 물을 길어 식수로 공급하였던 용천수 사용지역인 A1과 B1은 해안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 지역과 대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육로와 해로가 발달한 지역이기도 했다.

## 2) 허벅의 유통 수단과 방법

허벅의 주요 생산지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평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정읍에 밀집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허벅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지역은 제주도의 해안가를 따라 형성된 전 지역의 마을이 중심으로 이루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

읍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인구 밀집지역으로 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지에서 수요지로의 운송은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서 운송되었다.

제주지역의 도로는 제주목의 읍치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의 구조가 일찍부터 형성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 후 삼읍으로 나누어지면서 대정현·정의현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망이 형성되어져 나갔을 것이다. 즉 제주읍성-정의현성, 제주읍성-대정현성, 정의현성-대정현성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조가 일차적으로 대로를 형성하였다. 이 대로는 주로 제주목사의 순력 등 제주도에서 삼읍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이용되어졌다. 다음으로 각 읍치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중로, 소로 등이 활용되었다.<sup>130)</sup> 이러한 도로망의 상황은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 잘 나타나 있다.<도판 7-①②③④>

육로와 마찬가지로 바닷길을 통한 유통도 이루어졌다. 해로와 관련해서는 1923년도 제작된 「탐라약도(耽羅畧圖)」가 주목된다. 이 지도에 의하면 제주도 내륙항으로 제주, 협재, 하모, 서귀, 표선, 성산, 김녕, 조천 등 8개 항이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도판 36> 주로 해로 운송에 사용되었던 것은 덕판배였다.<도판 37> 덕판배는 못을 박지 않고 순전히 나무로만 만들어진 제주도의 전통배로 화물 수송, 여객선의 수단으로 쓰였다. 굴에서 구워진 질그릇들은 이 배에 실려 해안마다 형성된 포구를 통해 각 마을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있어서 제주도의 해로 운송은 정부로부터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 활발히 운용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조선중기부터 제주에 살던 사람들이 급속히 육지로 빠져나가게 되자, 인조 7년(1629)에 이르러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sup>131)</sup>을 내려 모든 제주민들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었으며, 고깃배는 멀리 갈 수 없는 태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sup>132)</sup> 항로를 이용하여 허벅을 운송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로의 출입항을 조천과 화북으로 제한하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30) 김동진,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131) 『仁祖實錄』 卷21 仁祖 7年(1629) 8月 13日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되자, 비국(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132) 趙誠倫,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 탐라문화연구소, 2005.



을묘(1675) 이후부터 사선(私艇)이 임의대로 출입하자, 섬 안에 역을 피하려는 자들이 가끔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기 때문에 다만 조천포와 화북포에서만 배를 띄우게 허용하였다. 그래서 출항하는 날에는 목사와 군관 한 사람이 장부를 잡고 하나하나 대조하여 부르며 출항기를 작성하였다. 비록 한 사람, 한 필의 말이라도 몰래 숨길 수가 없었으니 간사한 짓을 못하게 막는 규정은 상세하지 않음이 없다.<sup>133)</sup>

을묘(1675)년 이후로 사선(私船)의 자유로운 출입으로 제주 사람들이 역을 피하여 육지로 도망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조천포와 화북포에서만 출항할 수 있게 하였다. 출항할 때에는 목사와 군관이 직접 장부를 대조하면서 일일이 검사를 하며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로 운송을 제한하였던 출륙금지령은 1629년부터 250여년간 계속되다가 조선말기에 이르러 풀리게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까지 배를 이용한 허벌의 운송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육로와 해로를 이용한 용기의 판매는 가마에서 한 굴치를 구워내면 ‘줄고르기<sup>134)</sup>’를 한 후에 가까운 지역은 등짐으로, 먼 곳은 육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말이나 소가 끄는 마차<도판 38>로, 해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덕판배로 이곳저곳에 팔려 다녔다. 굴에서 구워진 그릇들을 판매할 때는 주로 한 줄을 기준으로 유통되었다. 따라서 도공들이 만드는 그릇에는 질서가 있었다. 한 줄치<sup>135)</sup>에 해당하는 그릇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옷통개, 알통개, 허벌, 망대기, 개장태, 소능생이, 대바지, 셋째비장태, 대배기망대기, 애기대배기, 합단지, 조막단지, 독사발 등이다. 한 줄 중에는 조막단지에 코사발(독사발)을 섞어 팔기도 하고, 더 얹어주기도 하였다. 한 줄치에 해당하는 그릇의 종류와 ‘한줄치’ 값을 알아보면 <삽표 5>와 같다.

133) 李增, 『南槎日錄』

“自乙卯以後 私艇任意出入 島中避役者 往往乘艇出陸 故只於朝天火北浦 許令放艇 而放艇之日 則牧使軍官一人 執簿照點 秤爲出艇記 雖一人一馬 不敢潛匿 防奸之規 靡不詳”

134) 한 가마에서 꺼낸 그릇들을 판매될 지역별 또는 구워진 상태별로 선별하고 한 줄, 한 줄 배열하는데 이것을 줄고르기라 한다. 보통 한 가마에서 구워진 그릇은 50~60줄치이다.

135) 유통의 단위 : 한 묶음의 개념



&lt;삽표 5&gt; 한줄치의 값(대정읍 구억리의 경우)

명칭	당시 교환물	쌀보리 (물물 교환을 했음)	도판	비고
웃통개	세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알통개	두말반 - 두말			"
동이	석되			"
허벅	석되			"
개장태	두되 - 한되			"
소능생이	한되반 - 한되			"
망대기	한되반 - 한되			"
대배기	한되반 - 한되			"
셋째비	한되			"
대배기망대기	한되			"
애기대배기	한되			제주특별자치도민속 자연사박물관 소장
조막단지(합단지)	밥그릇으로 하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한 줄은 모두 팔면 총 8말 정도이고 당시 거친 일의 하루일당이 2말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화폐 단위로 환산해보면 약25~30만원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릇을 구워내는 가마 일은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들의 몫이라면 대신 그릇의 판매는 주로 여성의 일이었다. 제주도 대정읍 구억리와 신평리 일대의 아낙들은 향아리장수<sup>136)</sup>가 되어 그릇을 팔러 다녔다. 마을별로 오일장이 서는 날을 맞춰서 다니기도 하고 주문이 있었던 마을을 찾아가 넓은 마당이 있는 곳을 대여한 후 가져온 그릇을 쌓아둔다. 그리고 그 곳을 거점으로 하여

136) 제주도에서는 향아리를 통개라고 불렀다. 그래서 ‘통개장시’라고 했다.

도붓장사<sup>137)</sup>를 하였다.

제주도의 오일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들어섰는지 알 수 없으나, 1793년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대정의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奎17436)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에는 장시(場市)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의 생업은 주로 어업과 농업으로 자급자족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의 발달은 늦어졌으며, 19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육지와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오일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지명에 대한 조사 보고서인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의하면 1910년대에 15개의 시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삽표 6> 『조선지지자료』(1910년경)에 나타난 제주시장

연번	시장명	소재지	비고
1	김녕시장(金寧市場)	제주군 구좌면 김녕리(金寧里)	
2	세화시장(細花市場)	제주군 구좌면 세화리(細花里)	
3	조천장(朝天場)	제주군 신좌면 조천리(朝天里)	
4	읍내장(邑內場)	제주군 중면 삼도리(三徒里)	
5	거석장(擧石場)	제주군 중면 삼양리(三陽里)	
6	애월장(涯月場)	제주군 신우면 애월리(涯月里)	
7	명월장(明月場)	제주군 구우면 명월리(明月里)	
8	두모장(頭毛場)	제주군 구우면 고산리(高山里)	
9	도순시(道順市)	대정군 좌면 강정리(江汀里)	
10	창천시(倉川市)	대정군 중면 창천리(倉川里)	1910년 6월 폐시
11	군내시(郡內市)	대정군 우면 보성리(保城里)	
12	성읍시(城邑市)	정의군 좌면 성읍리(城邑里)	
13	수산시(水山市)	정의군 좌면 수산리(水山里)	
14	의귀시(衣貴市)	정의군 서중면 의귀리(衣貴里)	
15	효돈시(孝敦市)	정의군 우면 하효리(下孝里)	

표에서 보이듯이 당시 제주도에는 제주군에 8개, 대정군에 3개, 정의군에 4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중 창천시는 1910년 6월에 폐시 되었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면서, 도로가 발달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동시에 항구가 있는 지역이거나 항구와 가까운 지역이 대부분 이었다. 따라서 해로와 육로를 통해 운반하여 오일장을 중심으로 허벅을 판매하던 것은 19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활성화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37) “통개 삼씨(항아리 사세요)”, “허벅 삼씨(허벅 사세요)”를 외치며 등짐을 진 채 집집마다 방문하며 판매를 했다.

## IV. 허벅의 조형과 양식

이 장에서는 조선후기의 제주도 용기 중 허벅의 조형과 양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허벅의 제작기법과 제작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제작기술의 특성을 통해 전반적인 조형의 성격을 파악해본 이후에 허벅의 기능과 양식 그리고 허벅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겠다.

### 1. 허벅의 제작기술

#### 1) 재료와 성형준비

도토(陶土)는 붉은 색을 띠는 황토가 1/3, 푸르스름한 회색을 띠는 점토질<sup>138)</sup>을 2/3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한다. 황토는 고온에서 견디는 힘은 좋으나 점력이 없으며, 회색의 점토질은 그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표토에서 점토층이 나오는 깊이까지 윗부분 즉 토양층을 걷어내고 물을 부어서 이긴 후에 운반한다. 이것을 질판<sup>139)</sup> 위에 놓고 메통<sup>140)</sup>으로 내리치며 질 때리기를 한다.<sup>141)</sup><도판 39> 이 과정이 완료되면 질흙을 깎는 낫인 ‘깨끼<sup>142)</sup>’로 얇게 깎아 내듯이 잘라내어 토림판에서 성형할 정도의 크기로 흙을 뭉친다.<도판 40> 뭉쳐진 흙을 넓적한 방망이<sup>143)</sup>로 평평하게 두들겨서 판을 만든 후에 손으로 길게 훑어서 돌려치기를 한다. 이렇게 여

138) 제주의 장인들은 푸르스름한 회색을 띠는 점토를 ‘고냉이춘흙’이라 부른다.

139) 소나무로 제작된 두께가 두꺼운 나무판이다. 점토를 위에 올려놓고 나무망치인 메통으로 때릴 때 쓰인다.

140) 떡메와 같은 형태이며 원통형의 소나무에 자루가 있는 나무망치이다. 흙을 다질 때 사용하며, ‘죇메’, ‘옆메’가 있다. 옆메는 원통의 폭이 죇메보다 작다.

141) 전문적으로 흙을 치는[질 때리는] 사람이 있어서 질흙을 때리거나 자체적으로 품앗이를 했다. 제주도에서는 수비를 하지 않고 바로 태토를 메통으로 다져서 점토 속의 기포를 제거하고 수분의 분포를 고르게 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보통 태토를 묵혀두는데 질흙을 동일조건에서 숙성시키는 것이다.

142) 일반적인 낫 두개를 마주보게 합쳐 놓은 형태이며 손잡이가 양쪽에 있다. 깨끼로 얇게 잘라내면서 질흙 속에 포함된 뭉친 흙덩어리나 불순물을 제거한다.

143) 소나무로 만들었으며 ‘토림막개’라고 부른다. 바닥면에 흙이 있어서 점토가 달라붙지 않고 고르게 퍼지도록 한다.

러 차례 반복하여 긴 직사각형의 흙판을 만드는데 이것을 ‘토림[트래미, 타림]’이라 한다. 토림은 타림의 제주어로 기물성형을 위해 만드는 긴 판장형태의 점토판을 말하며, 이 기법은 내륙에서 ‘체바퀴 타림<sup>144)</sup>’이라고 부른다. 전라도지역에서 주로 행해졌던 방법이며 지금도 전라도 해안지방에서 이 기법으로 제작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체바퀴 타림 기법으로 성형되어 왔지만, 조사가 미흡했거나 알려진 바가 없어 이 기법을 전라도에서만 행해지는 특이한 방법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sup>145)</sup>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전라도에서만 보이는 타림 기법이 제주도에서도 동일기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자제작기술의 유입과 영향관계를 논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제공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 2) 허벅성형과정<sup>146)</sup>

- (1) 바닥판을 만든다.
- (2) 점토판을 끌고루 편 후 타림을 한다.<sup>147)</sup>
  - 허벅을 성형할 때는 보통 95.0×1.4×19.5cm 크기의 쳇바퀴 타림 2개가 소요된다.
- (3) 물레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재<sup>148)</sup>를 물레 위에 놓는다.
  - 완성된 기물의 바닥이 물레에 붙으면 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44) 제주도에서는 장인들 사이의 일부지역에서 ‘너박타림’이라고 불리고 있다. 체바퀴란 용어는 긴 판장형태의 타림을 성형하기 위해 점토바닥 위에 붙여놓은 모양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체’의 형태와 같다고 하여 생겨난 것이다.(2004. 7. 현지조사) 물레 위에 올린 모양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체’의 프레임과 같다고 하여 생겨난 단어라고 한다. 韓政憲, 「甕器 항아리 製作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20.

145) 긴 판장을 5~7cm의 너비로 길이는 1.5~2m로 하여 그릇 벽을 쌓아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러한 기법은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전라도에서만 행해지는 특이한 방법이다. 裴보늬, 「朝鮮時代 嶺南地方 甕器에 관한 研究 -泗川 牛川里 遺蹟을 中心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85.

146) 허벅제작과정은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4호 허벅장(신창현웅)과 제주도예촌에서 협조해 주어서 촬영한 것이다. 제작과정의 용어는 일반화된 대체어가 있으면 바꾸어 표현하지만 특수한 기술어, 작업어는 그대로 사용하며 주를 달았다.

147) 주로 ‘건애꾼’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일이다. 건애꾼이란 바닥판을 만들고 타림을 하며 완성된 기물을 옮겨서 말리고 움집에 재임하는 등 물레대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내륙의 옹기점에서는 ‘거나꾼’, ‘그네똥꾼’, ‘선일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48) 제주에서는 ‘불채’라고 부르며 보리 짚을 태운 재가 좋다고 한다. 내륙에서는 백토가루나 황토가루를 사용한다고 한다.

- (4) 바닥판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물레를 천천히 돌리면서 방망이[바닥막개]로 끌고루 쳐서 편다.
- (5) 방망이 끝에 물을 묻히고 물레를 돌리면서 두 손으로 방망이를 잡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퍼준다.
- (6) 손바닥이나 정금대로 원하는 크기를 정하고 바닥판을 밀가새[밀칼]<sup>149)</sup>로 잘라낸다.
  - 경상도 지역에선 가장칼 이라고도 하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밀가새라 한다.<sup>150)</sup>
- (7) 타림을 규격이 정해진 바닥판 위에 가로로 세워서 올려놓는다.
- (8) 바닥과 첻바퀴 타림의 밑 부분의 접합하는 사이를 떡가래 모양으로 길게 늘여서 점토를 덧붙여준다.<sup>151)</sup>
- (9) 기면의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두께가 고르지 못한 부분에 흙을 덧붙여 준다.<sup>152)</sup>
- (10) 왼손에 조막을 오른손에 수레를 잡고 수레질 한다.<sup>153)</sup>
  - 경상도 지역에선 조막을 돌목·도막·안끄네라고 하며, 전라도 지역에서도 조막이라고 부른다.<sup>154)</sup>

149) 가새칼, 가싱칼, 가장칼이라고도 부르며, 그릇바닥을 바닥정금대로 켜 뒤 밑부분을 잘라낼 때 쓰이고, 완성된 그릇을 들어내기 직전 굽 부분을 정리할 때도 사용하며 소나무로 만든다.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한국옹기와 일본 도자기의 제작기술 비교연구』, 1990, p.35.

150) 羅炳沃, 「全南地域 甕器의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38.  
 朴仙河, 「甕器店의 用語에 關한 考察 -店, 성형, 시유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34.

151) ‘빼비를 준다’고 하며 바닥과 접하는 부분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덧붙여주는 것이다. 내륙에서는 ‘고역두른다’ ‘고역돌린다’고 한다.

152) ‘마음자사를 준다’고 하며 내륙에서는 ‘마음을 준다’고 표현한다.

153) 조막은 수레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수레질을 할 때 기물의 안쪽을 받쳐 두드려 펴주는 역할을 한다. 흙이 닿는 면은 둥글고 다른 쪽은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소나무로 만들며 물레대장이 손에 맞도록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수레는 ‘수레착’이라고도 한다. 수레는 기물의 바깥을 두드려 펴 때 사용하는 도구로 기물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런 행위를 ‘수레질(수레착질)’이라 한다. 소나무로 만들어 사용했다. 조막과 수레의 기물과 닿는 면은 흙을 내서 흙과 도구가 달라붙지 않게 해준다. 조막과 수레 등 도구를 만들 때는 제작용 나무를 벌채한 후 못이나 물통에 오랫동안 넣어서 진을 빼주거나 썩힌 오줌통에 담아둔 후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조막을 내륙에서는 일반적으로 ‘도개’라고 하고 ‘안끄네’라고도 하며 전라도에서는 ‘조막’이라고 부른다. 수레는 가죽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며 경상도에서는 ‘부채’라고 부른다.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1990, p.35.

154) 羅炳沃, 앞의 논문, 1987, p.38.

박선하, 앞의 논문, 1994, p.34.

- (11) 수레질이 된 첫 단 위에 뿔 타림을 올려놓는다.
- (12) 위, 아래 타림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인다.
- (13) 내부에 일정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고르지 못한 부분에 점토를 덧붙여 준다.
- (14) 고르게 원통형으로 수레질을 한다.
- (15) 목 부분<sup>155)</sup>에도 균일하게 점토를 덧붙여 준다.
- (16) 수레질을 아래서부터 다시 하면서 형태를 만든다.
- (17) 안·팍 홀테를 사용하여 홀테질(그릇 표면에 홀테를 대고 물레를 돌리면 표면이 매끄럽게 되며, 기형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한다.<sup>156)</sup>
  - 전라도 지역에서는 속 홀테·밖 홀테라고 한다.<sup>157)</sup>
- (18) 구연을 만들기 위해서 목질<sup>158)</sup>을 떡가래 모양으로 비벼서 경부의 시작점 위에 파리처럼 붙인다. 목질은 몸체를 성형하는 점토보다 수비가 잘 된 입자가 곱고 수분이 많은 점토를 말하며 점력이 좋다.
- (19) 천 물가죽으로 구연부의 형태를 만든다.<sup>159)</sup>
  - 천 물가죽은 광목·모포 등 형질을 잘라 누벼서 사용하는데, 경상도 지역에서는 가죽으로 된 것만 사용하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천 물가죽을 사용한다.<sup>160)</sup>

155) 구연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이며 ‘바우’라고 한다.

156) 내륙에서는 보통 ‘안근개’, ‘바깥근개’라고 하며 ‘근개질한다’라고 표현한다.

157) 羅炳沃, 앞의 논문, 1987, p.38.

박선하, 앞의 논문, 1994, p.35.

158) ‘목질’은 수비가 잘 된 점토를 말하며 가소성이 크다. 동체를 만드는 점토 즉 ‘민질’은 목질에 비해 가소성이 작고 태토가 거칠며 석립의 함량이 많은데, 이것은 수분 증발을 빠르게 하여 수축률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질을 내륙에서는 ‘된질’이라고 한다.

태토의 선택은 성형에 있어 가장 최초의 단계이다. 태토는 입자가 작고 불순물이 없을수록 가소성이 크다. 그러나 입자가 너무 곱거나 태토 속에 수분이 많으면 끈적거리고 연해서 그릇을 빚어 올리기 어렵다. 이러한 태토를 사용하여 소성할 경우 바깥쪽의 수분은 건조 속도가 빠른 반면, 안쪽은 수분이 고운 태토의 입자가 밖으로 스며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기벽의 수축률이 고르지 못해 균열이 생기게 된다. 방유리, 「백제 한성시대 토기 타날 기법에 대한 연구 -이천 설성산성 출토 호·옹류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1, 2004, p.8.

159) 제주도 용기대장들은 ‘부리를 찐다’라고 표현하며, 용기의 성형기법 중 썰질법에 해당한다.

썰질 기법은 소형의 기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흙덩이에 구멍을 뚫거나 혹은 흙가래를 두껍게 붙인 후 물가죽이나 손, 도개로 뽐아 올려 성형하는 방법으로 ‘썰질’이란 용어는 기벽을 위로 가지런히 끌어 올리는 모양이 논갈이 할 때 ‘씨래질’과 비슷한데서 유래한 용어이다. 李鍾昌, 「甕器의 製作技法에 관한 研究 -썰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p.11~14.

160) 羅炳沃, 앞의 논문, 1987, p.38.

박선하, 앞의 논문, 1994, p.36.

- (20) 얇은 가죽으로 섬세하게 구연과 전의 모양을 잡아준다.
- (21) 밀가새[밀칼]로 굽을 잘라내며 저부의 모양을 잡아준다.
- (22) 밖 홀테로 기물의 저부와 동체를 홀테질 한다.
- (23) 보로롱무늬<sup>161)</sup>를 시문한다.
- (24) 견부와 경부사이에 음각시문기법으로 횡선문<sup>162)</sup>과 파상문<sup>163)</sup> 등을 그려 넣는다.
- (25) 물레에서 완성된 허벅을 들어낸다.

허벅성형과정에서 살펴보면 하나의 기물을 제작하는데 성형기법은 수레질 기법과 썰질 기법 2개를 동시에 활용하여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체는 민질 즉 거칠며 석립(石粒)이 많고 가소성이 작은 태토를 사용하여 수레질 기법으로 성형하였고, 구연부는 목질 즉 수비가 잘 되고 가소성이 많은 태토를 사용하여 썰질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각각의 기법에 적당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므로 좁은 경부와 팽만한 견부를 가진 구와 같은 형태의 허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레질 기법과 썰질 기법은 토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연원도 토기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64)</sup> 수레질 기법은 타렴질한 흙가래를 파리 썰

161) 대나무로 얇게 만든 ‘술테’라는 도구를 허벅의 표면에 어긋하게 대고 물레를 돌리면 물레가 돌아가는 방향과 도구를 끌어당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도구가 기물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튀면서 사선 또는 직선으로 무늬를 찍는다. 이때 ‘보로롱~’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보로롱무늬’ 라고 했다. 마치 빗줄기 같기도 하고 빗살무늬와 유사하기도한 문양이며 사선 또는 직선으로 시문된 경우도 있다.

162) 횡선문은 주로 동체의 견부에 톱니모양의 얇은 도구로 2~3, 3~5조의 선으로 시문되어 있는 경우인데, 동체 상·하위 전반에 시문되기도 한다.

163) 파상문도 횡선문과 마찬가지로 동체의 견부에 나타나는 문양이며 견부와 경부 사이에 시문되어 있다. 톱니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문된 파상문은 3~5치구가 1조가 되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횡선문과 동반하여 시문된다.

164) 토기제작기법에 관해서는 단행본, 보고서, 논문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고 다음과 같다.

김원룡, 『신라토기 -한국의 미술 I-』, 열화당, 1981.

최성호·이정호, 「해남 군곡리 패총 출토 토기의 성격 -제작 방법을 중심으로-」, 『전남문화재』 1, 1989.

이기길, 「고려시대 질그릇의 제작기법 연구-물그릇 만들기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질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1991.

서재인, 「안성 화곡리 출토 고려도기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 『고문화』 57, 2001.

방유리, 「백제 한성시대 토기 타날 기법에 대한 연구-이천 설성산성 출토 호·옹류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1, 2004.

福泉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第8次發掘調査』 160~166號, 2008.



기<sup>165)</sup>를 하여 수레질하는 배기 타렴 방법과 판장형태로 늘려 쌓은 후 접합부위를 연결하고 수레질하여 완성하는 체바퀴 타렴 방법 두 가지가 있다.<sup>166)</sup> 허벅성형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라도지역에서만 행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왔던 이 체바퀴 타렴은 제주도에서도 동일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이것은 전라도와 제주도의 도자제작기술의 유입과 확산 등 영향관계가 있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근거요소이다. 또한 제작도구의 명칭과 사용에 있어서도 전라도 지역과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밑을 잘라내는 칼인 밑가새, 기물 내부를 두드리는 조막, 기물 벽을 매끄럽게 다듬는 홀테 등 도구의 명칭과 사용법도 동일했다. 천물가죽처럼 제작 도구 자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같은 것도 있었다. 앞장에서 서술한 문헌상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제주도와 바닷길로 가장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전라도 지역과는 물산의 유통, 기술의 유입, 사람의 왕래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도자제작기술도 이런 과정 중에 유입되고 습득되어 제주도의 성격에 맞게 변화하고 정착되었다고 추정된다.

<삽도 5> 허벅 성형과정



성형 1



성형 2



성형 3

165) 이 방법은 도자기의 코일링 기법과 유사하나 흙가래를 쌓아 올린 후 도개와 수레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기벽을 두드려 형태를 만든다. 한단씩 쌓아서 수레질을 통해 치밀하게 다져지기 때문에 이 방법은 대형 기물을 제작하는데 유리한 방법이다.

166) 북한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인 '치타렴'이 있다. 배기타렴과 타렴하는 방법은 같지만 질죄기를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치어 올려 쌓는 것에 차이가 있다.



성형 4



성형 5



성형 6



성형 7



성형 8



성형 9



성형 10



성형 11



성형 12



성형 13



성형 14



성형 15



성형 16



성형 17



성형 18



성형 19



성형 20



성형 21



성형 22



성형 23



성형 24



성형 25



성형 26



성형 27



성형 28



성형 29



성형 30



성형 31



성형 32



성형 33





성형 34



성형 35



성형 36



성형 37



성형 38



성형 39



성형 40



성형 41



성형 42



성형 43



성형 44



성형 45



성형 46



성형 47



성형 48



성형 49



성형 50



성형 51



성형 52



성형 53

### 3) 건조

완성된 날 그릇 상태의 허벅은 먼저 야외에서 건조한다. 수시로 방향을 바꿔 돌려놓으며 특정 부분만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전 부위가 바짝 마르면 기물을 뒤집어서 굽을 쳐주는데 중앙이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한다. 굽을 쳐주지 않으면 번조할 때에 굽이 팽창되면서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허벅은 잘 말린 후에 바람과 햇빛이 안 드는 움집<sup>167)</sup>에서 음건한다. 마른 기물을 움집 안에 차곡 차곡 쌓아서 재어 놓는다.<sup>168)</sup> 바닥에는 기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나무, 파편 등을 놓고 그 위에 기물을 올려놓는다. 이것은 바닥에도 공기가 통하고 밑으로 올라오는 냉기를 없애기 위해서다.

167) 그릇을 만들고 재어 놓는 작업장을 말하며 보릿짚 등을 이겨서 흙으로 만든 집이다.

168) 이것을 '동켄다'라고 말한다. 굽과 굽, 굽과 구연 등을 마주하며 오랫동안 천천히 건조를 시킨다.

#### 4) 재임

제주도에서는 가마가 계(契)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한 굴치<sup>169)</sup>가 모두 완성되면 계(契)에 한 가마분이 끝났음을 알린다. 그러면 계에서 ‘소임<sup>170)</sup>’이 현장을 확인하고 가마를 사용할 순번을 정한다. 잘 건조된 기물은 가마 안으로 들어간다. 굴대장은 가마 안에 차례로 재임을 한다. 아래는 무겁고 큰 기물을, 위에는 가볍고 작은 기물을 차곡차곡 쌓는다. 고온 산화번조 가마[노랑굴]는 뒤에서 앞으로 재임하고, 환원번조 가마[검은굴]는 앞에서 뒤로 재임을 마친다. 재임시에는 가마의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기물의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납작한 돌을 받치거나 흙으로 만든 개떡인 요도구를 사용한다. 재임된 기물과 기물 사이에는 소라껍질을 놓아주는데 기물을 서로 잡아주거나 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고온 산화번조 가마에서 번조한 기물에만 보이는 현상이며, 내화용 요도구로서 사용한 소라껍질이 하나의 문양을 이루어 낸 특징이다.<도판 41> 포개구이를 하지만 고온에서 산화번조하는 경우는 기물이 서로 붙지 않도록 조개껍질을 부수어 아래 재임되는 기물의 전 부위에 사방으로 놓아준다.<도판 42-①②> 내륙에서는 조개껍질 받침흔은 17~18세기 중반 유적인 하동 고이리 출토 웅기편에서는 나타나지만 18세기 이후 칠곡 가천동 출토 유물에서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18세기 이후로는 굵은 모래를 사용하거나 시유하지 않은 뚜껑을 포개구이 하는 기물 사이에 넣어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71)</sup>

#### 5) 번조

고온 산화번조를 중심으로 번조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재임이 끝나면 출입구를 막고 불대장이 가마를 굽는다. 6명이 교대하면서 번조를 했고 번조는 피움불 → 작은불 → 중불 → 큰불 → 잿불질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제주도의 도기

169) 그릇이 한 가마에 들어가서 구워질 분량을 ‘한 굴치’라고 한다. 한 가마의 분량을 다 만들었는지를 물어볼 때는 “한 굴치 마쳐수광?” 또는 “조막 떼어수광?”[마쳤나요?][마쳤나요?]이라고 묻고 물레대장은 “조막 떼었저”라고 답한다.

170) 계의 임원이며 심부름 등 잡일을 주로 한다.

171) 裴보녀, 앞의 논문, pp.92~96.

제작은 분업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급냉과 급열이 기물과 가마에는 가장 좋지 않으므로 피움불에서 작은불까지는 서서히 열을 올린다. 중불부터는 화력이 세지기 시작하며 큰불에서는 소요되는 연료량도 많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번조시간은 대략 6~7시간 정도이다. 번조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조를 이루어 양쪽 잿불구멍 앞에 마주서서 동시에 잿불질을 한다. 앞에서부터 하여 뒤에서 끝나며 잿불질이 끝나면 번조가 완료되는 것이다. 번조단계별로 연료가 다르고 고온에서 소요되는 연료량이 많기 때문에 번조시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연료의 수급이다.



## 2. 허벅의 기능과 양식

### 1) 허벅의 기능과 조형미

허벅은 제주도에서 물을 길고 다니는데 쓰였던 운반용기였다.<sup>172)</sup> 머리에 이지 않고 ‘구덕’이라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허벅을 넣어 멜빵으로 등에 지고 다녔다. 허벅은 크기별로 제작되어 식수를 운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그것을 넣고 다녔던 대바구니의 크기도 달랐다.<sup>173)</sup> 허벅은 구경이 좁고, 견부와 동체 사이가 가장 팽만하며 저부로 내려가면서 좁아지고, 굽은 평저(平底)형의 형태이다. 허벅의 동체는 가소성이 비교적 적은 점토<sup>174)</sup>로 성형되었다면, 구연부는 동체에 비해 가소성이 많은 점토<sup>175)</sup>를 견부에서 덧붙이고 접합하여 성형하였다.<성형 38~39> 이런 성형방법<sup>176)</sup>이 최대의 어깨외경과 좁은 구경을 가진 구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허벅은 기능에서 나온 형태였다. 즉 물을 채우고 등짐운반 함에 있어 뒤로 기울어짐을 막기 위해 어깨를 최대한 팽만하게 하여 기물상부에 무게중심을 두었으며 물의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견부가 좁은 형태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허벅의 팽만한 동체와 좁은 구경은 공명통으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구순부와 동체를 손으로 두드리며 강약을 조절하여 소리는 내는 악기의 기능도 하였다.<sup>177)</sup> 필요에 의해 형태변화를 시켜나가는데 시대가 변천해도 형태에 있어 그 기본적인 느낌과 감각은 거의 동일하다. 오랜 세월을 두고 형이 변치 않

172) 고은 산화변조 허벅은 양식이 세분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 변화였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와 기능은 물 길는 용도였다.

173) ‘물구덕’이라 한다. 물을 길고 지어 나르는 구덕이라는 말이다. 거의 장방형으로 만들었고 42.5×22 정도의 크기이며 바닥에는 왕대 쪼갠 것을 엮어 붙였다. 이것을 ‘창받음’이라고 한다. 그 래야 ‘물구덕’도 쉬 헐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고 다니는 멜빵을 걸어도 쉬 빠지지 않는다. ‘대바지 구덕’은 허벅보다 작은 식수 운반용구인 대바지를 넣어서 어린 소녀들이 지고 다녔던 것이다. 따라서 이 구덕은 허벅을 지어 나르는 ‘물구덕’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크기는 40.3×18.8 정도이다. 고평민, 『한국의 바구니』,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174) ‘민질’이라고 통용된다. 입자가 거칠고 유기물 등 사질이 함유되었으며 수분함량이 비교적 작은 딱딱한 상태의 점토이다.

175) ‘목질’이라고 통용되며 수비가 잘 된 입자가 굵고 수분이 많은 점토이다.

176) 제주도내의 관련 학계에서는 유일한 성형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5~16세기에 해당하는 사천 우천리 출토의 병의 견부 내면에 성형시 견부에서 점토를 덧붙여 접합하여 성형한 흔적이 두드러진다고 보고되었다. 경남문화재연구원,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도요지 시굴조사 결과약보고』, 2003.

177) 제주도, 『제주어사전』, 1995, pp.588~589.

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며 그렇게 된 까닭에 살아 있는 것이다.<sup>178)</sup> 제주장인(匠人)들 사이에 통했던 ‘좁으면서 배부르게[코조룩 흐멍 타부룩 흐게]’라고 상징되는 허벅 성형의 정의<sup>179)</sup>는 오랜 세월을 두고 그렇게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능에서 형성된 조형적 미감(美感)을 가장 함축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허벅은 조형미가 빼어나게 잘 만들어진 것이 무게도 가볍고 기능적으로도 뛰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도 허벅을 선별함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성향은 허벅이 완상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벅의 조형미(造形美)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것은 허벅에 대한 제주인의 미의식의 발로이다.

환원번조 허벅도 주 기능은 물 운반용으로도 사용되었고 크기별로 세분화되어 제작되었다. 고온 산화번조 허벅에 비하면 저온에서 번조되어서 통기성이 양호함으로 씨앗 보관 등 건조한 내용물을 보관하는 용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 2) 허벅의 기본양식

허벅은 앞에서 살펴본 고온 산화번조와 환원번조 두 종류의 가마에서 생산되었다. 따라서 생산된 허벅은 번조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각각 고유의 특성을 지닌다. 먼저 공통으로 나타나는 허벅의 기본양식을 알아보고 번조방식에 따른 서로 다른 특성을 살펴보겠다.

허벅의 크기(I-b형식)<sup>180)</sup>는 대체로 높이 35~40cm, 구연최대지름 10~11cm, 밑지름 19~22cm, 동체 최대직경 32~36cm 이다. 견부에서 좁아져 목이 급격하게 좁아진 구경의 직경은 9~10cm이고, 경부 높이는 5.5~6.5cm 정도이다. 허벅의 구경은 어른 손을 집어넣어 ‘ㄴ’자로 잡을 수 있는 크기이며 견부와 경부의 접합지점은 거의 직각을 이루는 형태이다.<sup>181)</sup> 경부는 역사다리 형태로 외반하며 구순단은

178) Paul Jacques Grillo 저·安秉義·金光文 역, 『What is Design?』, 理工産業社, 1974, p.77.

179) “허벅은 코조룩 흐멍 타부룩 흐게 맨들어서...(좁으면서 배부르게 만들어야...)”는 제주 옹기대장들 사이에 통했던 허벅 성형의 정의이다. 뜻풀이를 위해 괄호의 내용으로 풀어썼지만 그러나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180) 성인용의 일반적인 크기이며 뒷장에서 다뤄지는 구연부 유형별 허벅의 분류기준과 크기별 분류 현황<삽표 8>을 참조.

181) 직각을 이루는 것은 어른 손이 구경으로 들어가 ‘ㄴ’자의 형태로 경부를 잡을 때 미끄러짐을 방

편평하다.

허벅에 사용된 시문기법은 음각이며 나타나는 문양은 횡선문(橫線文)<도판 43>, 파상문(波狀文)<도판 44>, 빗살문[縱線文]<도판 45> 등이 있다.<삽표 7>

<삽표 7> 허벅에 시문된 문양

유형	문양	시문형태	도판
I	횡선문	2~3, 3~5조의 선으로 시문되는 형태	
II	파상문	3~5치구로 시문되는 형태	
III	빗살문[종선문]	세로방향으로 타날 기법처럼 시문되는 형태	

※ 소장처 : I・II(국립민속박물관), III(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음각 횡선문은 주로 동체의 견부에 2~3, 3~5조의 선으로 시문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동체 상·하위 전반에 시문되기도 한다. 견부에 시문된 경우는 보통 1단이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2~3단으로 구획되어 시문되어 있다. 동체에 전반적으로 시문된 경우는 일정한 형식이 없고 자유롭다.

파상문도 횡선문과 마찬가지로 동체의 견부에 나타나는 문양이며 견부와 경부 사이에 시문되어 있으며 동체 하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톱니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문된 파상문은 3~5치구로 나타나며 대부분 횡선문과 동반하여 시문되어 있으나 파상문만 시문된 경우도 있다.<도판 46> 횡선문이 2~3단으로 구획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그 사이에 시문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빗살문[종선문(縱線文), 보로롱문]은 0.1~0.2cm 정도의 사선 또는 직선이 동체 견부와 배면부 전반에 걸쳐서 시문되어 있다. 두께가 얇은 시문도구를 이용하여 기물

지하기 위해서이다. 허벅에 물 갠기를 할 때 기물표면에 물이 스며들어 미끄럽기 때문에 곡선을 이루면 힘을 받지 못해서 놓치기 쉬워 각진 형태로 성형된 것이다.

표면에 세로방향으로 타날 기법처럼 표현하였으며, 기물의 저부에는 시문하지 않았다. 이 문양은 물레를 회전하며 동체의 저부에서 상부의 방향으로 시문하는데, 저부에 문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문도구가 저부로 갈수록 물레와 맞닿아서 시문이 어렵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배면부의 곡면 정도에 따라 종선문의 시문길이가 다르다. 일명 ‘보로롱무늬<sup>182)</sup>’라고 하는 빗살무늬와 유사한 이 문양은 허벅의 양식을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이다.

### (1) 고온 산화변조 허벅

고온 산화변조 허벅의 양식을 대표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시유하지 않은 채 고온에서 산화변조를 했다는 것이다.<도판 47> 일반적으로 옹기는 잿물을 바른 갈색유 상태의 것을 말한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유적으로 추정되는 울산 천전리 유적, 울산 방리 유적, 사천 류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영남지방 도기에 살펴보면 내륙에서는 잿물[유약(釉藥)]을 바른 갈색유의 시유도기<sup>183)</sup>를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sup>184)</sup>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고온 산화변조의 무유도기를 최근까지 계속해서 생산했던 것이다. 변조(燔造)를 통해 태토가 스스로 자화(磁化)되고 땀나무에 의한 자연유(自然釉)<sup>185)</sup>나 태토 자체의 성질과 가마 속 불길의 동선에 따라 예측불허의 표면색감<sup>186)</sup>들이 나타났다. 이런 자연유의 색

182) 제작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나무로 얇게 만든 ‘술테’라는 도구를 허벅의 표면에 어긋하게 대고 물레를 돌리면 물레가 돌아가는 방향과 도구를 끌어당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도구가 기물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탁탁 튀면서 사선 또는 직선으로 무늬를 찍는다. 이때 ‘보로롱~’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보로롱무늬’라고 했다. 분업화된 작업에서 이 소리는 물레대장이 성형이 끝났음을 알리고 견예꾼이 성형된 허벅을 받아줄 준비를 하라는 서로의 약속의 신호이기도 했다.

183) 잿물을 바른 시유도기 사례들은 다음 보고서들이 참조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산 천전리유적(Ⅰ)』, 2004.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수자원공사, 『蔚山下三亭遺蹟·芳里甕器窯址-蔚山圈光域上水道(大谷潭)事業編入敷地内3次發掘調査-』, 2007.

경상대학교박물관, 『사천 류천리 제민장치』, 1996.

184) 조선후기 옹기는 시유의 두께가 두꺼워지며 또한 유색이 전기의 밝은 녹색에서 점차 암갈색 또는 적갈색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裴보늬, 앞의 논문, 2006, p.97.

185) 도기를 구울 때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가마 안에서 연료의 재(灰)가 떨어져 태토의 성분과 화합하여 기물 표면에 유리질이 저절로 생성된 것이다. 일종의 회유(灰釉)로서 자연회유라고도 한다. 정동훈, 『도자예술용어사전』, 도서출판(주)윌간세라믹스, 1996.

186) 이것을 요변(窯變)이라고 한다. 한 기물에 산화와 환원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

감을 얻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화산회토인 흙의 특성과 현무암으로 축조된 내화(耐火)시설물인 가마에서 번조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가마환경이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도판 48-50>

이렇듯 제주도에서 잿물을 바르지 않고 고온에서 무유상태로 번조한 기물 즉, 고온 산화번조 무유옹기(高溫酸化燔造無釉甕器)의 제작기술은 현재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아이치현[愛知縣]의 도코나메요[常滑窯], 오카야마현[岡山縣]의 비젠요[備前窯], 효고현[兵庫縣]의 단바요[丹波窯], 시가현[滋賀縣]의 시가라키요[信樂窯], 후쿠이현[福井縣]의 에치젠요[越前窯] 등에서는 지금도 생산하고 있다.<sup>187)</sup> 비젠, 단바, 도코나메, 에치젠, 시가라키, 세토를 육고요(六古窯)라 부르고 이 가마들에서 생산된 것들을 석기로 분류한다.<sup>188)</sup> 이 가마들에서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야키시메 항아리, 접시, 다완, 차도구 등이 구워지고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琉球]의 아라야치[荒窯], 난세이제도[南西諸島] 일대에 유통되던 토쿠노시마[徳之島], 카무이야키(カムイヤキ)요의 스에키[須恵器] 등도 유사성을 띠고 있다. 이 중에서 도코나메, 에치젠, 단바, 시가라키는 자기계 중세도기(瓷器系 中世陶器)이고 비젠은 스에키계 중세도기[須恵器系 中世陶器]에 해당한다. 자기계 중세도기의 소성은, 불을 지피는 화구의 안쪽 중앙에 분염주(分炎柱)라고 불리는 기둥이 설치된 가마에서 행해져, 산화염소성(酸化焰燒成) 때문에 도기 표면이 적갈색을 띠는 제품이 많다. 중세 일본에서는 회유(灰釉)나 흑유(黑釉)가 사용된 상질의 고급도기는 아이치현[愛知縣]의 세토요[戸窯]와 그 주변지역에서만

혀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187)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 전기까지는 중세부터 이어져 온 도코나메, 비젠, 에치젠, 단바, 시가라키 등에서 생산된 독이나 항아리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지만, 에도시대가 되면 식산흥업(殖産興業)을 위해서 새롭게 조성된 동일본이나 동북지역 등에서 새롭게 연요업지에서도 독이나 항아리가 생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흥생산지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유통은 지역적인 것에 머물렀고, 도코나메, 비젠, 에치젠 등의 제품은 전국적인 광역유통을 유지하면서 메이지시대(明治時代) 이후에도 계속 생산되었다. 모리 다츠야[森達也], 『일본의 독(甕)과 항아리(壺)』,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국제학술집』,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영남대학교 박물관, 2009, pp.80~82.

188) 육고요(六古窯)는 1955년 고타마 후지오[小山富士夫]가 쓰기 시작한 용어로 헤이안시대(782~1190)에 시작된 새로운 도자를 일괄해서 부르는 말이다. 석기(石器)라는 글자는 중국 한자에는 없는 문자다. 구워서 돌처럼 된 것을 전부 석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1000~1200도에서 구워진 것을 석기라고 하며 그런 점에서 육안으로 보아 자기라고 부르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석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석기는 미적으로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만족에 따라 미적 가치관이 다르므로 해석이 다르다. 영어 stoneware에 해당한다. 미스기 다카토시[三杉隆敏] 저·김인규 역, 『동서도자교류사-마이센으로 가는 길』, 놀와, 2001, p.24.

제작되었으며, 그 외의 요업지에서는 주로 무유로 구워진 독이나 항아리·사발 그릇 등의 실용적인 용기류가 주로 생산되었다.<sup>189)</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의 자기계열의 중세도기 가마구조에 고온 산화변조 가마의 살창기둥[불벽]과 유사한 분염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과, 무유로 산화변조하여 제품이 적갈색을 띠는 것이다. 즉, 가마의 구조와 제작기법이 유사하고 변조된 기물표면이 제주도 용기와 유사하다. 재료와 제작기법의 특성은 작품의 제작 배경이 되는 시대사조나 대내외 문물교류, 작가의 성향 등과 비교할 때 시간의 변화에 대해 둔감하다. 즉 주변의 다른 요소 등이 변화해도 제작기술과 재료는 이와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sup>190)</sup>

그러나 제작지의 자연적 특성, 소비성향, 가마의 축조재료, 점토의 성질, 제작도구 등의 조건과 상황에 따른 제작기법의 이해 없이는 양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향후 비교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고온 산화변조 허벅은 가마내부 재임의 위치에 따라 변조 후의 형태와 색감이 달랐다. 내화받침 없이 포개구이를 하기 때문에 허벅의 구연부를 보호하고 그 위에 다시 허벅을 재임하기 위해서 ‘개장태<sup>191)</sup>’라는 기물을 허벅 위에 덮고 변조했다. 그래서 덮고 구운 것과 덮지 않고 구운 것이 양식적 차이가 있다.<sup>192)</sup> <도판 51> 즉 덮지 않고 그대로 변조한 것은 기물표면의 색감이 고온 산화변조된 자연유 상태가 거의 균일하게 나타나지만, 그와 반대인 경우는 같은 기물표면이 다르게 나타난다. 덮개가 씌워졌던 기물표면에는 불길의 직접 닿지 않았으므로 광택이 없는 태토의 붉은 색감을 나타내고 그 외의 표면은 광택이 있는 자연유의 상태를 띠어 덮개를 씌웠던 부분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또 덮개를 덮고 변조했던 허벅은 동체의 표면이 고르지 않고 덮개를 씌웠던 부분이 조금 돌출되어있다. 이것은 덮개 위에 허벅 등 기물을 다시 재임하고 구웠기 때문에 변조되는 과정에서

189) 스에키계 중세도기는 고분시대 중기부터 나라 헤이안시대로 이어져 온 스에키의 기술을 계승한 도기로써, 분염주가 없는 가마에서 환원염소성이 이루어져, 도기는 청회색이나 암회색을 띠고 있다. 모리 다츠야[森達也], 앞의 논문, 2009.

190) 제작기법과 재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예술의지 표출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들은 자연적 특성과 결합하거나 상호 영향 관계를 통해 작품의 독특한 양식이 생기도록 주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방병선, 「미술작품, ‘무엇’으로 ‘어떻게’ 제작되었을까 -그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론-」, 『미술사와 교육』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15회 전국학술대회-, 2004.

191) 운두가 낮고 구연이 넓은 형태이며 닛그릇의 양편과 유사하다.

192) 덮개를 덮지 않고 변조한 것을 ‘웃데기허벅’, 반대로 덮고 변조한 것을 ‘알데기허벅’이라고 하며 구입가격에도 차이가 있었다. 덮지 않고 구운 허벅의 비용이 더 나갔다.



압력이 작용하여 덮개 주변으로 주저앉아 생긴 형태인 것이다.

## (2) 환원번조 허벅

환원번조 허벅은 기와를 굽는 방법과 유사하게 번조된 것이다. 번조의 마무리 단계에서 연료를 가득 집어넣고 가마를 밀폐시키면 가마내부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기물표면에 스며들어 완성된 기물은 회흑색(灰黑色), 회청색(灰青色)의 경질도기(硬質陶器)로 나타난다.<도판 52> 이러한 방식으로 번조된 허벅을 환원번조 가마[검은굴]에서 구워졌다고 하여 ‘검은 허벅’ 또는 ‘지새 허벅’이라고 한다. 겉 표면은 광택이 없으며 간간히 유약처럼 보이는 유리질 표면은 대부분 가마에서 구울 때 재(灰)가 기물표면에 떨어져 흘러내린 회유(灰釉)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다. 고온 산화번조 허벅보다 낮은 온도에서 번조됨으로 강도가 약하고 쉽게 파손되어 고온 산화번조 허벅이 생산되면서 환원번조 허벅의 사용량도 점차 줄어들어 밀려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 가마터의 수량도 고온 산화번조 가마에 비교하면 극히 적은 것처럼 전세품의 수량과 수습과편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은 이를 실증해준다. 이것은 전체적인 도자의 수요 경향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사회의 변화와 의식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일반 백자로 기존 생활기명을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산되었던 것처럼, 옹기의 질 역시 보다 향상되자 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 무유도기에 비해 고급도기로 분류되는 시유도기와 같이, 기존의 도기 항아리에 잿물 유약을 시유하는 것 역시 조금 더 고급화되고 발전적인 것으로, 잿물 시유옹기는 생산된 이후로부터 유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93)</sup> 18세기 이후 기존의 질그릇 역시 꾸준히 사용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유약 바른 옹기의 비중이 더 커지면서 회흑색의 경질도기들은 그 양에 있어서 시유된 옹기류에 점차 밀려나게 되어 적게 제작되었다.<sup>194)</sup>

193) 민경은, 「옹기점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27.

194) 조선 후기의 도기들은 시유된 흑갈색의 다양한 옹기류들이 생활에 널리 쓰였으며, 회흑색의 경질·연질 도기류 역시 옹기류의 기형이나 백자의 기형을 본받아 제작되어 생활에 요긴하게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회흑색의 경질도기들은 그 양에 있어서 시유된 옹기류에 점차 밀려나게 되어 적게 제작되었고, 시루 등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윤용이, 「고려·조선시대 질그릇」, 『고려·조선시대 질그릇과 사기그릇전 기념 박물관 강좌-우리나라와 중국도자의 흐름』, 연세대학교박물관, 2002, p.17.



고온 산화변조 허벅에 비교해 저화도에서 변조되어 강도는 약하지만 통기성이 좋아서 보관용으로 활용되었다. 환원변조 허벅의 시문기법과 문양은 앞에서 허벅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음각기법으로 시문되었고 횡선문, 파상문, 빗살문[종선문]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료에서는 일반적 크기의 유형에는 파상문이 나타나지 않으며, 변형된 유형에서만 파상문이 나타난다. 그 파상문은 1~2치구로 시문된 형태이고 횡선문과 동반되어 나타난다. 또한 장신호 같은 변형된 유형에서는 빗살문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환원변조의 그릇은 고려도기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변조된 그릇을 제주에서는 지새허벅, 지새항, 지새단지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데 ‘지새’라 불리는 용어는 기와의 고어인 ‘디새’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1527년 최세진이 지은 한자학습서인 『훈몽자회』에 瓦를 ‘디새와’로, 陶를 ‘딜구을도’로, 罐을 ‘단디관’, 盆을 ‘딜동희분’이라 한글 표현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sup>195)</sup> 이것이 발음변화<sup>196)</sup>로 ‘디새’가 ‘지새’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환원변조 가마[검은굴]가 변조하는 방법이 기와를 굽는 방식과 같고 가마의 형태와 구조도 유사하여 초기의 ‘지새허벅’ 등 도기의 생산은 기와가마에서 시작하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앞에서 문헌기록을 통해 제주도 가마의 유래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와제작기술은 조선 초·중기에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17세기 후반 경에는 자체의 기술로 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와가 아닌 그릇을 이 기와가마에서 동일한 변조방식으로 변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시원적이 형태로 보이는 것이 정의현 객사터에서 발굴된 도기호<도판 53>가 아닐까 추측된다. 또한 다음의 보고서와 학회자료는 이 가능성을 뒷받침 해준다. 백제시대의 가마인 부여 정암리와 청양 왕진리의 경우, 기와와 질그릇이 함께 구워진 사례로 보고된 바 있으며,<sup>197)</sup> 쓰임새가 전혀 다른 기와와 질그릇이 백제시대에 한 가마에서 구워졌다면, 200~300℃의 온도차를 보이는 조선시대 경질과 연질의 도기나, 기와·전돌은

195) 최세진, 『훈몽자회』, 조선광문회, 1913.

196) 구개음화와 같은 발음변화 현상이라 생각된다. 구개음화(口蓋音化)는 끝소리가 ‘ㄷ’, ‘ㄷ’인 형태소가 모음 ‘ㅣ’ 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형식 형태소 ‘ㅎ’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ㄷ’ ‘ㅊ’이 되는 현상.

197) 김성구, 『청양 왕진리 가마터 조사보고』, 국립부여박물관, 1992.

김성구·신광섭, 『부여 정암리 가마터 조사보고』, 국립부여박물관, 1992.

국립중앙박물관·국립부여박물관, 『청양 왕진리 가마터』, 2008.

한 가마에서 구워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겨진다.<sup>198)</sup>

새로운 도자기기술이 유입될 때, 가마제작기술과 성형기술이 동시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품만 유입되거나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만 유입되어, 번조는 이미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기존 가마를 이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은 새로운 도자기기술이 가마제작기술부터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품, 즉 제품만 유입이 되어 견본으로 제시되면 전통가마에서 원료만 바꾸어 그 생산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도자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발전시켜갔다<sup>199)</sup>고 볼 수 있다는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초기는 현지에서 운영하던 기와가마에서 생산하였으나 이런 과정에서 번조와 가마기술의 진보로 환원번조의 구조에 맞게 변해갔으며 점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고온 산화번조의 기술로 발전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온 산화번조 가마를 제작 설치하여 기형은 환원번조 기형에서 비롯되어 추가하고 변화된 고온 산화번조의 기물을 생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제주도 가마터를 조사한 결과<sup>200)</sup>, 기와가마터에서 환원번조 도기편을 수습할 수 있었고, 환원번조 가마가 근거리에서 위치하며, 환원번조 가마는 고온 산화번조 가마와 동반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에 해당하는 울산 천전리 웅기가마터에서 함께 조사된 유구는 와요 10기, 미완성 와요 2기, 웅기 폐기장 3개소, 웅기관련 작업장 1개소와 웅기 회구부 1개소, 웅기관련 구상유구 1기 등이다. 이 가마터에서 조사된 내용은 기와가마와 웅기가마가 동반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sup>201)</sup> 그리고 환원번조 가마와 고온 산화번조 가마에서 동시에 생산, 즉 같은 기술진이 함께 생산하는 겸업<sup>202)</sup>을 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198) 문희수·이기길, 「조선시대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재료와 구운온도 분석」, 『한국고고학보』 제34호, 한국고고학회, 1996.

199) 전통도기가마에서 고급자기인 청자를 생산하였다는 삼흥리 요지의 발굴조사내용은 한국도자기 제작기술사에서 전통적인 기술기반과 새로운 도자기 생산기술의 접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규명하는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나선화, 「강진 삼흥리 도기 가마 발굴의 성격과 의의」, 『천년의 세월, 그 빛, 날다』, 국립광주박물관, 2006, pp.72~73.

200) 이경효, 『제주도의 가마』, 태한인쇄사, 1995.

20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산 천전리유적(I)』, 2004.

202) 같은 기술진이 함께 생산하는 경우(여기서는 도기와 청자와의 관계이지만 고온 번조의 기술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유사할 것이라 판단된다), 장남원, 「강진 삼흥리 도요지의 성격과 출토유물」, 『천년의 세월, 그 빛, 날다』, 국립광주박물관, 2006, pp.75~76.

### 3. 허벅의 양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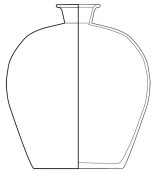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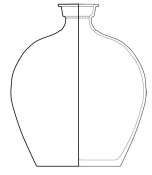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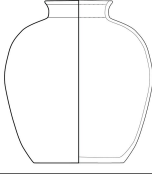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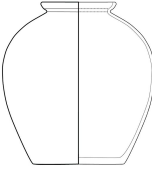
앞에서 허벅의 기능과 크기, 형태, 문양 등 허벅의 기본양식을 살펴보았다. 허벅은 기능에서 나온 형태였다. 따라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변화하여 그 기종이 세분화되었고 종류도 다양하였다. 이 장에서는 허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양식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고온 산화변조 허벅

먼저 허벅을 구연의 유형별로 분류해 보겠다. 허벅은 기본적인 양식이 유사하지만 경부가 높고 낮음·넓고 좁음에 따라 구연과 동체의 형태 차이가 있으며 명칭 또한 다르다. 구연의 유형별로 허벅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이 좁으며 견부와 경부의 접합지점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역사다리형으로 외반하는 형태 I류, 이것은 기본적인 양식의 허벅에 해당한다. 목이 급격하게 좁아지며 반구형처럼 경부에 단이 있는 형태 II류, 경부가 넓고 3.5~4.5cm 정도로 낮으며 외반하는 형태 III류, 구연 아래에 2~3cm 가량 경부가 형성되어 낮고 넓으며 동체로 이어지는 부분이 각을 이루고 경부가 가장 낮고 넓으며 외반하는 형태 IV류가 있다.<sup>203)</sup><삽표 8>

203) 구연의 유형별로 허벅을 분류하면 I~IV류로 나눌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형태별로 구분하여 부르는 명칭이 있다. I류는 기본적인 양식의 ‘허벅’이고, II류는 허벅보다 목이 더 좁고 구연에 단이 있어서 반구형과 유사한 모양이며 ‘등덜기’라 부른다. III류는 허벅구연처럼 생겼는데 구연이 낮고 넓은 형태로 외반하며 ‘방춘이’라고 한다. IV류는 구연 아래에 2~3cm 가량 경부가 형성되어 낮고 넓으며 동체로 이어지는 부분이 각을 이루며 외반하는 형태이며 ‘등생이’라고 칭한다. 이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구연이 가장 낮고 넓다.

&lt;삽표 8&gt; 구연 유형별 허벅의 분류 기준

기종	유형	형태	도판
허벅 (고온 산화번조)	I 류	목이 좁고, 건부와 경부의 접합지 점은 거의 직각을 이루며 역사다 리형으로 외반하는 형태	
	II 류	목이 급격하게 좁아지며 반구형처 럼 경부에 단이 있는 형태	
	III 류	경부가 넓고 3.5~4.5cm 정도로 낮 으며 외반하는 형태	
	IV 류	경부가 넓고 구연 아래에 2~3cm 가량 형성되어 낮으며 동체로 이 어지는 부분이 각을 이루며 외반 하는 형태	



또한 허벅의 구연 유형별 분류 중 I 류를 기준으로 하여 크기별로 나누면 네 개의 유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삽표 9> 특별히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서 주문하여 제작했던 크기가 가장 큰 허벅 a식<sup>204)</sup>, 성인들이 지고 다녔던 일반적인 크기의 허벅 b식, 15~17세의 소녀들이 물 길러 다닐 때 사용했던 ‘대배기’라 불리는 허벅보다 작은 c식<sup>205)</sup>, 그리고 c식 보다 작은 어린아이용인 d식<sup>206)</sup>이 있다.

204) ‘바릇허벅’ 이라고 한다. ‘맞춤허벅’이라고도 불리는 크기가 가장 큰 허벅이다. 보통은 부녀자가 허벅에 물을 길러 다녔는데 집의 대소사 등 남자가 물을 길러 다닐 경우에 사용했던 허벅이다.

205) 허벅보다 작으며 ‘대배기’ 또는 ‘대바지’ 라고 한다.

206) ‘애기대배기’라고 한다. 어린아이가 물을 길러 다닐 때 사용하기도 했고 또는 일하러 야외로 나갈 때 식수를 담고 다녔던 용도이다.

&lt;삽표 9&gt; 크기별 허벅 분류(구연 유형별 분류 중 I 류 기준)









기종	유형	크기			도판
		높이	구연 지름	밑지름	
허벅 (고온 산화번조)	a식	48~55cm	12~15cm	24~31cm	
	b식	35~40cm	10~11cm	19~22cm	
	c식	29~29.5cm	8.5~9cm	16.5~17.5cm	
	d식	23~25cm	7~8cm	13.5~15cm	








※ 소장처 : a식·c식(국립민속박물관), b식(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d식(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이와 같이 크기별로 나누어진 네 개의 유형은 구연 유형별 허벅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I~IV류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구연 유형별 허벅의 분류기준과 크기별 분류를 적용하면 16종이어야 하지만, IV류 d식이 나타나지 않아 15종<sup>207)</sup>에 해당하며 그 현황은 <삽표 10>과 같다.

207) 내용상 16개여야 하지만 IV류d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능과 용도에서 IV류d식(애기대배기능생이)은 단지류 등 다른 기물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생산이 되었어도 소량이어서 전세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lt;삽표 10&gt; 구연 유형별 허벅의 분류기준과 크기별 분류 현황

기종	유형		크기(단위 : cm)			도판
			높이	구연지름	밑지름	
허벅 (고온 산화번조)	I	a	48~55	12~15	24~31	
		b	35~40	10~11	19~22	
		c	29~29.5	8.5~9	16.5~17.5	
		d	23~25	7~8	13.5~15	
	II	a	43.4	13.8	22.8	
		b	40~43	8~10	20~22	
		c	34.5	9	17.5	
		d	27~30	8	14~16	

기종	유형		크기(단위 : cm)			도판
			높이	구연지름	밑지름	
허벅 (고온 산화번조)	Ⅲ	a	52.8	17.8	26.9	
		b	35~37	15~18	20~24	
		c	26.5	14.5	19	
		d	21	14	16.5	
	Ⅳ	a	39	21	22.5	
		b	34~38	15~20	18~22	
		c	29.5	19	20	

※ 소장처 : Ⅰ-a · Ⅰ-c · Ⅱ-d · Ⅲ-b · Ⅲ-c · Ⅲ-d · Ⅳ-a · Ⅳ-b · Ⅳ-c(국립민속박물관), Ⅱ-b(국립제주박물관), Ⅰ-b · Ⅰ-d · Ⅱ-a · Ⅲ-a(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Ⅱ-c(제주대학교박물관)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허벅은 구연의 유형별로 네 개의 형식으로 구분되고, 그



각각의 구연의 유형별 형식 내에서 IV형식을 제외하고 다시 네 개의 크기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허벅의 기본형인 I형식에서 구연 유형별 형태로 분리되며 IV형식까지 각 유형별 크기에서 높이, 구연지름, 밑지름의 차이는 거의 동일하다. I, II, III, IV의 각각의 유형에서 a에서부터 d까지의 크기는 밑지름 1~2cm, 구연지름 1~2cm, 높이 5~6cm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구연의 넓고 좁음에 따라 동체의 높이가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그 중 b·c·d형은 거의 일정하며 규칙적이다. 그러나 I, II, III, IV의 각 유형의 a형식은 성격상 일반적이지 않고 대부분 상황에 따라 특수 주문으로 이루어진 성형이어서 그런지 크기에 차이가 있다. 각 유형의 a형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I-a형식은 일반적 허벅의 형태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앞에서 언급했지만 ‘바릇허벅’·‘맞춤허벅’이라고도 불리며 I-b형의 일반 허벅보다 15cm정도 높다. 특정 상황이긴 하나 기능상 물을 길러 다닐 경우에 사용했던 기형이기 때문에 II-a형, III-a형 등 다른 형식보다 전제품이 상대적으로 현존하는 양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II-a형은 II형식 중 가장 큰 기형으로 ‘바릇허벅 등덜기’·‘맞춤허벅 등덜기’라 한다. 제주도 고온 산화번조 기물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채로 번조하여 자연유 상태의 발색이 특징이므로 내륙의 옹기처럼 잿물을 발라 시문한 수화문(手花文)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II-a형에서는 수화문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내부에서 자체 생산되었을 가능성과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1629년 출륙금지령 이후 제주도에서는 약 250여 년간 외부로의 유출입이 통제되어 자유롭지 않았으므로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면 19세기말에서 20세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잿물을 만들고 바르는 제작기술이 유입되었을 수도 있고, 내륙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직접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변화와 의식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기존 생활기명을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산되었다면, 내륙에서처럼 기존의 향아리에 잿물을 시유하는 것을 조금 더 고급화되고 발전적인 것으로 여겨 확산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소형 기물 등 일부에 잿물을 시도는 하였으나 확산되지는 않았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사이 고온 산화번조 가마·환원번조 가마가 모두 폐요(廢窯)될 때까지 제주도 내에서는 자체의 전통방식으로 생산하였으며 동시에 주로 전라도 강진에서 옹기배가 들어와 강진옹기가 시장을 확대해 나갔

다.<sup>208)</sup> 또한 제주시와 동부지역은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외부로부터 옹기배가 일찍이 드나들어 내륙의 옹기가 많이 유통되었다. 이런 정황상 일부지역에서 사용된 옹기는 자체에서 제작되었기 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Ⅲ-a형은 일반적 크기의 허벅보다 동체가 크고 구연이 넓고 외반 되어있다. I-a형의 동체크기와 비슷하며 Ⅲ형식 중 가장 큰 기형으로 제주에서는 ‘바릇허벅 방춘이’·‘맞춤허벅 방춘이’라고 한다. Ⅲ-b형보다 동체의 크기는 10cm 이상 크지만 Ⅲ-b형과 구연의 지름크기는 거의 유사하다. 동체에 전체적으로 얇은 종선문[빗살문, 보로롱문]이 시문되어 있고 견부에서 동체로 횡선문이, 견부의 횡선문 사이에는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IV-a형은 IV형식 중 가장 큰 것을 말하며 ‘바릇허벅 능생이’·‘맞춤허벅 능생이’라 한다. I-a, II-a, Ⅲ-a처럼 주문 제작된다. 제주도의 항아리[통개] 형태와 유사하며 항아리의 장식기법에서 주로 보이는 덧띠[근개띠·목질띠<sup>209)</sup>]가 견부에 한 줄 붙어있다. Ⅲ-a처럼 구연의 전은 낮고 넓다. IV-b나 IV-c형의 전은 동체로 이어지는 부분에 어긋나게 각을 이루며 외반하는 형태이나, IV-a형은 각을 이루지 않고 거의 직선으로 전이 서있다. 견부가 넓고 구연 아래에 2cm 가량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구연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각 유형별 크기의 차이가 일정하고 규칙적인 것은 구조화된 양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틀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허벅의 예를 들면, 허벅 밑에 재임되는 작은 항 종류의 기물인 ‘망대기<sup>210)</sup>’의 구연과 허벅의 굽은 크기

208) 제주도에 들어가는 옹기상인들은 가장 먼저 옹기를 확보해야 했다. 옹기를 제작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60년대 후반 봉황마을은 총 123가구가 살았는데 옹기를 만드는 집이 40곳이 넘었다. 선주들은 일종의 유통을 담당했던 셈이다. 배가 한번 출항하려면 약 500여 개의 크고 작은 옹기를 배에 실었다. 제주도에 강진옹기배가 들어가면 늘 인기를 독차지 했다. 60년대 말 칠량배가 제주도로 들어간 초창기에는 배만 대면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다. 배가 닿으면 소문이 순식간에 항구 일대에 퍼졌고 그러면 부녀자들이 몰려왔다. 주희춘,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출판사, 2008, pp.147~155, 171~174, 185~193.

209) 무른 흙인 목질로 붙인다하여 목질띠 라고 한다. 장식적인 효과도 있지만 기물 안으로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사를 묶고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실용적인 효과가 있다.

210) 작은 항 종류이다. 가마 재임시 ‘아랫자리’에 놓이며 허벅을 받쳐주기 때문에 두껍게 성형되고 허벅 개수의 반을 만든다. 뚜껑은 주로 개장태, 셋째비장태로 덮고 젓갈을 담거나 장류를 보관할 때 사용했다.





가 같고 허벅 위에 씌우는 기물인 '개장태<sup>211)</sup>'의 바닥과 허벅의 굽의 크기가 같다. I, II, III, IV의 각각의 유형이 모두 이렇게 구성되어 재임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물도 동일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크기가 일정하고 규칙적이어서 재임시에 위·아래에 놓이는 기물의 전과 굽의 크기, 한 가마를 번조하는데 필요한 기물의 수량, 구체적인 크기와 규모 등을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이형의 구연과 동일 크기로 분류된 유형을 통해 기능별 형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허벅의 크기별 분류현황에서 허벅의 기본양식이라 할 수 있는 동체의 크기인 b식을 기준으로 동일크기 동체의 구연별 유형을 정리하면 <삽표 11>과 같다. 동일 크기에서 구연이 형태변화를 한 것은 기능에 따른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 운반용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던 허벅이 수요에 의한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또 다른 용도에 맞는 다양한 허벅의 양식변화가 생겨났으며 그에 따른 기술력도 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에 따른 형태변화라는 가능성과 더불어 성형방법에 따른 형태변화의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물레성형에 있어서 원심력에 의해 벌어지려는 성질은 쉽고 강하나 오프라드는 성질은 쉽지 않다. 숙련되어야 쉽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물레성형방법의 단계상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쉽게 성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물을 만들어 초기에 구연이 넓은 것을 후에 기술이 향상되면서 구연이 좁은 형태가 제작되었다면 선후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랜 시기를 거치지 않아 수요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산이 되었을 수도 있다.

제주도의 가마운영과 생산은 거대 자본을 가진 조직화된 생산이 아닌 계(契)를 이룬 가내수공업 형태였으므로 필요와 기능에 의해서 제작되고 사용되면서 양식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동종의 기형에서 크고 작음의 변화, 구연의 다름에서 오는 형식변화 등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구연 유형별 허벅의 분류 기준과 크기별 분류현황과 같다.

211) 운두가 낮고 구연이 넓어 모양이 반병두리, 양푼과 같으며, 다른 기물의 뚜껑이나 음식물을 담는 역할을 하며 큰 그릇의 대용으로도 쓴다. 가마 재임시 허벅 위에 덮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 때 허벅의 구연이 장태의 굽에 닿으면 안 된다.

&lt;삽표 11&gt; b식 기준의 구연별 유형

기종	유형		크기(단위 : cm)			도판
			높이	구연 지름	밑지름	
허벽 (고온 산화번조)	I	b	35~40	10~11	19~22	
	II	b	40~43	8~10	20~22	
	III	b	35~37	15~18	20~24	
	IV	b	34~38	15~20	18~22	

※ 소장처 : I-b(제주대학교박물관), II-b(국립제주박물관), III-b·IV-b(국립민속박물관)

I-b와 II-b 형식은 III-b와 IV-b 형식에 비교하면 구연이 작고 몸체높이가 조금 높으며 밑지름의 크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I-b는 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했던 허벽이고 II-b는 술을 담고 운반하거나 저장하는데 사용되었다.

II-b형식<sup>212)</sup>은 I-b[허벽]형식과 크기는 같은데 구연의 형태가 다르다. II-b형식의 구연은 한번 턱을 만들어서 단이 있고 외반 되었으며 구경은 허벽 보다 더 좁다.<도판 54> 경부 상단에 단이 지는 형태로 반구병<sup>213)</sup>과 유사하다. 목이 좁고 단

212) ‘등덜기’ 또는 ‘허벽등덜기’라고 한다. 크기의 순서에 따라 ‘바릇허벽 등덜기’, ‘허벽등덜기’, ‘대배기 등덜기’, ‘애기대배기 등덜기’가 있다.

213) 裴보늬, 앞의 논문, p.27에서 “반구병처럼 경부 상단에 단이 지는 형태는 청도 순지리 유적에만 보이고 있어 15~16세기 초에 나타나는 웅기유형이라고 판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앞선 시기에도 반구병 형태의 도기는 계속 제작되어 왔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언급한 웅기의 용어개념은 잣물을 바른 갈색의 기물만으로 한정시키지 않았으므로 더욱 검

이 있기 때문에 형겅이나 '새(띠)'<sup>214)</sup>를 이용하여 구연을 막아도 빠지지 않는다. 주로 술이나 기름을 운반하거나 저장할 때 사용했다. 크기는 앞의 표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네 종류로 분류된다.



Ⅱ-b/ I -b(허벅)/Ⅳ-b/Ⅲ-b형식

※ 소장처 : Ⅱ-b(국립제주박물관), I -b(제주대학교박물관), Ⅳ-b · Ⅲ-b(국립민속박물관)

Ⅲ-b형식<sup>215)</sup>은 허벅과 형태와 크기는 같지만, 구연의 형태가 허벅구연처럼 외반되었는데 낮고 넓다. 경부의 높이는 3.5~4.5cm 정도로, 5.5~6.5cm 경부의 높이를 가진 I -b(허벅)보다 낮다. Ⅲ-b는 장류나 청주 등을 담아 두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웃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죽을 쑤어 넣어서 가져가기도 했다고 한다.<sup>216)</sup> 뚜껑은 장대를 덮거나 구연의 크기에 맞는 것을 사용했으며 혹은 나무, 돌, 천 등으로 뚜껑을 대신했다. <삽표 10> 구연 유형별 허벅의 분류기준과 크기별 분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Ⅲ-b형식의 크기도 네 종류로 분류된다.

Ⅳ-b형식<sup>217)</sup>은 허벅과 크기는 같으나 구연은 낮고 넓다. 경부가 넓고 구연 아래

토해야 할 부분이다.

214) 벼목 화본과의 여러해살이풀. 제주도에서는 소, 말의 먹이나 초가지붕 등에 많이 쓴다.

215) '방춘이', '허벅방춘이'라고도 한다. 크기 순서에 따라 '바릇허벅 방춘이' '허벅방춘이' '대배기 방춘이' '애기대배기 방춘이'가 있다.

216) 그래서 '죽허벅' 이라고도 한다.

217) '능생이', '허벅능생이'라고도 한다. 크기 순서에 따라 '바릇허벅능생이' '허벅능생이' '대배기능생

에 2~2.5cm 가량 형성되어 낮으며 동체로 이어지는 부분에 각을 이루며 외반하는 형태이다. I-b, II-b, III-b, IV-b형식 중에서는 구연이 가장 낮고 지름은 III-b형식의 구연지름과 크기가 비슷하다. 뚜껑은 III-b와 마찬가지로 장태를 이용해 덮거나, 구연에 맞게 제작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도판 55> 씨앗을 보관하거나 장류를 담아둘 때 사용한다. IV-b형식도 앞에 형식들과 같이 네 종류의 크기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지만 연구대상 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세 종류로 분류 가능하였다.<도판 56>

여기서 형태의 크기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굽에 해당하는 밑지름의 크기와 가마 번조시 허벅의 아래에 재임되는 기물의 구연지름의 크기는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판이나 갑발 등 내화받침 없이 포개구이를 하기 때문에 상단 기물의 굽과 하단 기물의 구연이 짝을 이루어 크기를 동일하게 제작하는 것이다. 허벅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다른 종류의 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전술한 바 있듯이 각각의 기물들이 일정한 틀이 있어서 구조화된 양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환원번조 허벅

환원번조의 허벅을 크기별 유형 분류를 하면 <삽표 12>와 같다. 앞서 살펴본 고온 산화번조 허벅에서는 구연 유형별 허벅의 분류기준과 크기별 분류 현황<삽표 10>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연 유형과 크기별로 각각 네 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그러나 환원번조의 허벅은 구연 유형으로는 여러 유형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가장 일반적인 I 형식만 보인다. I 형식도 고온 산화번조 허벅에서처럼 I-a, I-b, I-c, I-d 네 개의 크기가 보이지 않고 여기서는 b, c, d식 즉 세 개의 크기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 주문하여 제작했던 크기가 가장 큰 허벅인 a식은 조사한 연구대상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생산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생산이 되었어도 변형되어 제작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술하는 일반적 크기의 b, c, d의 유형을 제외하면 변형된 크기가 나타나며 허벅 이외에 다른 종류의 환원번조 기물이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크기

---

이 '애기대배기능생이'가 있다고 하지만 IV-d식(애기대배기능생이)은 재현품으로서 존재할 수 있겠으나 전제품으로 존재하는 자료는 확인하기 힘들다.

의 허벅 b식과 그것보다 작은 c식, 그리고 d식이 있으며 b와 c사이에 크기가 다소 변형된 유형이 2개가 보인다. 환원번조 허벅은 고온 산화번조의 허벅보다 낮은 온도에서 번조됨으로써 강도가 약하며 고온 산화번조 허벅이 생산되면서 상대적으로 환원번조 허벅의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어 전세품의 현존양도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연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앞서 고온 산화번조에서 분류한 I 류에 해당하는 허벅의 일반적 유형이 보이고 III-d에 해당하는 형식이 1개 나타나고 있다.

<삽표 12> 크기별 허벅 분류

기종	유형	크기(단위 : cm)			도판
		높이	구연 지름	밑지름	
허벅 (환원번조)	a식	-	-	-	-
	b식	36~39	10.8~11	20~21.5	
	c식	30~31.5	8.5~9	17.5~18	
	d식	23	8	15	

※ 소장처 : b식(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c식(국립제주박물관), d식(국립민속박물관)

위에서 언급한 b와 c사이에 2개의 변형된 유형의 허벅은 길이가 긴 형태이며 하나는 높이 43cm, 구연지름 9.2cm, 밑지름 20cm이며 시문된 문양의 형태는 횡선문



과 경부에 가깝게 파상문이 있다. 다른 하나는 높이 34.6cm, 입지름 7.7cm, 밑지름 16.4cm이며 전부에 음각시문형태로 굵은 횡선문이 나타나며 경부에 가깝게 횡선문이 하나 더 시문되어 있다. 횡선문은 각 2개조가 비슷한 위치와 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는데 긴 대병의 형태와 유사하며 태토는 거칠고 석립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도판 57-①②>

환원번조 기물은 고온 산화번조 기물보다 크기와 양식에 있어서 크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웠다고 생각된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환원번조 가마에서 생산되는 기물은 고온 산화번조 가마에서 생산되는 기물 보다 생산량과 규모가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마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고온 산화번조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었다. 환원번조 가마는 고온 산화번조와 같이 내화물을 이용하여 굽과 구연을 반드시 짝을 이루어 재임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따라서 고온 산화번조 가마에서 구워진 기물은 ‘아랫자리’ ‘윗자리’가 있지만 환원번조 가마에서 번조된 기물은 위아래자리가 따로 구분이 없다.

소라껍데기·조개껍질가루 등과 같은 요도구를 대신하는 내화물을 넣지 않아도 번조가 가능하였다. 환원번조 가마는 고온 산화번조 가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번조되었기 때문에 고온으로 인해 기물이 달라붙거나 주저앉는 피해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화물 없이 겹쳐서 포개구이를 할 수 있다는 가마의 특성은 기물에도 변형된 형태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허벅 등 환원번조 가마에서 생산되었던 기물이 점차 고온에서 번조할 수 있는 제작기술발달로 규모와 구조가 갖추어지면서 고온 산화번조 무유용기 양식도 갖추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고온 산화번조 가마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환원번조 기물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현존가마터의 수량이나 현존 전세품의 양이 그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제주도 용기 중 ‘허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주도에서 허벅은 물을 길는데 가장 필요했던 운반용구 중의 하나였다. 허벅은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양식변화를 하며 많은 양이 생산·소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사 분야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 또한 미진하다. 현재까지 허벅은 내륙에 없는 등점운반 풍속과 독특한 용기로서 주로 민속학·사회학적 관점과 성형방법을 중심으로 현대 도자공예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본 논문은 제주도 용기가 도자사의 한 갈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다각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조선후기 제주도 용기 중 ‘허벅’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고지도를 비롯한 문헌상에 나타난 각종 사료를 중심으로 허벅의 정의와 기원·가마의 유래·입지 조건과 유통 등 배경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상의 기록과 현존가마터 위치를 검토하였으며 발굴조사보고서와 현존하는 가마터 조사 및 전세품을 바탕으로 가마의 종류와 생산·허벅의 기능과 양식분석 등을 하여 허벅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주도 용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성격 규명을 위하여 용어사용과 개념을 고찰하였다.

제주도에서 생산된 용기는 무유용기이다. 번조방법에 따라 1,150℃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염으로 번조된 것과, 900~1,000℃에서 환원된 것 두 종류가 있다. 이를 통용되는 학술용어로 대체하여 ‘고온 산화번조 허벅’과 ‘환원번조 허벅’이라 용어 정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온도의 개념만 적용하였으며 시유와 무유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용어정의를 명확하지 않지만 용기의 개념은 ‘陶器’의 총칭으로 혹은 ‘도기 중에서도 황갈색 유약을 시유한 것’ 또는 ‘도기 중에서 독(웅)의 형태가 있는 것’에 한하여 사용하며 모두가 도기의 맥락에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 용기도 질그릇·오지그릇·반오지그릇 등의 도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환원번조 허벅은 질그릇으로, 고온 산화번조 허벅은 반오지그릇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제주도 용기의 용어는 도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였다. 다만 고온 산화번조 무유용기, 고온 번조 무유도기 등 제주도 용기의 학술 용어 정의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계속 검토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허벅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제주도 용기 중 허벅이 근대기 상수도시설이 구비되기 이전까지 물을 길는데 가장 필요했던 용기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허벅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회토 지형인 제주도에서 비가 오면 물이 땅으로 빠져 해안가에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해안가에 형성된 용천수(湧泉水)나 봉천수(奉天水)가 있는 곳에 물을 길러 다니기 위해 구경은 좁고 어깨외경이 팽만한 대병(大瓶) 형태로 제작된 운반용기였다.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의 탐라잡영(耽羅雜詠)과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탐라지초본(耽羅志草本)』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최근까지 사용된 용기로 된 형태의 허벅이 18세기 후반에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물 길는 용구는 18세기 초까지는 나무로 제작된 목통(木桶)을 사용하였으나, 18세기 후반(178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제주읍지(濟州邑誌)』 대정현지(大靜縣誌) 도로조(道路條)에 기록된 대정현 서쪽 5리 정도에 있는 가미수(茄味藪) 웅점(甕店)을 통해 18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목통에서 도기로 대체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가마의 형성시기는 17세기 중반의 정황을 보여주는 1649년 「홍화각중수기(弘化閣重修記)」에서 제주에는 기와를 제작할 수 있는 장인이 없어 바다 건너 가까운 읍에서 불러와야 한다고 한 것, 1660년 「제주장수당기(濟州臧修堂記)」에서 기와는 도토(陶土)를 잘 구워서 이것을 쓰겠다고 했던 대목, 이익태(李益泰, 1633~1704)의 지영록(知瀛錄)에 수록된 1694년의 연무정 보수에 필요한 기와를 명월면의 옛 가마터에서 굽는데 그 근처의 하인(下人)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다는 내용 등을 통해 17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기술의 유입과 습득으로 기와를 자체에서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702~1703)의 『남환박물관(南宦博物)』에서 도자기는 생산되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18세기 초반까지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가마가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용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가 만들어지고 장인들이 기술이 전수되어,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가마가 존재하고 도기가 제작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제주읍지(濟州邑誌)』에 기록된 대정현 서쪽 5리 정도에 있는 가미수(茄味藪) 웅점(甕店)이 위치했던 지역은 현존 가마터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며 가마의 입지조건은 수요지 중심이 아닌 원료의 산지가 중심이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즉 수요지 중심이었다면 조선후기 제주의 인구밀도가 집중되어 있었던 제주목에 위

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대정현에 있었던 것은 도토의 공급이 용이하고 번조시에 연료로 사용되는 많은 양의 시목(柴木)을 획득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가미수(茄味藪)의 '수(藪)'는 수풀의 뜻을 가진 '꽃'의 차자 표기로 제주도에서 일명 '꽃자왈'이라 하는데 이 지경에 위치해 있었기에 땔감을 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했던 것이라 생각되었다. 『해동지도-제주삼현도』(1750년경), 『제주삼읍전도-대정군지도』(1872년), 『제주군읍지도-대정군지도』(1899년) 등 고지도를 통해 옛 지명에 나타나는 수(藪)의 위치와 가마터가 분포하는 지경이 현재 월림-신평꽃자왈 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벅을 생산했던 가마는 고온 산화번조[‘노랑굴’] 가마와 환원번조[‘검은굴’] 가마 두 종류가 있다. 현존 가마터의 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해 축요(築窯) 방식, 가마의 구조, 제임과 번조방식을 살펴본 결과, 내륙과 대체적으로 동일하지만 축조법과 축조재료가 타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다. 내륙에서 주로 사용한 화강암(花崗巖)인 할석(割席)과는 다르게 제주도에서 축조재료로 주로 이용한 돌은 현무암(玄武巖)이었다. 제주도의 돌은 화산 폭발에 의한 용암석(鎔巖石)이며, 다공질이어서 고온과 저온에서 스스로 이완 수축을 하여 그 자체로 내화재(耐火材) 역할을 하였다. 허벅 생산은 환원번조 가마에서 먼저 이루어진 후 제작기술발달로 규모와 구조가 갖추어지면서 고온 산화번조 무유용기 양식도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었다. 고온 산화번조 가마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환원번조 기물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현존가마터의 수량이나 현존 전제품의 양이 그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허벅의 수요와 유통을 고찰한 결과,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제주 지역의 인구현황에 기초하여 작성한 제주인구분포도를 통해 허벅을 필요로 한 호수의 비율은 제주·정의·대정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제주도 가마는 신평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정읍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된 허벅은 주로 육로와 해로를 통해 운송되어 판매되었다. 당시 육로는 읍치와 읍치를 연결하는 대로·중로·소로 등이 활용되었다. 해로 운송은 인조 7년(1629)의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으로 인해 제한을 받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출륙금지령이 해제 되면서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로와 해로로 운송된 허벅은 마을별로 오일장이 서는 날을 맞춰서 다니기도 하고 주문이 있었던 마을을 찾아가 넓은 마당이 있는 곳을 대여한 후 가져온 그릇을 쌓아두고, 그 곳을 거점으로 하여 도분장사를 하였다. 오일장을 통

한 허벅의 판매는 19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활성화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허벅의 제작기술, 기능과 양식변화 등 그 특징과 조형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가마의 번조 방법 즉 고온 산화번조 혹은 환원번조에 따라 기물표면의 색과 강도가 다르고 제작방법과 기능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달랐다. 특히 제작수법에 있어서 전라도 지역에서만 나타난다는 찻바퀴 타림이 제주도에서도 나타나며, 제작 도구에 있어서도 동일 명칭의 용어가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간의 도자 제작기술의 유입 및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요도구에 있어 조개껍질흔이 내륙에서는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 경이면 나타나지 않고 굽은 모래흔이 보이지만, 여전히 기물에서 내화재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대편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섬이라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내륙으로부터 들어오는 요소와 항해, 표류 등 외부유입이 있었지만 수용하는 측면에선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었다. 내륙에서 찻물을 바른 갈색의 옹기[施釉陶器, 甕器]가 제작될 때, 제주도에서는 시유하지 않은 고온 산화번조의 옹기와 삼국시대 이래 제작된 회색경질도기, 고려도기에서 보편화되는 환원번조의 옹기가 있었다. 그리고 고온 산화번조 무유옹기(高溫酸化燔造無釉甕器)의 생산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현재 이 제작기술은 한반도 본토에서는 유사한 것이 없으나 오늘날에도 생산되고 있는 일본의 도코나메요[常滑窯], 비젠[備前窯], 단바요[丹波窯], 시가라키요[信樂窯], 에치젠요[越前窯] 등과 오끼나와[琉球]의 아라야치[荒窯], 난세이제도[南西諸島] 일대에 유통되던 토쿠노시마[徳之島]요의 스에키[須恵器] 등과 유사성을 띠고 있어 해로로 연결되는 일본과 오끼나와 등지의 도기기술의 교류 부분은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 참 고 문 헌

### □ 사료

- 『承政院日記』
- 『新增東國輿地勝覽』
- 『仁祖實錄』
- 『日省錄』
- 『濟州大靜旌義邑誌』(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 17436)
- 『濟州邑誌』(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 10796)
- 『葵窓遺稿』(李健)
- 『南溟小乘』(林悌)
- 『南槎錄』(金尙憲)
- 『南槎日錄』(李增)
- 『南宦博物』(李衡祥)
- 『鳴巖集』(李海朝)
- 『西齋集』(任徵夏)
- 『熱河日記』(朴趾源)
- 『龍洲先生遺稿』(趙綱)
- 『益齋集』(李齊賢)
- 『林園經濟志』(徐有渠)
- 『靖獻瀛海處坎錄』(趙貞喆)
- 『知瀛錄』(李益泰)
- 『冲庵先生集』(金淨)
- 『耽羅文獻集』(濟州道教育委員會編, 1976)
- 『耽羅志』(李元鎭)
- 『耽羅志草本』(李源祚)
- 『訓蒙字會』(崔世珍, 朝鮮光文會, 1913)

## □ 지도자료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호남읍지(湖南邑誌)』(규 12181)에 수록>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1872년 지방지도』(규)에 수록>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海東地圖』(규 古大4709-41)에 수록>  
 탐라도총(耽羅都摠)<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제주도도에 수록>  
 탐라약도(耽羅畧圖)<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한라장축(漢拏壯圖)<제주시청 소장, 『耽羅巡歷圖』에 수록>

## □ 단행본

강경숙, 『도자 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 시공사, 2000,  
 강경숙, 『韓國陶磁史』, 일지사, 1989.  
 강창언·이경효, 『제주전통도예』, 가시아히, 2000.  
 고광민, 『한국의 바구니』,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김원룡, 『신라토기 -한국의 미술 I-』, 열화당, 1981.  
 나선화, 『도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도자기의 흐름 : 우리 물길을 따라서』, 재단  
 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2005.  
 나선화, 『한국의 전통공예 도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淡水契 편, 『增補耽羅誌』, 1954.  
 박용후, 『제주도의 옛 땅이름 연구』, 제주문화, 1992.  
 사단법인 곳자왓 사람들, 『창립기념행사 자료집』, 2005.  
 석주명(石宙明), 『濟州道方言集』,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禹樂基, 『濟州道 大韓地誌1』, 韓國地理研究所, 1965.  
 윤용이, 『우리의 옛 질그릇』, 대원사, 1999.  
 윤용이,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1993.  
 이경효, 『제주도의 가마』, 태한인쇄사, 1995.  
 이기문 감수, 『새국어사전-개정증보판』, 동아출판사, 1989  
 長三植,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1979.



- 정동훈, 『가마짓기와 번조기법』, 디자인하우스, 1991
- 정동훈, 『도자예술용어사전』, 도서출판(주)월간세라믹스, 1996.
- 정병락, 『옹기와의 대화』, 옹기민속박물관, 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 1995.
- 정양모 · 이훈석 · 정명호, 『옹기』, 대원사, 1999
- 제주도, 『濟州道誌(上)』, 1982.
- 제주도, 『제주민속유적』, 1997
- 제주도, 『제주어사전』, 1995.
- 주희춘,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출판사, 2008.
-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한국옹기와 일본 도자기의 제작기술 비교연구』, 1990.
- Paul Jacques Grillo 저 · 安秉義 · 金光文 역, 『What is Design?』, 理工産業社, 1974.
- R. H. Sayer, 『The Korean Onggi Potter』, 1987.
- 藤原 雄 · 竹内淳子 共著, 『日本の陶磁3 備前』, 保育社, 昭和50年.
- 미스기 다카토시[三杉降敏] 저 · 김인규 역, 『동서도자교류사-마이센으로 가는 길』, 놀와, 2001.
- 小山富士夫 · 藤原 雄 編, 『備前焼』,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昭和45年.
- 유종열 外 · 심우성 譯, 『조선공예 개관』, 동문선, 1997.
-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전라남도 편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明治四十四年度)』, 1913.
- 榊田一二, 『榊田一二地理學論文集』, 弘詢社, 1976.

## □ 보고서

- 慶南大學校博物館, 『大邱-春川間 高速道路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92.
- 慶南大學校博物館, 「安東 新陽里 朝鮮白磁窯址」, 『大邱-春川間 高速道路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92.
- 경남대학교박물관 · 운문댐수몰지역발굴조사단 · 청도군, 『清道 蓴池里 甕器가마터』, 1994.

- 경남문화재연구원,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도요지 시굴조사 결과약보고』, 2003.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진해 웅천 자기요지(I)-진해시 웅천면 두동리  
웅천 자기요지시굴조사 略報告書』, 2001.
- 慶北大學校博物館, 「漆谷 多富洞 窯址」, 『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91
- 경상대학교박물관, 『사천 류천리 제민장치』, 1996.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慶山 陰陽里遺蹟」, 『大邱-포항間 高速道路 新設區間 文  
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2002.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경지역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 『전국문화유적발굴조사년표』, 증보판Ⅱ, 2001.
- 경상대학교박물관, 『하동 고이리 유적』, 1990.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경지역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2002.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부여박물관, 『청양 왕진리 가마터』, 2008.
-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1993.
- 김성구, 『청양 왕진리 가마터 조사보고』, 국립부여박물관, 1992.
- 김성구 · 신광섭, 『부여 정암리 가마터 조사보고』, 국립부여박물관, 1992.
-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2차)개요』, 2004.
- 목포대학교박물관, 『장성 대도리 가마유적』, 1995.
- 문화재관리국, 『甕器-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987.
- 문화재관리국, 『甕器匠』, 1990.
-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篇-』, 1977.
- 福泉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第8次發掘調査』 160~166號, 2008.
- 釜山大學校博物館, 『山淸 放牧里 白磁窯址』, 2000.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龍水里 1號·2號 窯址 發掘調査報告」, 『保寧댐 수몰地  
域 發掘調査 報告③ 陶窯址 發掘調査報告』, 1996.
- 全南文化財研究院, 『長興 朝鮮白磁 陶窯址』, 2002.
- 제주도,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1973.
- 濟州道, 『濟州道 民俗資料』, 1987.
- 제주도, 『제주도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제주도 허벅장-』, 2003.
- 濟州道, 『濟州道の 文化遺産』, 1982.

- 濟州道, 『濟州의 民俗』 II -生業技術・工藝技術-, 1994.
- 濟州道, 『濟州의 民俗』 IV -衣生活・食生活・住生活, 1996.
- 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夫餘 正覺里 갓점골 遺蹟』, 2002.
- 忠南發展研究院, 『大田 壯安洞 白磁窯址』, 2002.
- 충북대박물관,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1995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산 천전리유적( I )』, 2004.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2001.
-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수자원공사, 『蔚山 下三亭遺蹟・芳里 甕器窯址 -蔚山圈 廣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內 3次 發掘調査-』, 2007.
- 海剛陶磁美術館, 『廣州 牛山里 白磁 窯址(II)-17號 白磁窯址 試掘調査報告書』, 1999.
- 해강도자미술관, 「지도위원회회의자료-대전정생동」, 1997
- 湖巖美術館, 「陶窯址 遺蹟」, 『山本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1990.

## □ 도록

- 국립민속박물관, 『허벅과 제주질그릇』, 2007.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삶, 제주의 아름다움』, 2002.
- 국립제주박물관, 『濟州의 歷史와 文化』, 2001.
-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와 유구왕국』, 2007.
- 山陽新聞社, 『備前焼 千年の 傳統美展』, 1997.

## □ 학술지 논문

- 강경숙, 「경남 일원의 분청사기」,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2004.
- 姜榮峯, 「濟州語와 石宙明」, 『탐라문화』 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 金東栓, 「「戶籍中草」를 통해 본 朝鮮後期 大靜縣의 戶口와 그 變動」, 『동서사학』 6・7합집, 동서사학회, 2000.
- 김동진, 2000,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 김상조, 「沖庵 金淨의 海島錄」, 『탐라문화』 1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 김은석,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고찰」, 『제주교육대학 논문집』, 1990.
- 김지홍, 「온평리 고문서 연구」, 『탐라문화』 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김태호, 「제주도의 해안 지형」, 『탐라문화』 1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 나선화, 「강진 삼흥리 도기 가마 발굴의 성격과 의의」, 『천년의 세월, 그 빛, 날다』, 국립광주박물관, 2006.
- 나선화, 「옹기연원 소고」,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0.
- 문희수·이기길, 「조선시대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재료와 구운온도 분석」, 『한국고고학보 제34호』, 한국고고학회, 1996.
- 모리 다츠야[森達也], 「일본의 독(甗)과 향아리(壺)」,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국제학술집』,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영남대학교 박물관, 2009.
- 방병선, 「미술작품, ‘무엇’으로 ‘어떻게’ 제작되었을까 -그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론-」, 『미술사와 교육』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15회 전국학술대회-, 2004.
- 방유리, 「백제 한성시대 토기 타날 기법에 대한 연구-이천 설성산성 출토 호·옹류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1, 2004.
- 森達也, 「일본의 독(甗)과 향아리(壺)」,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국제학술집』,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영남대학교 박물관, 2009.
- 서재인, 「안성 화곡리 출토 고려도기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 『고문화』 57, 2001.
-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오창명, 「「耽羅圖」와 지명」, 『탐라문화』 2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오창명, 「제주도 마을과 산악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1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 윤용이, 「고려·조선시대 질그릇」, 『고려·조선시대 질그릇과 사기그릇전 기념 박물관 강좌-우리나라와 중국도자의 흐름』, 연세대학교박물관, 2002.
- 윤용이, 「도자사와 교재」, 『미술사와 교재』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16회 전국학술대회-, 2005.
- 윤용이, 「독(甗)의 개념과 성립 고찰」,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국제학술집』,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영남대학교 박물관, 2009.

- 윤치부, 「林白湖의 「南溟小乘」 攷」, 『耽羅文化』 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 이경효, 「서귀포시유적분포지도-가마편」,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이경효, 「제주도의 가마 -노랑굴·검은굴·기왓굴-」, 『생활문화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 이경효, 「허벅에 대한 일고찰」,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IV, 국립민속박물관, 2008.
- 이기길, 「고려시대 질그릇의 제작기법 연구-물그릇 만들기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1991.
- 李榮培, 「질그릇窯 造成에 관한 조사(九億里 구석발 검은굴)」, 『조사연구보고서』 제5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0.
- 이청규, 「제주도 토기에 대한 일고찰」, 『탐라문화』 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장남원, 「강진 삼흥리 도요지의 성격과 출토유물」, 『천년의 세월, 그 빛, 날다』, 국립광주박물관, 2006.
- 장남원, 「고려시대의 도기와 청자」,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0.
- 정명호, 「砂器匠 名稱과 제조기술에 관한 연구」, 『實學思想研究』 5·6合輯, 母岳實學會, 1995.
- 鄭明鎬, 「옹기의 명칭과 과학성」, 『죽당이현회 교수 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죽당이현회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동방도서, 1997.
- 趙誠倫,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 탐라문화연구소, 2005.
- 조우석, 「옹기의 과학적 분석 및 미세기공 관찰」,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국제학술집』,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영남대학교 박물관, 2009.
- 曹正鉉, 「甕器小論」, 『陶藝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1987.
- 최성호·이정호, 「해남 군곡리 패총 출토 토기의 성격-제작 방법을 중심으로」, 『전남문화재』 1, 1989.
- 홍선표, 「한국미술사 인식틀의 비판과 새로운 모색」, 『미술사논단』, 2000.
- 洪貞杓 譯, 「沖庵·金淨의 濟州風土錄」, 『교육제주』 28,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

## □ 학위 논문

- 姜東佑, 「Mössbauer 效果에 의한 濟州 地域 찰흙에 含有된 Fe의 磁氣的 特性 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金美榮, 「濟州道 허벅에 關한 研究 -觀光土産品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金吾順,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金貞善, 「朝鮮時代 磁器가마 構造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羅炳沃, 「全南地域 甕器의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민경은, 「옹기점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朴仙河, 「甕器店의 用語에 關한 考察 -店, 성형, 시유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종일, 「全北地域 甕器工房의 現況과 分析」,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裴보늬, 「朝鮮時代 嶺南地方 甕器에 關한 研究 -泗川 牛川里 遺蹟을 中心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本田 まび, 「壬辰倭亂 前後의 韓日 陶磁 比較研究 -日本 九州 히젠陶磁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梁淳珉,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濟州道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梁才心, 「濟州道 甕器에 對한 研究 -造形性を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오영심, 「제주도 전통 사회의 옹기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대정읍 구억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경효,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李鍾昌, 「甕器의 製作技法에 關한 研究 -섧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장성윤, 「전남 및 제주지역 고대 질그릇의 근원지 및 소성온도에 관한 광물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崔喆熙, 「高麗時代 질그릇의 型式分類와 變遷過程 -瓶·壺·大甕을 中心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韓政憲, 「甕器 향아리 製作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표

&lt;표 1&gt; 제주도 가마터 현황

연번	명칭	위치(행정구역상 소재지, 속칭)	비고
1	남죽동 노랑굴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	남죽동 노랑굴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과수원 입구)	
3	하가리 노랑굴터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4	행원리 노랑굴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	신물동산 노랑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현존
6	신성동 노랑굴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불그뚝)	현존
7	산양리 노랑굴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독시빌레)	현존
8	산양리 노랑굴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조롱물 지경)	현존
9	월광동 노랑굴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대정읍 무릉2리 월광동(실제 사용했던 가마환경)	현존
10	섯굴 노랑굴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상동 속칭 '폭낭알'	현존
11	앞동산 노랑굴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속칭 '앞동산' '앞 동산굴터'	현존
12	일곱드르 노랑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칠전동 속칭 '일곱드르'	현존
13	굴동네 노랑굴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36번지(속칭 '양 가물웃동네')	
14	사계리 노랑굴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속칭 '양가물웃동네')	
15	엉뺏 노랑굴터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110번지 앞	
16	굴동산 노랑굴터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873번지	
17	구논동산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267번지	
18	하동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소재지) 대정읍 구억리 하동 속칭 '동굴'(실제 사용 했던 가마환경)	
19	굴동산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상동	
20	하동 노랑굴터(섯굴)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하동 마을회관 서쪽	



연번	명칭	위치(행정구역상 소재지, 속칭)	비고
21	구억리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상동(속칭 '동굴')	
22	구억리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소재지) 대정읍 구억리 하동 속칭 '폭낭굴'(실제 사용했던 가마환경)	
23	반대못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좌기동 무릉동초등학교 앞 속칭 반대못 지경	
24	셋병디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평지동 1790번지 (평지교회 앞)	
25	굴왓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평지동 9650번지 (홍태권옹댁 앞)	
26	굴동산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이교동(속칭 '이도 릿동네')	
27	산이수동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 87번지 뒷밭	
28	앞동산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속칭 '앞동산' '앞 동산굴터'	
29	신물도리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563-4번지	
30	굴동산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466번지(홍무생옹 댁 앞)	
31	종개새미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상동 속칭 '종개새미'	
32	웃보알보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상동 속칭 '웃보 알보'	
33	영락리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속칭 '개물논(가마동)'	
34	보성리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상동(소재지) 대정읍 구억리 하동 속칭 '선담밭'(실제 사 용했던 가마환경)	
35	보성리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대정현성 서문지 서쪽 500미터 속칭 '굴동산'	
36	인향동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인향동 속칭 '구 남물'	
37	인향동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296-7번지 속칭 ' 조롱물'	
38	인향동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속칭 '조롱물'지경	
39	월광동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11번지 속칭 '된밭'	
40	안성리 노랑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대정현성 동문밖 약 400미터 지경	

연번	명칭	위치(행정구역상 소재지, 속칭)	비고
41	도남동 노랑굴터	제주시 도남동 신성여자고등학교터 남쪽 약 2km지경	
42	노형동 노랑굴터	제주시 노형동 822-3번지와 822-4번지 일대	
43	용담동 노랑굴터	제주시 용담2동 2797-1번지	
44	구석팻 검은굴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상동 속칭 '구석팻'	현존
45	남죽동 검은굴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남죽동 마을 (광령리 노랑굴터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	
46	신물도리 검은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563-4번지 속칭 '신물도리' 지경 노랑굴터 앞	
47	굴동산 검은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466번지(홍무생옹 댁 앞)	
48	인향동 검은굴터	서귀포시 대정읍 함덕리 인향동 속칭 '검 은굴왓'	
49	평사동 기왓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평사동 속칭 '외막팻'	현존
50	상귀리 기왓굴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항파두리토성' 북편	
51	조롱물 기왓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인향동 속칭 '조 롱물' 남쪽 지경	
52	고성리 기왓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항파두리성내 속칭 '장 탈'	
53	홀레동산 기왓굴터	제주시 구좌읍 상덕천리 속칭 '홀레동산'	
54	고분다리 기왓굴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속칭 '고분다리'	
55	공천포 기왓굴터	서귀포시 남원읍 상예2리 85-2번지 일대 속 칭 '공천포'	
56	신효동 기왓굴터	서귀포시 신효동 581번지(월라사와 속칭 '왜 통'지경 사이)	
57	서흥동 기왓굴터	서귀포시 서흥동 1300번지 속칭 '외왓' '외 왓병덕'	
58	서호동 기왓굴터	서귀포시 서호동 수모루 남쪽 속칭 '외왓'	

&lt;표 2&gt; 『제주읍지』(1780년경)에 나타난 제주인구

읍명(邑名)	면명(面名)	마을명	민호	남	녀	계	비고
제주목 (濟州牧)	중면 (中面)	일도리(一徒里)	351	838	1,052	1,890	
		이도리(二徒里)	282	624	842	1,466	
		삼도리(三徒里)	337	616	1,054	1,670	
		건입포리(健八浦里)	69	153	186	339	
		도로리(道路里)	40	109	130	239	
		오등생리(吾等生里)	35	85	110	195	
		아라호리(我羅好里)	-	102	115	217	
		별도리(別刀里)	-	-	-	441	
		흘리(訖里)	91	207	307	514	
		도연평리(道連坪里)	36	80	136	216	
		세쇄리(細刷里)	44	91	139	230	
		별라화리(別羅花里)	66	170	208	378	
		봉개악리(奉蓋岳里)	95	204	311	515	
		상무등천리(上無等川里)	45	121	142	263	
		하무등천리(下無等川里)	62	159	201	360	
		대독포리(大獨浦里)	52	166	175	341	
		오라호리(吾羅好里)	44	98	131	229	
		정실암리(井室岩里)	36	82	101	183	
		연동리(蓮洞里)	34	81	120	201	
		노형리(老衡里)	73	289	264	553	
		도두리(道頭里)	95	307	432	739	
		내도근천리(內都近川里)	45	172	219	391	
		외도근천리(外都近川里)	44	141	161	302	
		도평대리(都坪代里)	55	141	149	290	
		이생리(伊生里)	65	177	195	372	
	소계		<b>2,096</b>	<b>5,213</b>	<b>6,880</b>	<b>12,534</b>	
	좌면 (左面)	신촌리(新村里)	187	479	603	1,082	
		천미리(泉味里)	36	77	101	178	
		와호흘리(臥乎屹里)	30	81	116	197	
		대흘리(大訖里)	47	135	174	309	

		교래리(橋來里)	86	181	191	372	
		와호산리(臥乎山里)	86	207	264	471	
		조천리(朝天里)	168	492	535	1,027	
		함덕리(咸德里)	110	367	432	799	
		북포리(北浦里)	84	286	285	571	
		선흘리(先訖里)	49	148	178	326	
		김녕리(金寧里)	161	577	671	1,248	
		무주포리(無注浦里)	49	194	227	421	
		어등포리(於等浦里)	99	305	326	631	
		괴리(怪里)	86	249	327	576	
		평대리(坪代里)	120	341	502	843	
		하도리(下道衣)	88	396	424	820	
		상도리(上道衣)	88	234	341	575	
		세화리(細花里)	91	359	466	825	
		송당리(松堂里)	136	358	422	780	
	소계		<b>1,801</b>	<b>5,466</b>	<b>6,585</b>	<b>12,051</b>	
	신우면 (新右面)	상귀리(上貴日)	40	104	135	239	
		하귀리(下貴日)	75	165	263	428	
		광령리(光令里)	68	135	255	390	
		유신동리(有信洞里)	32	57	76	133	
		구엄장리(舊嚴莊里)	38	88	130	218	
		중엄장리(中嚴莊里)	64	144	211	355	
		신엄장리(新嚴莊里)	25	56	81	137	
		장전리(長田里)	36	86	127	213	
		고성리(古城里)	27	49	94	143	
		수산리(水山里)	72	140	225	365	
		금물덕리(今勿德里)	103	282	328	610	
		우로리(牛路里)	33	113	151	264	
		고내리(高內里)	46	123	155	278	
		애월리(涯月里)	41	136	216	352	
		상가락리(上加樂里)	43	121	158	279	
		하가락리(下加樂里)	45	100	100	200	

		남읍리(納邑里)	126	269	343	612	
		부면리(夫面里)	63	126	179	305	
		어음비리(於音非里)	58	123	214	337	
		곽지리(郭支里)	82	228	320	548	
		어도내리(於道內里)	79	238	339	577	
		모슬포리(毛瑟浦里)	49	159	192	351	
	소계		<b>1,245</b>	<b>3,042</b>	<b>4,292</b>	<b>7,334</b>	
	구우면 (舊右面)	귀덕리(歸德里)	71	131	210	341	
		소은귀림리(召隱貴林里)	21	45	65	110	
		잠수포리(潛水浦里)	86	197	212	409	
		대림리(大林里)	140	304	374	678	
		수류천리(水流川里)	159	367	523	890	
		우질둔리(牛叱屯里)	62	138	177	315	
		독포리(獨浦里)	86	231	282	513	
		협재리(俠才里)	88	271	317	588	
		저지리(楮旨里)	166	433	590	1,023	
		조호수리(造乎水里)	97	234	334	568	
		판포리(板浦里)	80	175	267	442	
		두모리(頭毛里)	189	484	639	1,123	
		금물악리(今勿岳里)	75	196	267	463	
	소계		<b>1,320</b>	<b>3,206</b>	<b>4,257</b>	<b>7,463</b>	
	계		<b>6,462</b>	<b>16,927</b>	<b>22,014</b>	<b>39,382</b>	
대정현 (大靜縣)	우면 (右面)	동성리(東城里)	123	253	342	595	
		금물로리(今勿路里)	75	196	240	436	
		자단리(自丹里)	59	106	122	228	
		범천리(犯川里)	45	94	129	223	
		동수리(洞水里)	44	83	122	205	
		감산리(柑山里)	61	136	202	338	
		통천리(通泉里)	43	93	136	229	
	소계		<b>450</b>	<b>961</b>	<b>1,293</b>	<b>2,254</b>	
	좌면 (左面)	창천리(倉川里)	85	204	257	461	
		상예래리(上猓來里)	60	130	170	300	

정의현 (旌義縣)		하예래리(下猓來里)	82	189	254	443	
		성산리(城山里)	47	90	122	212	
		새달리(塞達里)	37	85	74	159	
		중문리(中文里)	154	303	431	734	
		대포리(大浦里)	75	105	193	298	
		하원리(下院里)	44	81	131	212	
		석송리(石宋里)	51	90	134	224	
		강정리(江汀里)	96	199	257	456	
	소계		<b>731</b>	<b>1,476</b>	<b>2,023</b>	<b>3,499</b>	
	우면 (右面)	서성리(西城里)	95	169	225	394	
		하모슬리(下募瑟里)	118	302	366	668	
		일과리(日果里)	129	291	386	677	
		둔포리(頓浦里)	36	103	103	206	
		상모슬포리(上募瑟浦里)	145	349	412	761	
	소계		<b>523</b>	<b>1,214</b>	<b>1,492</b>	<b>2,706</b>	
	계		<b>1,704</b>	<b>3,651</b>	<b>4,808</b>	<b>8,459</b>	
	중면 (中面)	표선리(表先里)	74	258	317	575	
		세화리(細花里)	77	206	242	448	
		토산리(兔山里)	88	264	346	610	
		가시악리(加時岳里)	87	213	275	488	
		안좌악리(安坐岳里)	43	100	142	242	
		수망리(水望里)	31	103	100	203	
		동의귀리(東衣貴里)	47	175	198	373	
		서의귀리(西衣貴里)	31	70	115	185	
		보한리(保閑里)	19	35	58	93	
		화등리(火等里)	36	90	119	209	
		우미리(又尾里)	116	341	439	780	
		호촌리(狐村里)	49	146	181	327	
	소계		<b>698</b>	<b>2,001</b>	<b>2,532</b>	<b>4,533</b>	
	좌면 (左面)	종달리(終達里)	42	105	135	240	
		신달리(新達里)	33	95	130	225	
		역석을리(力石乙里)	79	220	301	521	

		오소리(吾召里)	67	190	362	552	
		고성리(古城里)	69	196	259	455	
		신양리(新陽里)	67	151	217	368	
		산양리(山陽里)	56	130	195	325	
		궁산리(弓山里)	23	45	58	103	
		성읍리(城邑里)	165	401	471	872	
		난산리(難山里)	58	143	212	355	
		여온리(與溫里)	95	265	326	591	
		신산리(新山里)	48	135	147	282	
		삼달리(三達里)	30	79	101	180	
		신평리(新楓里)	47	121	159	280	
		하천미리(下川尾里)	51	150	162	312	
		신천미리(新川尾里)	19	48	66	114	
	소계		<b>949</b>	<b>2,474</b>	<b>3,301</b>	<b>5,775</b>	
	우면 (右面)	상효돈리(上孝敦里)	29	75	83	158	
		중효돈리(中孝敦里)	68	173	244	417	
		하효돈리(下孝敦里)	101	280	347	627	
		보목리(甫木里)	52	164	169	333	
		토평리(吐坪里)	59	175	199	374	
		동홍로리(東烘爐里)	60	149	204	353	
		서홍로리(西烘爐里)	52	144	202	346	
		서귀리(西歸里)	49	136	156	292	
		호근리(好近里)	85	199	293	492	
		법환리(法還里)	123	346	462	808	
	소계		<b>678</b>	<b>1,841</b>	<b>2,359</b>	<b>4,200</b>	
	계		<b>2,325</b>	<b>6,316</b>	<b>8,192</b>	<b>14,508</b>	
	총계		<b>10,491</b>	<b>26,894</b>	<b>35,014</b>	<b>62,349</b>	



## 도 판



<도판 1-①> 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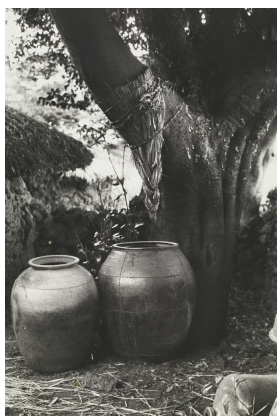
<도판 1-②> 허벅과 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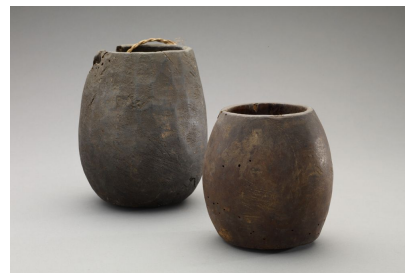
<도판 2-①> 물허벅 진 사람들, 홍정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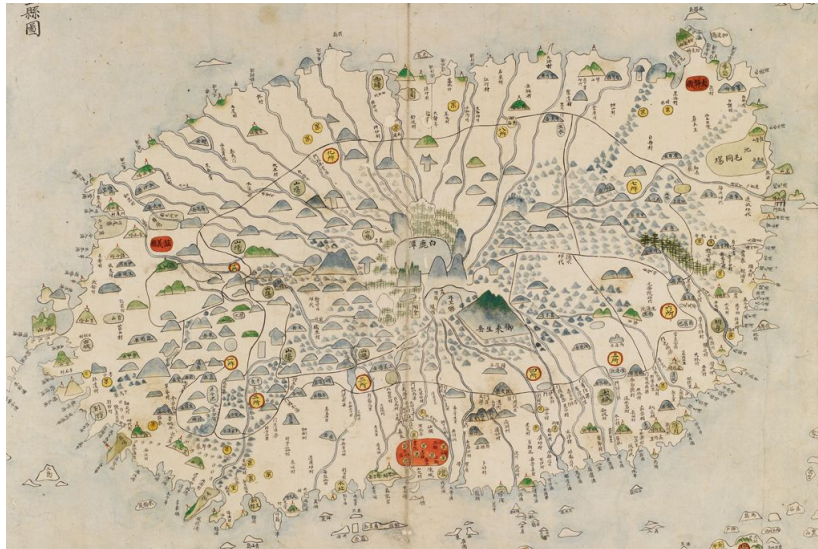
<도판 2-②> 물허벅 진 사람들, 홍정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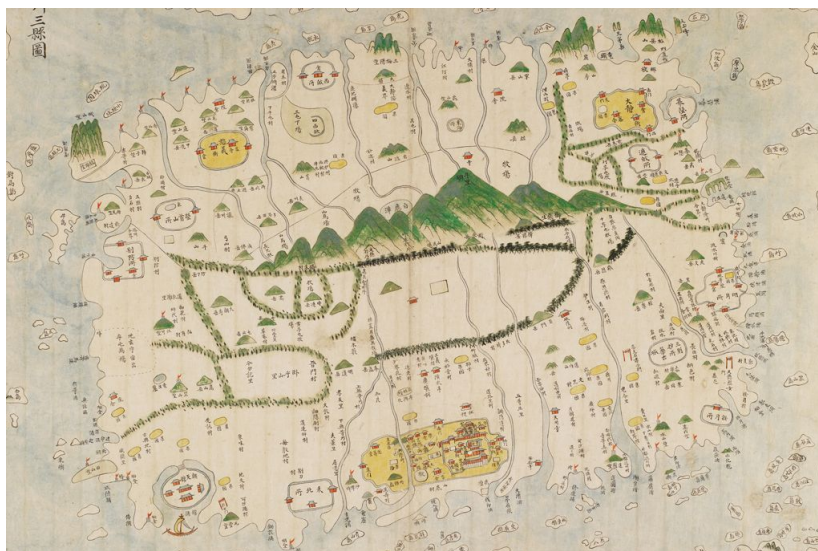
<도판 3> 춤받음향, 홍정표 촬영



<도판 4> 목통(木桶),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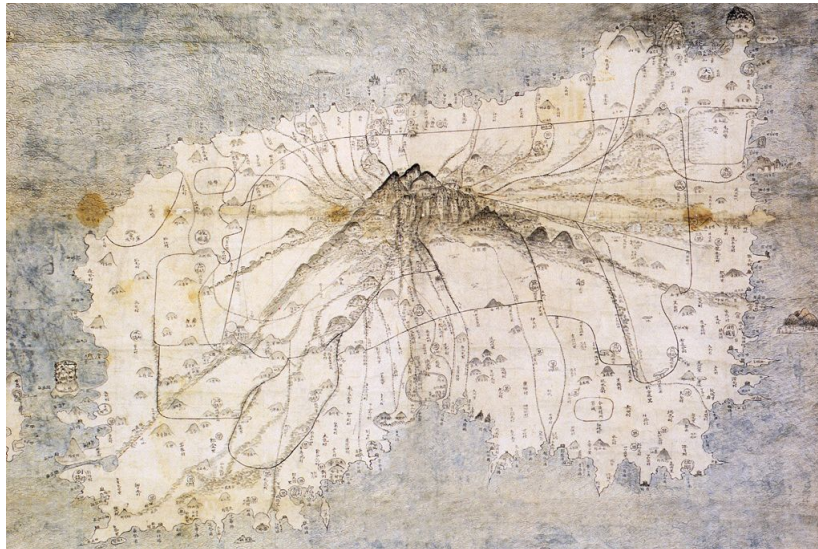


<도판 5-①>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판 5-②>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판 6>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도판 7-①>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판 7-②>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제주지도(濟州地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판 7-③>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판 7-④>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판 8> 담라도총(耽羅都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판 9> 한라장축(漢拏壯圖), 제주시청 소장



<도판 10>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 - 『호남읍지』 수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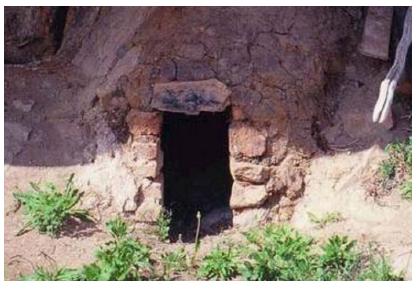




<도판 11> 고온 산화번조 가마[노랑굴]  
아궁이 입구



<도판 12> 여초리(余草里) 기와가마의  
아궁이



<도판 13> 문경 관음리 망텨이가마의  
아궁이



<도판 14> 살창기둥과 격벽[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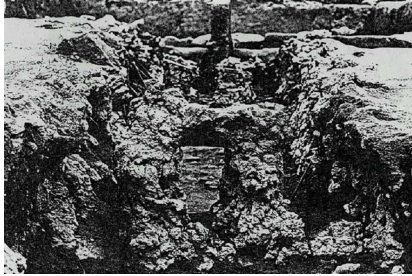


<도판 15> 방목리 가마



<도판 16> 신양리 가마





<도판 17> 정생동 가마



<도판 18> 고운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굴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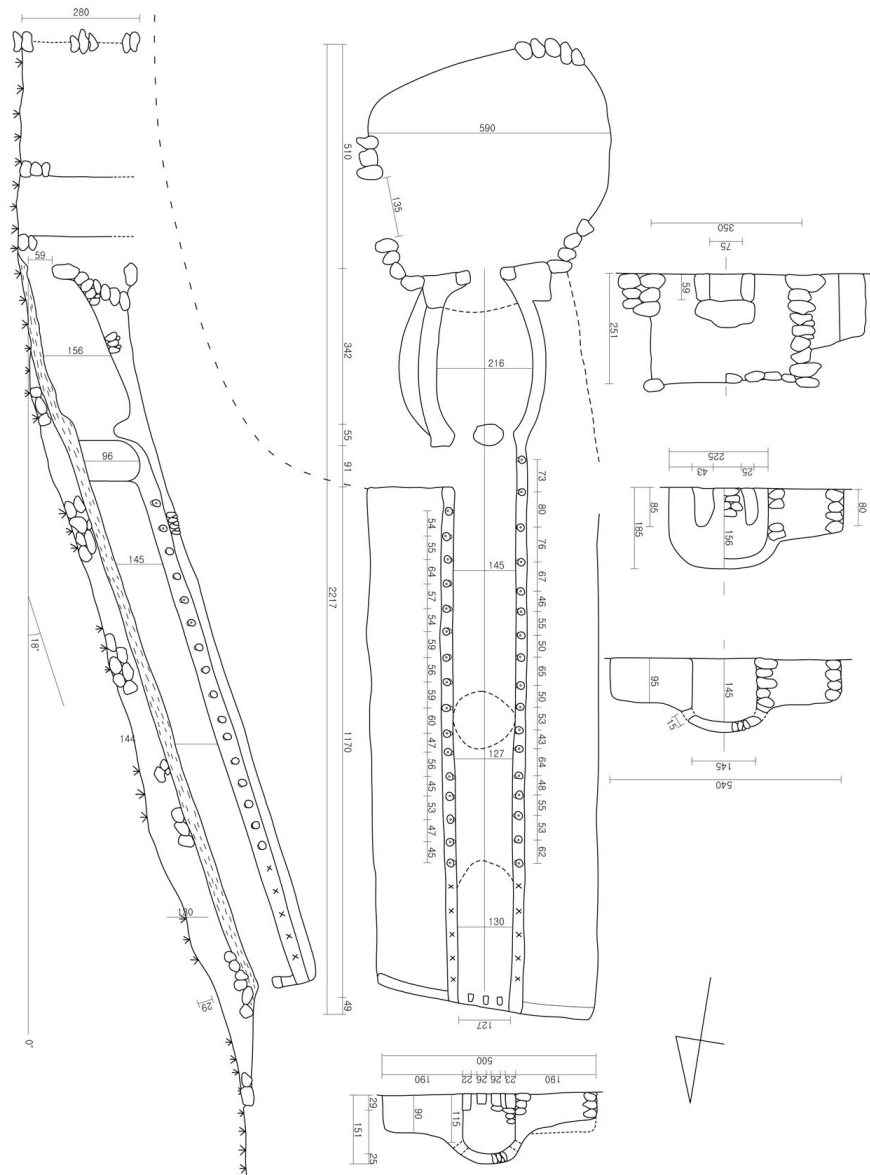
<도판 19> 미륵리 1호가마



<도판 20> 문경 관음리 가마



<도판 21> 대전 구암리 도요



<도판 22>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실측도면



<도판 23>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전경



<도판 24>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아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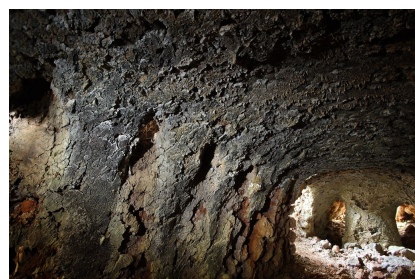
<도판 25>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연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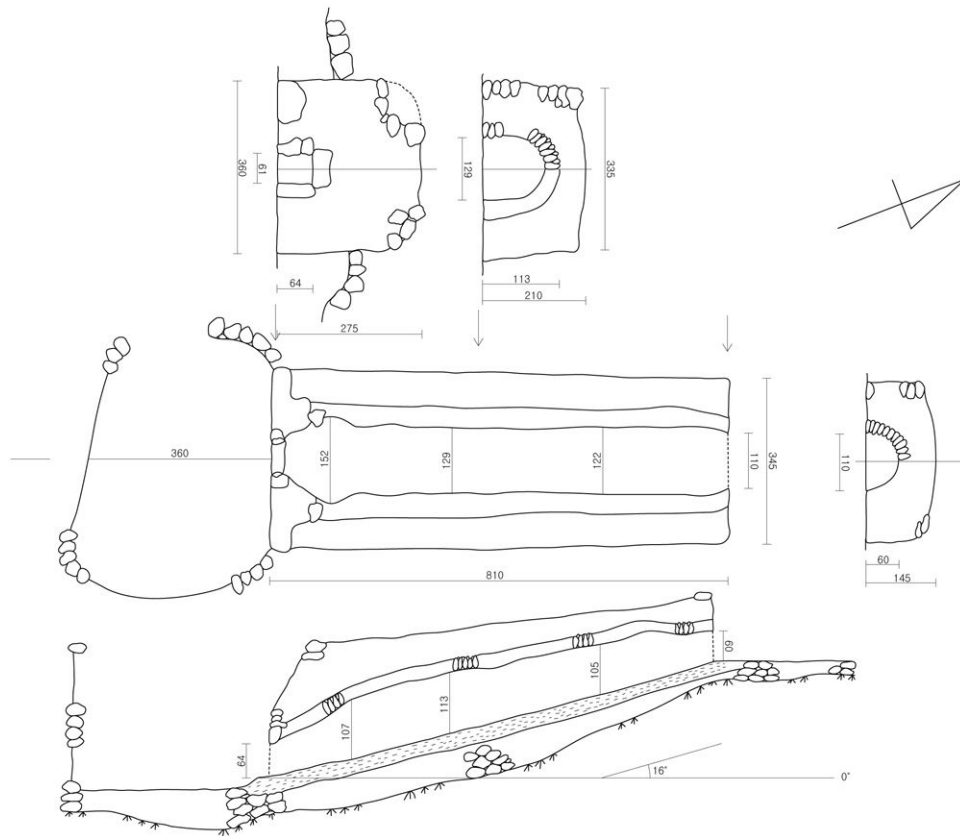
<도판 26>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불벽과 불구멍



<도판 27>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변조실



<도판 28> 고온 산화변조 가마[노랑굴]  
갯불구멍



<도판 29>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실측도면



<도판 30>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전경



<도판 31>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아궁이





<도판 32>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내부



<도판 33>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배연구



<도판 34>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내부벽



<도판 35> 환원번조 가마[검은굴] 천정



<도판 36> 탐락약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도판 37> 덕판배,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도판 38> 마차, 홍정표 촬영



<도판 39> 질 때리기, 홍정표 촬영



<도판 40> 타럼질



<도판 41> 소라껍데기 흔적,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판 42-①> 조개껍질 흔적,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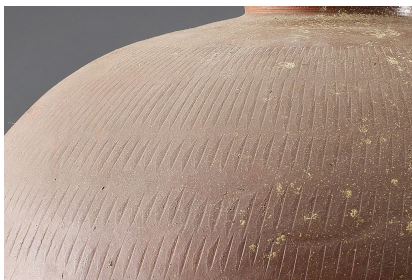
<도판 42-②> 조개껍질 흔적,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판 43> 횡선문(橫線文)



<도판 44> 파상문(波狀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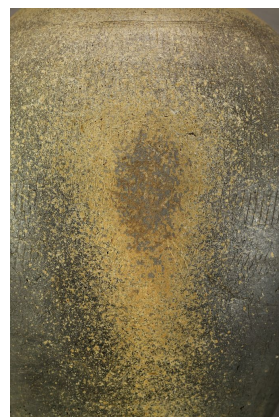
<도판 45> 빗살문[縱線文]



<도판 46> 파상문만 시문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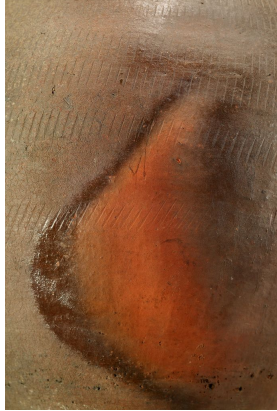


<도판 47> 무유(無釉) 고운 산화번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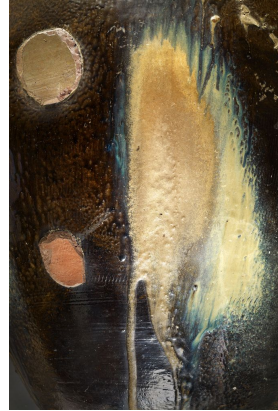


<도판 48> 자연유상태의 발색





<도판 49> 자연유상태의 발색



<도판 50> 자연유상태의 발색



<도판 51> 그릇을 썩워 고온 산화변조한  
허벅,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판 52> 환원변조 허벅,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도판 53> 도기호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도판 54> II-b형식 허벅,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도판 55> III-b형식 허벅,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판 56> IV-b형식 허벅,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판 57-①> 변형된 환원번조 허벅,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도판 57-②> 변형된 환원번조 허벅,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 **ABSTRACT**

### **Study of the pottery of Jeju in the late Joseon dynasty**

**-centering on the Heobeok-**

**Lee, Kyung Hyo  
Department of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is thesis deals with the Heobeok, which is a kind of pottery made on Jeju isla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Heobeok was a pot for carrying water. It was a unique custom in Jeju, not found in the mainland. Accordingly, it has been dealt with in modern ceramics mainly in the aspects of folklore, sociology and the method by which it is made. However, it has not gained attention from researchers in art history and few studies have been done. Thus, the aim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1. to make clear the origin and history of the Heobeok
2. to prepare a ground for the pottery of Jeju to be accepted as part of the history of ceramics through figurative analysis like conditions of location and varieties of kil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iln, function of the Heobeok and changes in style of the Heobeok.

First, by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origin of the Heobeok, we could see that the Heobeok was an important container used for carrying water until modern times when water supply facilities were introduced. When it rained, water seeped into the layers of volcanic ash soil and basalt, finally springing on the shore of the island. The Heobeok was a big jar with narrow mouth and widened shoulder used for drawing water from the water springs.

According to the records of 18th century literature, water containers were wooden tubs, not earthenware. From *History of Jeju Eup* and *History of Daejeong Hyeon* dating back to the late 18th century(circa 1780 A.D.), and also from the existence of the pottery store Gamisu, located two kilometers west of Daejeong Hyeon, we can infer that the earthenware Heobeok replaced wooden containers.

When we look at the formative phases of kiln, there are three references. First, *Honghwagakjungsugi* of 1649, telling the situation of the mid-17th century, says that there are not craftsmen capable of producing roofing tiles, and that they need to be brought to Jeju from the closest town in the mainland. Second, *Jejujangsudanggi* of 1660 says that roofing tiles can be replaced by well-baked earth. Third, *Jiyeongnok* of 1694 by Lee Ik-tae says that roofing tiles needed for repairing Yeonmujeong are baked at the old kiln site in Myeongwolmyeon, the work being assigned to the nearby servants. Through these we can infer that, by 1694, producing roofing tiles became possible with the inflow and mastering of skills. Just as Jeju governor Lee Hyeong-sang said in *Namhwanbakmul* that ceramics were not produced in Jeju, generally kilns capable of producing ceramics didn't seem to present until the early 18th century. However, through this process, kilns capable of producing pottery were made and skills were handed down. We could infer that, by the mid-to-late-18th century, kilns came into existence and that earthenware was produced.

The region where the pottery store Gamisu existed, as recorded in the *History of Jeju Eup*, was located 2 kilometers west of Daejeong Hyeon. It is the region where the most existing kiln sites are distributed. From this we can infer that the condition of location was centered not on demand but on resources. That is, if it had been demand-centered, it should have been situated in the densely-populated Jeju Mok. However, kiln sites were situated in the relatively sparsely-populated Daejeong Hyeon area, which shows that the Daejeong Hyeon area was good for acquiring earth and firewood when baking, thus meeting the need for resource-centered condition of location. Especially,

'su' in Gamisu is a borrowed word for 'got' meaning 'forest', and it is often called 'Gotjawal'. It was easy to seek firewood in this region. Through the old maps like *Haedongjido-Jejusamhyeondo*(circa 1750), *Jejusameupjeondo-Daejeonggunjido*(1872), *Jejuguneupjido-Daejeonggunjido*(1899), we can identify that the site of 'su' and the boundary where kilns are distributed correspond to the present Wollim-Shinpyeong Gotjawal.

There were two kinds of kilns that produced Heobeoks: the high-temperature oxidation modulating mode kiln(yellow cave) and the reduction modulating mode kiln(black cave). Through research and comparative analysis, we examined the style of kiln construction, structure of kiln, way of laying pottery in kiln and way of baking pottery. Also we looked into the demand and distribution of products and Heobeoks as they relate to population density and road network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fter analyzing the techniques for producing the Heobeok and changes in function and style, we have found that color and solidity vary depending on the method of baking, whether it is high-temperature oxidation modulating mode or reduction modulating mode. We have also found that size and shape vary depending on the method of producing and function.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method of producing, Chetbakwitaryeom, meaning 'building walls of dish on a treadmill' came into existence in Jeju, which used to be considered to be unique in Jeolla Province. Also manufacturing tools that share the same names with tools in Jeolla Province appeared. This is the evidence that shows the influx and relationship between Jeju and Jeolla Province. By the mid-17th to early-18th century, traces of shells disappear and traces of thick sands begin to appear as fire-proofing agents; whereas in Jeju traces of shells continued to exist. This is the evidence that allows us to guess the chronology of pottery.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location of Jeju being an island, despite the elements of influx from the mainland and the external influx like navigation and drifts, Jeju was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in the receptive side. When

brown pottery painted with glaze was produced in the mainland, in Jeju, non-glazed and high-temperature oxidation modulating mode pottery, gray hard earthenware of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and reduction modulating mode pottery from Goryeo earthenware were produced, and the production of non-glazed and high-temperature oxidation modulating mode pottery has continued until recently. At the present, the manufacturing technique for this has no counterpart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t does have similarities with Yukgoyo of Japan and Arayachi of Okinawa, which remains to be studied further.

keyword: Heobeok, pottery, wooden tub, pottery store, tiled roof kiln, high-temperature oxidation modulating mode kiln(yellow cave), reduction modulating mode kiln(black cave)